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Vol. 10 (2000)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제10호 (2000년)

김성군 변호사

저희 법률 사무소는 교포 여러분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변호사

- * 서포크 법과 대학원 J.D.
- * 주법원 판사 보조
- * 매사추세츠주 국제 투자 개발원 근무
- *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졸업
- * 성균관 대학교 졸업
- * *Gargill, Sasson & Randolph, William Diller* 합동 법률 사무소 근무

- ❑ **교통 사고 및 처리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 ⊕ 교통 사고 피해 보상
 - ⊕ 교통 사고 후유증
 - ⊕ 취중 운전
- ❑ **이민법/국제 투자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 영주권 이민 / 투자 이민 수속
 - ⊕ 장단기 취업 비자 취득
 - ⊕ 유학생 비자 변경
- ❑ **사업체 설립 및 매매에 대해 궁금하십니까?**
 -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제반 서류 작성
 - ⊕ 사업체 매매 계약서 작성
 - ⊕ 리스가 만기되어 갱신하는 경우
 - ⊕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 ❑ **라이센스가 필요하십니까?**
 - ⊕ BEER/LIQUOR 도매 소매 허가증
 - ⊕ 각종 허가 변경 및 갱신
- ❑ **가정법**
- ❑ **상용 및 주거용 부동산 구입 및 판매**
- ❑ **법정 통역, 공문서 번역, 공증**

상해 보상은 변호비용 부담이 전혀 없으며, 소송의 완결, 성공 이후에만 지불합니다.

Tel:(617)482-1300 Fax:(617)482-3344

Song-Kun Kim, Esq.

294 Washington St., Suite 752, Boston, MA 02108



Published by: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294 Washington Street, Suite 752
Boston, MA 02108
Tel: (617) 799-7033
Fax: (617) 482-3344
<http://www.KACL.org>

Publisher: Song-Kun Kim

Editorial Board Advisor:

Kyung Min Park

Editor-in-Chief: Eui In Lee

Editors: Michael Kim, Moon So Kim

Kyung Won Park

David Park, Kay Dong

Printing: Bigwood Press

발행처: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발행일: 2000년 12월 28일

발행인: 김성군

편집고문: 박경민

편집장: 이의인

편집위원: 김명기, 김문소, 박경원

박대위, 이경해

인쇄: 큰나무 인쇄소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NE) was established on August 18, 1990 to provide a coherent political voice within the community. The goals of the League are to encourage active Korean-American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to educate Korean-Americans about their right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 American citizens, to enhanc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America, and to contribute unique Korean elements to American society. To this ends, KACL has performed the following activities:

1) Voter Registration Drive within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The League has been working to increase voter registration by writing articles in the local news media, sending mail to the Korean-American citizens in New England, and employing various other methods.

2) Assisting Preparation for Citizenship Application:

The League has published the "Citizenship Test Guidebook" in both English and Korean, provided free classes on the citizenship test, and sponsored written tests on U.S. government and history in both English and Korean. Also the League has provided free Citizenship Workshops twice a year since 1997.

3) Supporting Political Interns:

KACL has supported Korean-American political interns who would be interested in pursuing political careers by providing financial support and opportunities to work in Senator's and governor's offices.

4) Endorsing and Supporting Politicians:

KACL has endorsed politicians who support the rights of Korean-Americans, including William Clinton, Edward Kennedy, William Weld and Scott Harshbarger.

5) Lobbying:

The League has lobbied for and against passage of laws affecting rights of Korean-Americans, including a letter-writing campaign to the U.S. President and Congressmen against passage of the welfare and immigration reform bill.

6) Public Relations Campaign:

KACL has publicized its activities to both Korean-Americans and non-Korean-Americans by publishing journals and newsletters, writing articles, placing advertisements in local news media, and direct-mailing to Korean-Americans.

Page	
3. 발간사	회장 김성군
Message from the President	Song-Kun Kim, President
5. 격려사	William Clinto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ngratulatory Messages	Argeo Paul Cellucci, Governor, Massachusetts Jeanne Shaheen, Governor, New Hampshire Lincoln Almond, Governor, Rhode Island Martin T. Meehan, United States Congressman, Fifth District, Massachusetts John F. Tierney, United States Congressman, Sixth District, Massachusetts John E. Sununu, United States Congressman, First District, New Hampshire Charles F. Bass, United States Congressman, Second District, New Hampshire 신임총영사 박재선
14. 이사장 인사 말씀	공동이사장 김양길
Message from the Chairman	Yangkil Kim, co-Chairman of the Board
16. 시민협회 활동 보고	사무총장 김명기
Activities of the League During FY 2000	Michael M. Kim, Executive Director
19. 아리랑의 한을 풀어야한다 - 재외동포들에게 조국은 어떤 존재인가	고문 박경민
We have to work out our bitterness associated with Arirang	Kyung Min Park, M.D., Advisor
23. 시민협회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공동이사장 김문소
10 Memorable Years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Dr. Moon So Kim, co-Chairman of the Board
25. 한인 미국인과 한국전쟁의 유산 (제10회 총회 주제 강연)	램지 리
Korean American and the Legacy of the Korean War	Ramsay Liem, Assistant Professor
35. 아시아 단체 소개	
아시아 아메리칸 유니티 디너	최홍균
Asian American Unity Dinner (AAUD)	Dr. Hong Kyun Choi
아시아인을 위한 반가정폭력 봉사회	김동희
Asian Task Force Against Domestic Violence (ATFADV)	Dong Hee Kim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칸 정책 연맹	마이클 류
Asian Pacific American Agenda Coalition (APAAC)	Michael Liu, President
미연방 취업평등기회 위원회	펑 쿠이 (케네스) 안
Equal Employment Opprotunity Commission (EEOC)	Feng Keui (Kenneth) An
39. 정치 인턴 보고	엄성훈
A Report from Political Interns	James Sung-Hoon Uhm
	최은영
	Eun Young Choi
42. 시민협회에 참여하고 도와주신 분들	2000년도
Benefactors to the League	FY 2000
43.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헌장	(1996년 10월 19일 개정)
Constitution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Amended on October 19, 1996)
47. 협회 임원, 이사 명단 및 주소록	(2000년 12월 28일 현재)
Directory of the Officers and Board of Directors	(As of December 28, 2000)
50. 재무 보고	재무 정인석
Financial Report for FY 2000	Eugene Chong, Treasurer
52. 시민협회 입회원서 (Membership Application)	
53. 뉴잉글랜드 지역 업소 전화록	기타 기사: 15. 각 위원회별 업무 내역
55. 개인, 업소 및 단체 광고	18. 미국 시민권 취득 안내
	24. 시민권자가 알아야 할 중요 법규
	41. 편집후기
	47. 임기 년한별 이사 구분
	47. 협회 주요 사업 계획
	50. 2001년도 예산

지난 10년 동안 저희 시민협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이사장님, 회장님, 많은 실질적인 일을 하여주신 임원, 이사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인의 미국내 정치력 부족을 절감하여 1990년 8월 김영삼 초대 회장님을 필두로 창립된 뉴잉글랜드 시민협회는 현재 민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시민권 취득 및 유권자등록 권유활동을 비롯하여, 젊은 정치인 배출의 초석이 될 정치 인턴 장학 사업, 한인의 권익옹호를 도울 정치인 지지사업, 한인이 미국 내에서 알아야 할 민권법의 홍보 및 개정사회복지법 저지 등등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러한 협회원 모두의 노력 덕택으로 이제 시민협회는 특히 이곳 교민들에게 뉴잉글랜드 민권단체의 모범이 되었고 아시안 타민족 단체에도 귀감이 되는, 조직과 활동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민권단체로 발돋움하였습니다.

2000년도의 협회활동을 간략히 보더라도, 수차례 결친 시민권 취득 워크샵, 지난 4월 정치 인턴을 위한 모금 파티를 통한 6명의 2세 정치 인턴 배출, 2000년의 대선 투표 권유를 위한 책자 발행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아시안 타 민족단체와의 연계 협력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이러한 협회활동의 공적이 인정되어, AAUD로 부터 전 김양길 회장님(1996-1998)께서는 "공로상"(Individual Achievement Award)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최홍균 전회장(1999-2000)께서 워싱턴 전국 시민 연맹(LOKA-USA)으로 부터 올해의 "시민 봉사상"(Citizen-of-the-year Award)을 수상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시민협회 2001년은 과거 10년 그리고 지난해의 활동을 거울삼아 더욱 힘차고 새로운 도약의 한해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협회내의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참여로 여러 위원회가 있었지만, 활동측면에서 보면 다소 미약한 것 같아 새롭게 개편된 위원회 조직으로 위원들의 더욱더 많은 동참을 바라고 있습니다.

2. 젊은 이사들의 영입과 그들의 왕성한 활동을 도출하여야 하며, 이제 벌써 2세 정치 인턴이 11명이 배출되어 이들의 협회 참여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젊은 이사가 활동하는 시민협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 저희 협회는 지난 몇 해 동안 시민권 취득과 유권자 등록을 지속적으로 권유한 덕택으로 이 지역에도 많은 한인 시민권자가 있습니다. 이제 2001년에는 이러한 시민권자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거주하는지 유권자의 파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파악이 일단 이뤄지면, 이들이 각각 거주 지역에서 주/연방 선거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협회에서 권유하는 캠페인을 벌일 수 있습니다.

4. 저희 시민협회는 이곳 한인 지역 단체와의 협력관계는 물론이고 미국 전체 시민협회와 아시안 타민족 민권 운동 단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동조 활동을 벌여야 하였습니다. 소수 민족의 권익을 위해서는 단체들의 연맹이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5. 선거직 한인 정치인 배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였습니다. 2000년 지방선거에서 Lowell 시 캄보디아계 위원으로 리티 웡 (Rithy Wong) 이 그리고 Newton시 중국계위원으로 에이미 마 쟈시오로(Amy Mah Sangiolo)가 선거직 시 위원으로 뽑히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민협회에도 뜻있는 한인 정치인을 발굴하여 그들의 선거 승리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의 협회업적을 성찰하여보면, 너무나 많은 좋은 계획이 이미 논의되어 한가지도 놓칠 수 없는 사업들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협회 모든 구성원의 동참이 있었기에 오늘의 협회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의 사업의 성공 여부 또한 협회를 아끼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 저희 협회에 참여하실 젊고 의욕이 넘치는 새로운 이사님들에게 협회를 대표하여 무엇보다 환영합니다. 이제 2001년 이사회는 새롭게 개편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더욱더 왕성하고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모임이며, 민권운동의 합의 취지로 지속적인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원**

My special thanks of a decade is given to Chairpersons, Yangkil Kim, Moon



So Kim, and predecessors - David Park and Moon Yeal Lee, former President, Hong Kyun Choi and each of the staff members, board of directors, and all the members of the KACL of New England for their continued dedication and support in the past ten (10) years.

Since its inception in the August of 1990 when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felt the need of political mobility and empowerment, KACL of the last decade has played pivotal roles in our political community: Citizenship Workshops and Voter Registration Drives to help exercise civic duties; Implementation of Political Internship Program for young political interns to facilitate their new political career; Campaigns for politicians, who are willing to listen to and take up political issues concerning rights of Korean-Americans; and numerous publication activities through guidebooks and pamphlets to insemenate civil rights and resourceful information to know as concerned U.S. Citizens. Thanks to these collective efforts and dedications of KACL, it became an ideal civic association in name and substance alike to many Korean-Americans in the New England area. In addition, envious are particularly those ethnic communities in modeling after our KACL activities.

To summarize the year 2000 activities under the leadership of former president

- Dr. Hong Kyun Choi, there were several Citizenship Workshops; scholarship granted to six (6) young political interns having worked for government offices; Publication of voting information of 2000 federal elections; and concerted efforts to work with other ethnic organizations. As KACL continues to be recognized and therefore acknowledged by other ethnic communities, former president, Mr. Yangkil Kim (1996-1998), was awarded with great honor "Individual Achievement Award" by Asian American Unity Dinner (AAUD) and most recently former president (1999-2000) receiving "Citizen-of-the-year Award" from the League Of Korean Americans - USA.

KACL's new initiatives of a new millennium remain the same in spirit reflecting all of the activities in the past decade, but with enhanced vigor and focused effectiveness, performing than unrealized promises.

1. We need to activate committees' role, which have been somewhat dormant in the past few years. Better re-structured and more effective participation is desired to be fully instrumental for our organizational activities.

2. KACL must generate participation by

김성군회장은 성균관대학교와 U. Mass Boston 을 졸업하고 Suffolk Univ. Law School을 졸업한 후 1994년에 매사추세츠 변호사가 되었으며 현재 김성군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 주대법원에서 한국어 번역 및 통역관으로, APAAC의 이사 및 경제인 협회의 부회장으로 있으며 뉴잉글랜드 한인회 보에 2년에 걸쳐 법률칼럼을 연재하고 있고 또한 과학자기술협회 및 노인대학에서 강좌도 담당한 바 있다.

Song Kun Kim, President, graduated from Sungkyunkwan Univ. in 1984 and UMass in 1988, and Suffolk Univ. Law School in 1993. He was admitted to the Massachusetts Bar in 1994; he now runs his own law office in Boston. He has been working as a Court Interpreter and Translator of Korean at Mass. Superior Court from 1988. He also serves APAAC as a board member, Korean Business Association of New England as vice president. He contributes to NE biweekly newsletter from Korean Society of New England, and delivered several lectures on laws at various Korean organizations.

more number of young and diverse board members. Thus far, KACL has sponsored eleven (11) young political interns, interested and now experienced in the political arena. With their continued participation, KACL should flourish to a new level of activism in our political community.

3. Together with continued fostering Citizenship Workshops and Voter Registration Drives, we must initiate a data collection of Korean-American voters from town to town all over the New England in the year of 2001. More effective electoral campaigns and our political influence cannot be achieved in the absence of who actually casts a ballot in elections, municipal, state and fede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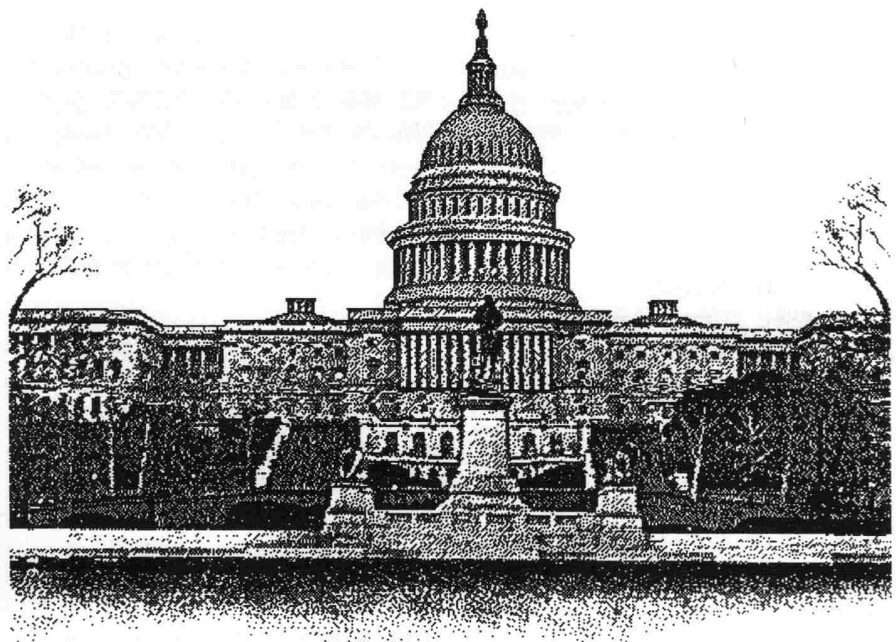
4. KACL should make continuing efforts to work together with other ethnic civic associations, such as APAAC (Asian Pacific American Agenda Coalition), AAUD, JACL, and others. KACL needs to collaborate and coalesce with other groups of minority when encountering issues effecting our political rights.

5. In order for our political voice to be fully heard, KACL will strive to support an election of Korean-American elected officials. In a local 2000 election, Rithy

Wong, a Cambodian descendent was successful to hold the office of a city counsel, and Amy Mah Sangiolo elected as a Newton City Counsel. As learned from these 2000 election, our support and participation can break ground for the birth and victory of a new Korean-American politician.

In view of our numerous activities and continued commitment of a decade, KACL has achieved many with a great deal of pride. At the same time, we can also find good projects and agenda that were discussed but had yet to be fully realized. As in the past, success or failure of our 2001 projects and initiatives is absolutely dependent upon each and every one of your hands, dedication, and your sincere participatory activism.

Most important, I, on behalf of KACL, welcome several new board members of vigor and aspiration, and dedicated to goals of KACL. I applaud and encourage your best commitment to building a strong body of KACL, which can carry forward the mission of our organization for the benefit of our entire Korean-American community in New England. **KACL**



미 국회 의사당



THE WHITE HOUSE
WASHINGTON

October 27, 2000

Warm greetings to everyone gathered for the ten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As Americans, we can be proud of our diversity. Striving together, people of different ethnicities, backgrounds, races, and religions have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our nation, reflecting the profound truth that this rich diversity is one of our greatest strengths.

The members and supporters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upholding this fine tradition. I commend each of you for your firm commitment to encouraging Korean Americans to become active participants in the democratic process and to promoting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ulture. You can take great pride in knowing that your efforts are helping to ensure that America lives up to its promise of equality and opportunity for all our people.

Best wishes for a productive meeting and much continued success.

Bill Clinton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EXECUTIVE DEPARTMENT

STATE HOUSE • BOSTON 02133

(617) 727-3600

ARGEO PAUL CELLUCCI
GOVERNOR

JANE SWIFT
LIEUTENANT GOVERNOR

September 2000

Dear Friends:

On behalf of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I extend congratulations on the tenth annual publication of the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NE).

Since its inception, KACL-NE has served as a voice for the Korean-American communities in New England. Indeed, through leadership and community activism, KACL-NE has made a positive and meaningful impact on the lives of many individuals. I applaud the outstanding efforts of the KACL-NE and commend its uncompromising dedication to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and the Commonwealth at large.

Again congratulations, and best wishes for continued success.

Sincerely,

Argeo Paul Cellucci



JEANNE SHAHEEN
GOVERNOR

STATE OF NEW HAMPSHIRE

OFFICE OF THE GOVERNOR

August 25, 2000

Dear Friends:

As Governor of the State of New Hampshire, I extend my greetings to all in attendance for the 10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is to be commended for its commitment to preserving and promoting the long and rich cultural traditions of Korea. As our world becomes increasingly interconnected,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are vital to the prosperity of all people.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has proven itself to be a leader in this area through its efforts to involve its membership in the political process to assure that Korean-American interests are represented.

The strength of our state, our region, and our nation is based on the diversity and involvement of our people. Once again, I extend my best wishes for a successful meeting and look forward to witnessing your involvement in political process.

Very truly yours,

A handwritten signature in cursive script that reads "Jeanne Shaheen".

Jeanne Shaheen



State of Rhode Island and Providence Plantations

State House
Providence, Rhode Island 02903-1196
401-222-2080

LINCOLN ALMOND
GOVERNOR

September 10, 2000

Hong Kyun Choi, Ph.D.
President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228 Depot Street
Easton, MA 02375

Dear Dr. Choi & Colleagues:

On behalf of the State of Rhode Island and Providence Plantations, I extend warm greetings to the participants of this year's annual meeting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NE), especially to those Rhode Island members who contribute to your success.

In addition to serving as the voice for the Korean-American residing in New England, your league encourages participation in local, state and national politics. Your informative and educational features provide an opportunity for Korean-Americans in Rhode Island to inform their elected officials of issues that concern them. Your leadership and guidance in our society and our community is essential and very much appreciated by all the New England states.

Please accept my warmest wishes for another productive and successful event. As always, I look forward to receiving and reviewing a copy of your annual publication.

Sincerely,

A handwritten signature in cursive script that reads "Lincoln Almond".

Lincoln Almond

MARTIN T. MEEHAN
5TH DISTRICT, MASSACHUSETTS
<http://www.house.gov/meehan/>

2434 RAYBURN HOUSE OFFICE BUILDING
WASHINGTON, DC 20515
(202) 225-3411 Fax: (202) 226-0771

COMMITTEES:
ARMED SERVICES
SUBCOMMITTEE ON MILITARY RESEARCH & DEVELOPMENT
SUBCOMMITTEE ON MILITARY PERSONNEL
SPECIAL PANEL ON MORALE, WELFARE & RECREATION, RANKING MEMBER
JUDICIARY
SUBCOMMITTEE ON CRIME
SUBCOMMITTEE ON IMMIGRATION & CLAIMS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 20515

DISTRICT OFFICES:
11 KEARNEY SQUARE, THIRD FLOOR
LOWELL, MA 01852
(978) 459-0101 Fax: (978) 459-1907

BAY STATE BUILDING
11 LAWRENCE STREET, SUITE 703
LAWRENCE, MA 01840
(978) 681-6200 Fax: (978) 682-6070

WALKER BUILDING
255 MAIN STREET, ROOM 102
MARLBOROUGH, MA 01752
(508) 460-9292 Fax: (508) 460-6869

September 10, 2000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228 Depot Street
Easton, MA 02375

Dear Friends:

As U.S. Congressman for the Fifth District of Massachusetts, it is my pleasure to be a part of the 10th Annual Journal for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NE). The KACL-NE is an integral part of enhancing Korean-American civic involvement.

As an organization, you actively encourage participation in local, state and national politics and policy-making. You take the initiative to educate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on its rights and opportunities. Furthermore, you provide a unique forum for the exchange of ideas and cultural dialogue. These efforts give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both a strong voice and the will to be heard. Indeed, your commitment to increasing Korean-American participation in our democratic process is vital not only to the well-being of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but also to the health and strength of our democracy. America's greatness was forged in a melting pot of diverse cultures and ideas. Your work reminds all of us of America's rich and diverse heritage and the ideals upon which this nation was founded.

Best wishes for a successful annual meeting. Your organization is to be commended for its service to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and all New England residents. I wish you continued success.

Sincerely,

Martin T. Meehan
Martin T. Meehan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JOHN F. TIERNEY
MASSACHUSETTS
SIXTH DISTRICT



September 7, 2000

Hong Kyun Choi, Ph.D.
 President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228 Depot Street
 Easton, MA 02375

Dear Dr. Choi:

On this 1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I am pleased to celebrate with you the important and continuing work done by the League. During this past decade, the League has worked at all levels to enhance the channels of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between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and legislators.

The League's commitment to enhancing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Korean-Americans, through voter registration drives, assisting with the citizenship process and introducing young people to the political process, is impressive and commendable. I look forward to many more years of the League's participation on the local, state and national level.

Please accept my best wishes for continued success in the League's endeavors.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in the future on issues of importance to us all.

Sincerely,

John F. Tierney
 Member of Congres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 C. 20515

JOHN E. SUNUNU
FIRST DISTRICT
NEW HAMPSHIRE

September 10, 2000

Hong Kyun Choi, Ph.D.
President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228 Depot Street
Easton, MA 02375

Dear Dr. Ch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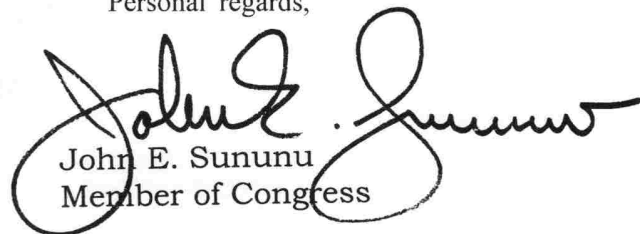
As Congressman from the First District of New Hampshire, I am pleased to extend my best wishes on the occasion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s 10th Annual Meeting. I commend your members on their continued interest and growing participation in our Nation's democratic process.

In the past year, you have reached out to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to stress the importance of voter registration and taking part in the census. You have also supported internships within government offices to allow students the opportunity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 future career in public service.

Your 10th anniversary is a true milestone for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Each step you take as individuals and as a community to strengthen our liberties and freedoms supports the very foundation of our great Nation.

I look forward to our continued positive working relationship.

Personal regards,



John E. Sununu
Member of Congress

CHARLES F. BASS
2D DISTRICT, NEW HAMPSHIRE
218 CANNON BUILDING
WASHINGTON, DC 20515-2902
(202) 225-5206
e-mail: cbass@mail.house.gov
web page: www.house.gov/bass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THE BUDGET
COMMITTEE ON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SUBCOMMITTEE ON AVIATION
SUBCOMMITTEE ON SURFACE TRANSPORTATION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SUBCOMMITTEE ON HUMAN INTELLIGENCE,
ANALYSIS, AND COUNTERINTELLIGENCE

August 31, 2000

Mr. Hong Kyun Choi, Ph.D.
President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228 Depot Street
Easton, MA 02375

Dear Friends:

Please accept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publication of your 10th annual Journal of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The League can be proud of the work it does to encourage Korean-Americans living in New England to exercise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s U.S. citizens. By participating in local, state, and national politics Korean-Americans are guaranteed a voice in the debate about the issues of the day.

As a member of the Hous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I had the opportunity to visit both North and South Korea and experience their culture first hand. I would like to commend the League for its efforts to preserve the unique traditions of that region while advocating the active participation of Korean-Americans in our democracy.

Again, congratulations on your 10th publication. I wish you continued success in the future.

Sincerely,



Charles F. Bass
Member of Congress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ONE GATEWAY CENTER, NEWTON, MA 02458

TEL: (617)641-2830 • FAX: (617)641-2831

December 21, 2000

Dear Friends:

I am pleased to celebrate with you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This journal serves a very important function throughout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to see it thrive is a source of pride for all who participate. It is through the involvement in such groups that the voice of Korean-Americans is heard and acknowledged within all areas of the United States policy. And it is through access to information and to areas of concern that we as a community can make claims and help create solutions that will benefit us all.

Organizations such as the KACL-NE also serve to gather those second generation Americans, and to allow them access to others of Korean backgrounds as well as allowing them to make a direct impact on public policies that effect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This is done through a wonderful program that helps young Korean-Americans find internships within the United States public administration. It is with great hope that all who wish to serve and participate in this community recognize the tremendous resources the KACL-NE offers to them.

I hope that there will be many more years of recognition and celebration of the important functions this journal and the League serve. Again, congratulations and a continued wish for success in the future.



Sincerely,

Jason Park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August 1990, the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has worked to raise the political voice and highlight the legal rights of all Korean Americans. These aims c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increased involvement of Korean Americans in the political process.

Looking back, I recall how at our inaugural meeting, the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KACL) set forth the following principal as the foundation to the organization:

"To achieve happiness and prosperity as Americans, we and our future generations are obliged to fulfill ou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 citizens in this country. At the same time we must ensure that we enjoy equal right and do not suffer from discrimination. For this purpose, we come together in unity before the American government and society at large. And in remembering our heritage, we intend to assist our fellow Korean-Americans as well as contribute to the enhanced profile and prominence of our homeland."

For the past ten years, KACL has undertaken many goals:

- * Deepening relationships with other ethnic minority and civil rights groups
- * Working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Korean-American Citizens organization to encourage greater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voting and registration drives
- * Supporting and endorsing candidates attune to Korean-American issues
- * Engaging in legal lobbying to raise the debate and attention on welfare rights, fair immigration practices, and matters of ethnic equality and civil rights
- * Developing future political leaders from the next generation by offering scholarships and identifying opportunities for political internsh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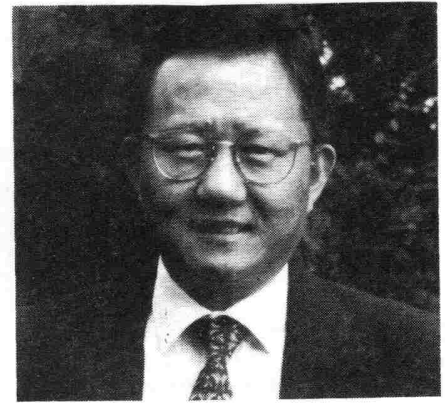
During this past year, Dr. Hong Kyun Choi (who has served as the fourth President, Vice President, and Secretary for the KACL) represented this organization

at the annual Asian American Unity Dinner, an event that he also co-chaired. On behalf of the KACL, Dr. Choi received \$2,500 from the AAUD to fund the publication of a book, "Introducing Law and Civil Rights," for Korean-Americans. Dr. Choi has also served as an Asian-American Commissioner for the State of Massachusetts, and as part of KACL, he has worked hard to improve relations with other ethnic minority groups, enhance the political standing of Korean-Americans in New England, and raise funds for sponsoring political internships. We are truly grateful for his tremendous efforts.

Today, we stand at a significant juncture as we enter the new millennium and the next decade for the KACL. We have elected a new President, Mr. Song-Kun Kim who, in his early forties, brings both experience and energetic vigor to this position. Based on the past ten years, we look forward to the next ten to include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the KACL by the second generation.

I would like to thank members of the KACL board for their dedication and efforts, particularly to show appreciation to the Chairman and Vice Chairman, Mr. David Park and Mr. Kisuk Kim. Regrettably, they will no longer continue with their two-year terms due to personal reasons. For the remaining one year, the board has requested that Dr. Moon So Kim and I serve as acting co-chairmen. Dr. Kim was the Chairman for seven years and I was served as KACL's third President. We will work towards supporting Mr. Song-Kun Kim as President. In particular, we aim to improve the structure of the nine board subcommittees and formally delegate organizational responsibilities to these various groups.

Lastly, Dr. Kim and I hope to encourage all of you to become more engaged in the political process and become aware of both your civic duties and rights. We hope that you join the KACL in accomplishing these goals and look for-



ward to the new decade of possibilities.

KACL

지난 1990년 8월, 한인동포들의 법적 지위 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우리 한인 동포들이 미국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소명을 달성할 수 없음을 깨닫고 발족한 시민협회가 벌써 10년이라는 나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창립총회 발기문에서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미국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차별없는 정당한 처우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결된 힘으로 미국정부와 사회에 우리의 입장과 주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받아들일도록 촉구하며, 핏줄을 같이한 동포를 돕고, 또한 모국인 한국이 발전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도록 기여한다"라고 한 시민협회의 정신을 상기하여 봅니다.

시민협회는 지난 10년동안 나름대로 몸부림 치면서 여타 소수민족 인권단체와의 유대 강화 및 연대, 한인동포 전국조직의 태동 적극 동참, 시민권 취득 독려 및 워크샵의 개최, 투표 참여 및 정치인식 제고 캠페인, 한인에게 우호

김양길 공동이사장은 현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위원이고, Genetics Institute에서 스태프 과학자로 일하고 있다.

Yangkil Kim, co-chairman of the board, is a member of The Advisory Council of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and works for the Genetics Institute as a staff scientist.

각 위원회별 업무 내역

적인 정치인의 지원 및 한인의 정계진출 독려와 추천, 법률 로비활동, 항의 운동, 웰페어 복원 및 이민법 반대 캠페인, 특히 젊은 1.5세와 2세를 각 정계와 관계기관에 대폭 추천 및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많은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전임 제4대 최홍균 회장님께서서는 총무, 부회장, 회장직을 역임하여 오면서 시민협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최회장은 시민협회를 대표하여 AAUD(Asian American Unity Dinner)에서 공동대표로 봉사하시고, AAUD로부터 \$2,500의 기금을 받아 "법과 민권 소개" 책자를 발간하기도 하였고, 또 매사추세츠 주지사 산하의 자문기관인 Asian American Commission의 위원으로 선출되어 봉사하며, 여타 소수민족 단체들과 유대강화등 한인의 위상을 높였고, 특별히 젊은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정치인턴으로 1.5세 및 2세들을 정계와 관계기관에 추천하고,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금활동을 펼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를 향하는 첫해이자 또 시민협회가 20년을 향해서 새로운 장을 여는 중대한 시점에 시민협회는 활동력이 왕성하고 경험이 풍부한 젊은 40대 초반인 김성군씨를 심의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지난 10년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10년을 향해서 더 많은 1.5세와 2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욱 발전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시민협회가 되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그동안 부이사장, 이사장으로 수고하며 많은 활동을 하시던 박대위 이사장님이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이사직을 맡을 수 없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김기석 부이사장님도 다른 사회단체 봉사직 때문에 이사장으로 승계가 어렵게되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신임회장단의 활동에 차질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초대부터 7년 동안 이사장으로 봉사하셨던 노련한 김문소 전이사장님과 더불어 제3대 회장이었던 본인을 공동이사장 자격으로 잔여 임기 1년동안 함께 봉사하여 줄 것을 이사회가 요청하여 왔기에 김문소 전이사장님과 함께 수락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임 박대위 이사장님, 그리고 김기석 부이사장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 이사장이 부여받은 특별임무는 이사회에 젊고 활동력이 우수한 1.5세 및 2세들을 대거 참여시키고, 기존 분과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하여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시민협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들이 분과위원회 중

(24페이지로 계속)

1. 유권자 등록 위원회 및 회원 관리 위원회

회원이나 기타 시민권자들에게 개별적 또는 모임을 통하여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권유하고 도와주며, 각 지역별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현황, 회원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MA 주는 몇 개의 지역을 두고 각 지역대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기타 주는 지역간사들을 둘 수 있다. 각 지역 대표들과 지역간사들은 담당지역내에 소속하는 회원들과 기타 시민권자들에게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권유하는 책임과 회원관리 및 회원확보의 책임을 맡으며 위원장에게 수시로 결과를 보고한다. 각 지역 town committee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committee 후보자를 물색하여 추천하고 또 후보자를 도운다.

2. 기금 모금 위원회

회비 징수를 위한 활동과 협회 사업활동을 위한 기금 모금을 주관하며 정치활동을 위한 특별기금 모금을 주관한다. 청년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치인턴 장학금 모금활동을 적극 도운다.

3. 정치활동 위원회

후보자들과 정당정책을 분석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특정 후보자를 위한 기금 모금의 필요성을 조사하여 보고하며, 후보자들과 긴밀한 연락을 가질 수 있도록 연락책임자(correspondence/liason)를 추천하는 일과 관리하는 일을 관장한다. 정치인들과 유대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한다.

4. 청년 위원회

1.5세 및 2세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그들의 협회 참여를 권유하며 2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 추진한다. 1세와 2세간의 원활한 대화와 관계를 갖게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하고 추진한다. 청년부를 산하에 두고 청년부는 협회의 정신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지역내의 각대학교 학생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협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고 또 그들의 활동을 도와준다. 정치인턴 후원과 관련된 일들을 주관하며 (장학금 모금을 위한 활동 포함) 수혜자들을 관리하고 수혜자들 모임을 도와준다.

5. 출판 위원회

정기 간행물(협회지 등)과 비정기 간행물의 출판을 관리한다. 이를 위해 본 위원회 내에 편집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

6. 홍보 위원회

한인들을 대상으로 협회의 취지와 활동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알리고 협회 가입을 권유하는 일을 하며 회원들과의 통신 연락을 담당한다. 다른 지역의 한인단체와 타민족 단체들에게 협회의 취지와 활동을 적절하게 알리는 일을 한다.

7. 대외 협력 위원회

한인들과 미국사회의 인종 그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협회와 미국사회의 인종 그룹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인종 그룹들과 활발히 접촉하며 그들이 주관하는 어떤 활동에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보고한다. 다른 인종 그룹들과 보다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룹담당 특별위원을 위촉하여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 인준을 받아야한다.

8. 인권옹호 위원회

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나 사회적 조치를 취할 것을 도모한다. Asian Task Force Against Domestic Violence, Massachusetts Commission Against Discrimination (MCAD), U.S. Civil Rights Commission,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등 필요한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수시로 관계책임자들을 초빙하여 대화를 갖도록 추진한다. 다른 인종 그룹들과도 횡적 관계를 유지하여 필요시에 그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9. 시민권 취득 안내 위원회

시민권 취득 홍보를 담당하고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안내한다. Office for Refugees and Immigrants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시민권 취득 워크샵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시민권 취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도모한다.

2 000년도의 주요 활동 보고는 다음과 같다.

1. 제9차 정기총회

제9차 정기총회는 1999년 10월 23일(토), 렉싱턴 소재 성요한감리교회에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개최되었다.

박대위 신임 이사장의 인사가 있었고, 이상우, 송기백, 강경희, 이민학씨 등의 이사 선출이 있었다. 2부의 강연회에서는 UMass Boston 정치학과 교수인 폴 와다나베 박사의 「아시아인 아메리칸의 변화에 대한 도전」이라는 연제의 강연이 있었으며, 친교와 다과가 10시까지 있었다.

2. 시민협회 회지 제9호 발간

총회를 기해 1999년 10월 3,000부가 발간되었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인 가정을 비롯해 각종 단체 및 기관, 상원 하원의원 등의 정치인들에게 배부되었다.

누차에 걸친 편집 회의가 있었으며, 원고청탁, 광고청탁 및 광고비 청구 작업 등이 있었고, 이에는 편집위원들의 많은 노고와 특히 광고 모집을 위한 많은 분의 수고가 있었다.

이의인 편집위원장께서 제작을 맡아 많은 노고를 기울였으며, 역시 이의인 위원장의 수고로 제10호 회지가 총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해 총회 이후에 발간될 예정이다.

3. 이사회 및 임원회

2000년 2월 12일(토), 제36차 이사회가 Far

East Restaurant에서 개최되어, 총회 결과 평가, 정치 인턴 모금파티 준비, 501C(3) 추진, 선거 대비, 회지 배부 등이 논의되었다.

6월 17일(토)에는 제37차 이사회가 김성군 부회장실에서 개최되어, 신임회장 선출, 이사장 보선, 선거 대비 및 총회 준비 등이 논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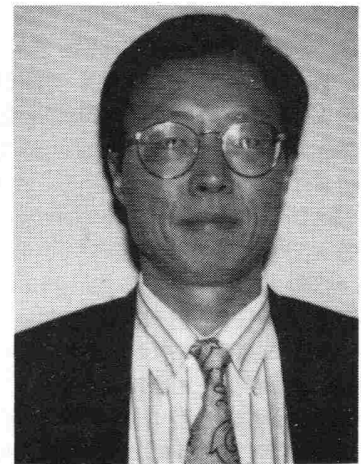
8월 27일(일)에는 샬로트 식당에서 제38차 이사회가 개최되어 신임회장 선출, 이사장 보선, 선거 대비, 정기총회 준비, 이사 영입(김성빈, 김영곤씨)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1월 13일에는 비영리단체 501C(3)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1월 14일에는 이의 검토를 위한 고문단 회의(임원단 회의), 8월과 9월에는 회지 10호의 편집회의 등이 개최되었다.

4. 정치 인턴 후원 기금 모금 만찬

2000년 4월 1일(토) 오후 6시에, 발링톤 소재 매리오프 호텔에서,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턴 후원 모금 만찬이 성대히 개최되었다. 제1부에서는 채널 25의 뉴스 앵커인 Debbie Kim양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전년도 수혜자인 이대성, 박사라의 강연과 인턴 6명에게 각각 1,000달러, 총 6,000달러의 장학금 수여가 있었다.

2부에서는 League of Korean Americans의 Miller Kim 회장의 강연이 있었고, 3부에서는 New England Conservatory 학생들의 독주, 산조 및 독창 등이 있었다. 후원금을 내주신 분들



과 단체, 참석하신 여러분들, 추진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 시민권 취득 워크샵 개최

1999년 10월 23일(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또한 2000년 6월 17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어 2000년 10월 28일(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총 3회에 걸쳐 모두 렉싱턴 소재 성요한감리교회 친교실에서 시민권 취득 무료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무료로 시민권 신청의 모든 과정을 도와주는 이 워크샵에서는 협회 임원인 한석훈, 김성군 변호사들을 위시해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수고해 주셨다.

6. 선거자료 제작



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함께



감사장을 받는 백린 전 고문

이의인 편집위원장의 수고로 NAKASEC의 선거 자료 등을 총집결한 선거 안내 자료인 「투표 2000」를 1,000부 발간하여 배부하고 있다.

7. 캠페인 및 기타 활동

Asian American Unity Dinner (AAUD)에 다수의 협회 임원이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양길 고문께서 영예의 "올해의 지역사회 봉사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APAAC에 김성군 부회장이 참석하는 등, 여러 외부 단체와의 유대가 있었고, MIRA와의 협조와 연락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LOCA의 전국대회에 최홍균 회장이 참석하여 존국 단체 결성 등을 논의했으며, LOCA의 임원 7명이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에서 와서, 정치인턴 후원 모금 파티에 참석해 주기도 했다.

1월 28일에는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박경민 고문의 은퇴 파티에 많은 분이 참석하기도 했는데, 박경민 고문께서는 5월에 한인회, 노인회 등과 협찬으로 센서스 추진 위원장으로 센서스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셨다.

한편 한인회보 및 보스톤투데이, 한국일보 등의 신문 지상을 통해 누차에 걸쳐 시민협회의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주요 기사로는 후원 모금 파티, 워크샵, 이사회 결과, AAUD 파티, 총회 등을 들 수 있고, 각종 행사의 광고가 누차 게재되었다. **시형**

Summary

Nineth Annual Meeting

The Nineth Annual Meeting was held on October 23, 1999 at the St. John's Korean Methodist Church in Lexington, MA. There was an announcement of a new board chairman (Mr. David Park) and new board members (Mr. Sang Woo Lee, Mr. Kee Back Song, Mr. Kyung Hee Kang, and Mr. Min Hack Lee). Dr. Paul Watanabe,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the U. Mass Boston, gave the keynote speech, entitled "The challenge of change for Asian-Americans."

김명기 사무총장은 부산대학교 공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주) 해외사업본부, Multi-Core, Inc.의 Document Control Center Director를 거쳐 Quality Engineering Consultant, H&E Septic Design Co.와 Veggies'n More를 운영했으며, 현재 무역업체인 H&E Korea Co.를 경영하고 있다. 새싹한국학교 교장, 재미 한인학교 협의회 임원, 중앙일보 본사 모니터를 거쳤으며, 현재 한국광고연구원의 미주통신원, 제일기획 등 광고업계의 프리랜서로서 Sub-surface Disposal Systems Designer 및 Installer 등 다수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



정치인턴 장학금 수상자들



최시내양의 부채춤



기조연설을 듣고있는 참석자들

Publication of the 9th Journal

3,000 copies of the 9th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were published and distributed to Korean-Americans residing in New England as well as many politicians and organizations.

Board Meetings, Other Meetings

There were three Board Meetings, and many Executive Committee Meetings to discuss the issues of the League. There were also one special Meeting for the study of the 501C(3) application and two Editorial Meetings to prepare for the 10th Annual Journal.

Summer Political Intern Support Program

A fundraising party was held on April 1, 2000 at the Burlington Marriott Hotel to raise funds for summer political interns. About 250 people attended the party. Stipends of \$1000 each (total of \$6000) were paid to the following six students: Arum Pak (Bowdoin College, MA Governor's Office), Song Yee Han (Brandeis University, MA Representative's Office), James Sunghoon Uhm (Tufts University, MA General Attorney's Office), David Solomon Kim (Tufts University, US Senator Edward Kennedy's Office), Benjamin Smith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MA General Attorney's Office), and Eun Young Choi (Harvard University, US Senator John Kerry's Office). The MC of the event was Ms. Debbie Kim, an anchorwoman with Ch. 25 News. Guest speakers were Mr. David Lee and Sarah Park, two last years recipients of KACL's summer political intern scholarship, and Ms. Miller Kim, the president of the League of Korean Americans. After the dinner, there was an entertainment program featuring Korean drum dance performed by Sinae Cheh, and several solos and duets performed by the students from New England Conservatory.

Citizenship Workshop

KACL hosted three citizenship workshops (10/23/99, 6/17/00 and 10/28/00) in which people received assistance with their citizenship applications, including N-400 preparation, photograph, an envelope with the INS address, and legal counsel from attorneys.


Election Pamphlet

1,000 copies of the election pamphlet were published and distributed to the Korean voters. This pamphlet contains the general informations about the US governmental, jury and congressional systems, election processes and especially the political issues related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November this year. An election guide published by NAKASEC was the source of the information.

Other Activities

Advisor Yang kil Kim received an award for his outstanding service to the community at the Asian-American Unity Dinner. He was newly elected as one of the board co-chairmen and served the KACL as the president before Dr. Hong Kyun Choi.

President Hong Kyun Choi attended the national conference of the League of Korean Americans (LOKA) and discussed about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ly collaborated organization. Several LOKA members were also attended the second fundraising party for the Political Interns.

Advisor Kyung Min Park retired on January 28th of this year, and many members attended the retirement party held at Crown Plaza Hotel in Framingham. Also he served as a Census committee head to inform and encourage Korea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2000 Census with many helps by the members of the Korean Elderly Association of Boston and the Korean Society of New England. 

(영어 번역: 이의인)

미국 시민권 취득 안내

개정된 이민법과 웰페어법으로 인해 비시민권자는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루 속히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 시민권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다.

- (1)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 (2) 시민권 인터뷰 당시,

1.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초과되어야 함.
2. 미국 시민과 결혼하여 동거하는 경우는 3년이 초과되어야 함.
3. 3년간 군대 복무했을 경우.

* 서류 전형이 대개 6개월이 걸리므로 시민권 서류 신청은 이보다 6개월 전에 할 수 있다.

- (3) 거주 조건

1. 최소한 30개월 이상 미국에서 거주.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18개월 이상.
2. 신청 이민국 관할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 거주.
3. 1년 이상 계속 해외 거주시에는 다시 돌아온 후부터 5년 이상.
4. 불법 체류자로 사면 또는 다른 비자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영주권을 받은 날짜로부터 거주일을 계산.

(4) 18세 미만은 시민권자 부모가 대신 신청하거나, 부모가 시민권자가 될 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5) 경범죄 전과자인 경우 두 번까지 이민국 재량으로 시민권의 취득이 가능하다.



We have to work off our bitterness associated with Arirang
- What is our Motherland to the Koreans abroad?

Kyung Min Park, M.D., Advisor

새천년 첫해에 들어서 근간 우리 조국인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랍고도 엄청난 극적인 상황 변화의 소식들은 고국의 남북한 7천만 동포들에게 뜨거운 감격과 기쁨을 주었고 눈물을 흘리게 하였으며, 또 이것을 해외에서 TV나 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전해 듣고 본 6백만 한인 동포들도 똑같은 감회를 느꼈을 것이다.

나는 지난 6월 13일 밤 인터넷 화면을 통하여 김대중대통령의 역사적인 북한 방문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평양시민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며 그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반가이 인사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그리고 김대통령 일행을 환영하는 공연장에서 우리 민족의 한이 담겨있는 '아리랑'이 연주되는 장면을 보았을 때, 또 다음날 밤 계속해서 공식 환영 만찬장을 메운 남북의 참석 인사들이 손에 손을 잡고 우리 민족의 영원인 통일을 갈망하는 노래인 '우리의 소원'을 함께 부르며 '6.15 남북 공동선언'을 축하하는 장면을 바라보았을 때, 뜨거운 그 무엇이 가슴으로부터 치밀어 올라오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가슴벅찬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8.15 광복절 55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 비록 제한된 숫자에 불과했지만 각 백명씩의 남북 이산가족들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상봉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분단 55년과 6.25전쟁 이후 50년동안 이념과 세월이 갈라놓았던 핏줄의 정을 확인하며 가슴에 맺힌 한과 살움을 토해낸 통곡과 회한의 장면이었으며 이를 지켜보는 나도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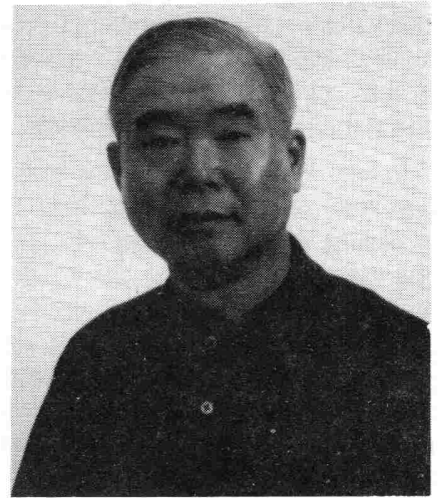
특히 50년만에 평양에서 어머니를 만난 나의 의과대학 후배인 장가용박사(서울의대 은사 이신 고 장기려교수님의 2남) 모자의 상봉모습이 인터넷으로 화면에 비쳐질 때, 몇 년전 86세를 일기로 눈을 감으신 은사님의 모습이 떠올라 더욱 가슴이 아픔을 금할 길 없었다. 은사님은 6.25 한국 전쟁중 둘째 아들만을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 나오신 후 북녘땅에 두고온 아내와 다섯자식을 못내 그리워하며 45년간을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사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직 영세민들을 위한 무료진료에 헌신하시다가 가족과의 만남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신 채 돌아가신 것이다.

이러한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눈물은 상봉 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7천만 온 민족의 아픔이요 눈물이었으며 우리 해외동포들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 특히 8.15광복 이후의 분단과 6.25전쟁의 민족상잔의 희생자로서 정든 고향땅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남녘땅으로 내려와야했고 또 다시 해외로 이민을 온 후 두 번씩이나 망향의 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이북 출신의 실향민들에게 이번의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 소식은 진한 충격과 공감을 주고도 남는 일이었다. 조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광복의 기쁨을 맛볼 겨를도 없이 강대국에 의한 남북의 분단과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북의 형제가 총칼을 맞대고 싸워야했던 6.25전쟁의 민족적 비극으로 인해 야기된 이산가족들의 갖가지 사연과 아픈 상처는 필설로 다할 수 없으며, 북에서 내려온 이산가족 방문자중 한 사람이 "위대한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도 이 비극을 다 글로 쓸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듯이 이번의 감격적인 만남은 그 어떤 체제나 이념도 인류의 정, 혈육의 정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북한 방문단원의 한 사람인 계관시인 오영제씨는 "꿈만 같다. 어느 방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꿈을 꾸는 것 같다. 이 꿈이 꿈이어서 깬다면 나는 자살하고 말겠다. 이것이 현실이라면 내 인생의 최상이 될 것이다"라고 했으며 서울에서 형제 자매를 반세기만에 만난 감격의 기쁨에서 즉흥으로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라는 시를 다음과 같이 썼다.

만나니 눈물입니다.
다섯 번이나 강산을 갈아엎은 50년
기나긴 세월이 나에게 묻습니다.
너에게도 정녕 혈육이 있었던가.

아! 혈육입니다.
다같이 한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난 혈육입니다.
한 지붕 아래 한 뜨락 안에서
다같이 아버지 어머니의 애무를
받으며 자라난 혈육입니다.
뒷동산 동백나무 위에 올라
밀짚머로 꽃속의 꿀을 함께 빨아 먹던
추억속에 떠오르는
어린 날의 그 열굴들
눈로는 저를 밤 한 이불밑에서
서로 썩안고
푸른 은하수를 부르던 혈육입니다.



정어랑 그렇게도 모질고 짓궂어
헤어져 기나긴 세월
때없이 맺히는 눈물속에
조용히 불러보는 그 이름들
승재형, 형제 동생
진이 흥이 필수야 영숙야
이렇게 만났으니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한 시간도 못되게
그렇게도 쉽게 온 길을
어찌하여 50년 동안이나
찾으며 부르며
가슴을 말리우며 헤매었습니까
.....

그러나 그도 그렇게 그리웠던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통곡하였다. 다만 10년전 한겨레신문 보도로 혈육을 확인해서 쓴 『기어이 안기고 싶어라』라는 시에서는 "아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 죽어서 가는 다른 세상이 있고 / 어머니가 그 세상에서 다시 살게 되신다면 / 내 어머니 간 길을 찾아가리다 / ... / 그 세상엔 분계선이 없을 것 아닙니까 / 콩크리트 장벽도 없을 것 아닙니까"라고 울부짖었으며 또한 40년만에 남녘의 어머니 생존소식을 듣고 『아 나의 어머니!』라는 제목의 연작시에서는 "늙지 마시라 / 더 늙지마시라 어머니여 / 세월아 가지 말라 /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라도 / 너 기어이 가이만 한다면 / 어머니 앞으로 흐르는 세월을 나에게 다오 / 내 어머니 뒀까지 한 해에 두 살씩 먹으리"라고 간절하고 애뜻한 어머니에 대한 사모의 마음을 시로 표현하였다.

또한 고향을 떠나 남한에서 살고 있는 실랑민 김규동 시인은 북에 있는 어머니를 그리며 “꿈에 네가 왔더라 / 스프세살 때 훌쩍 떠난 네가 / 마흔일곱살 나그네되어 네가 왔더라 / 너는 울기만 하더라 / 내 무릎에 머리를 묻고 / 한바디 말도 없이 어린애처럼 / 그저 울기만 하더라 / 네가 어쩌면 그렇게 아위었느냐 / 다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 눈물어린 두 눈에 그렇게 말하더라”라고 『북에서 온 어머니 편지』라는 시에서 그의 한을 토해내었다.

50년이란 긴 세월과 잔인한 역사도 인간의 근본 관계인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꿀 수 없었으며 이것은 정녕 민족의 비극이며 한일전대 같은 말, 같은 옷, 같은 음식, 같은 생각, 같은 사람인 우리 동족이 어찌하여 남쪽의 조국과 북쪽의 조국으로 갈라져 살아야 했는가? 언제부터 우리 민족은 이데올로기라는 괴물에 의해 서로를 불신하며 대립하고,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 친척, 또 친구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는가?

이제 늦게나마 남북이 민족화해, 평화공존, 통일이란 거보를 단기 위한 첫 걸음으로 이산가족의 상봉을 성사시킨 것은 정말로 다행한 일이며 남북 정상에게 박수를 보낸다. 또한 이를 계기로 남북간의 교류가 ‘붓물’처럼 터지면서 8·15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지난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북측 조선국립교향악단이 남북 분단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김대중대통령 내외가 관람하는 가운데 KBS교향악단과 한 무대에서 「아리랑」을 합주하여 겨레의 화합을 다지는 앙상블을 이루어낸 것은 정말로 한으로 맺혀지고 응얼진 우리 한인들의 가슴을 민족 고유의 음률로 풀어준 쾌거가 아닐 수 없었으며 그 의의가 실로 크다고 하겠다.

핀란드 출신의 작곡가인 Jean Sibelius가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던 핀란드의 압정에 반항하는 의지와 투쟁을 나타낸 그의 교향곡 제1번 「나의 조국, 핀란드」에서 민족의 비애를 이야기한 것과 같이 남북이 합동하여 연주한 이 「아리랑」은 경기 아리랑(일명 서울 아리랑)을 편곡한 것으로 작사 작곡자는 모두 불명이나 우리 한국 근대사의 영욕과 고난과 함께 구성되고 눈물겹게 서러움이 사무치며 구비구비 서민의 삶과 한이 절절히 배어있는 민요풍 타령으로 널리 우리 국민들이 불러왔던 민족의 노래임이 틀림없다.

남북한이 각자의 국가를 따로 부르면서도 이데올로기와 체제를 넘어 7천만의 한인들이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않고 아니 거부할 수 없는 노래가라틴 이 「아리랑」은 전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재외동포들에게는 조국의 상징

으로 무의식속에 존재하는 정신적 지주가 아닐 수 없다. 아리랑 연주의 소식을 접한 나는 머리속에 떠오르는 만감의 교차를 금할 수 없었으며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라는 이 구슬픈 노래가락은 과연 우리의 조국에게 어떤 존재이며, 아리랑의 뜻은 무엇이며 또 언제부터 우리 한국인과 인연을 맺어 왔는지 또 특히 재외동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보려 한다.

우선 「아리랑」하면 나는 오래 서울에서 살았으므로 곧 아리랑고개(현재의 미아리고개)를 연상하며, 또한 해방후 종로 2가에 있던 우미관에서 상영하였던 무성영화인 「아리랑」을 기억한다. 이 영화에서는 미처버린 주인공 영진역으로 나운규가 연기하는 장면을 번사가 구성진 목소리로 대변하면서 관객의 눈물을 자아냈던 것이 희미하게 기억이 난다.

당시에 나는 어렸기 때문에 아리랑에 얽힌 노래나 영화가 왜 우리 한국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는지를 잘 몰랐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 역사를 배우는 과정에서 그 의문은 조금씩 풀리게 되었다. 영화 「아리랑」은 1919년 3·1운동 이후 암울한 식민지 상황에서 한창 민족주의 사상이 싹트고 있을 때 나운규가 연출, 주연한 것으로 당시 농촌의 지주, 마름, 소작인, 일제의 하수인, 지식인 그리고 가난과 성적 희롱에 희생당하는 여성들을 배경으로 당시의 현실을 주제로 하였다. 미처버릴 정도로 숨막히고 고통스러웠던 그 때의 상황을 전문학교를 중단하고 고향 농촌에 돌아와 철학을 공부하다가 미처버린 주인공 영진을 통하여 표현함으로써 이 영화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순회 상영에서 2년 6개월간 수많은 관객을 동원하였고, 1926년 상반기에만 110만명의 관객이 이 영화를 찾은 것은 당시 우리 한국의 현실과 대중의 정서를 이 영화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제 식민지하의 한국 청년의 고민을 간접적으로나마 나타낸 이 영화는 마지막 대목에서 모든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며 영화의 주제곡인 아리랑을 같이 불렀다고 하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장 흔히 부르는 「아리랑」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남은
심리도 못가서 발명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청천 하늘엔 별들도 많고
우리네 살림살이 말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풍년이 온다네 풍년이 와오
이 강산 삼천리 풍년이 와오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세상 만사를 헤아리니
물위에 등등 뜬 거품이랴

이 노래가사는 경기 아리랑(일명 서울 아리랑)을 모태로 하여 신민요조의 곡조를 빌려 만든 노래라고 한다. 가사 내용은 나운규의 창작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아리랑을 들으면서 느끼는 한의 감정은 아마 이 시기에 시작되었을 것이며, 지방의 특색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의 민요에서 서민의 노래로 발전되고 불리어진 아리랑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한민족의 노래로서 아니 한민족의 민중 애국가로서 다시 태어나 확고히 그 자리를 잡고 현재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이 살아온 시대에 따라 서민들에 의해 당대의 삶을 한풀이 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어느 격식에 얽매이지않고 끊임없이 교체되고 불리어진 아리랑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하듯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한민족과 함께 같이 웃고 울면서 불리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아리랑의 노래는 특정한 형식을 따른 전통 음악인 아악과는 달리 봉건시대에 억눌려 살았던 하층계급들인 농민, 상인들과 같은 서민들의 생활을 담고 그들의 감정을 흐드는 일정한 가락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형식으로 서민들과 함께 꾸준히 성장하였다. 매천야록(梅泉野錄)에 의하면 고종도 「아리랑타령」을 즐겼다고 하며 1986년 미국인 선교사 험버트는 아리랑을 서양식 기보법으로 이미 옮겨놓은 바 있다(Arirang, The Korean Repository, Vol. III, No. 2). 이런 기록으로 보아 당시 아리랑 타령이 한양에서 가장 인기있던 민요가 아니었던가 추측된다.

「아리랑」이란 단어의 기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가지각색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문헌에 의하면 멀리는 한사군의 하니인 낙랑(樂浪), 신라국의 시조였던 박혁거세의 부인인 알영(閼英), 고구려 광개토태왕 비문에 새겨진 아리수(阿利水), 또는 조선시대 명종때의 아랑(阿娘) 등이 제시되었다. 더욱 근거있는 설은 조선조 후기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전국팔도에서 강제로 동원된 부역군들이 민생을 피폐케 하였던 경복궁 중건을 원망하며 부른 경복궁타령중 「단원아이롱 불문원납성」(但願我耳聾 不聞願納聲) (내 귀가 멀어서 원납전 내리는 소리

듣기를 원치 않는다: 원납전은 경복궁 중건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백성으로부터 걷어드린 일종의 세금)의 원성적인 가락이 유행하면서 아이룡이 아리랑으로 변화했다는 설과 경복궁 중건때 끌려온 부역군들이 사랑하는 처자식들과 떨어져 있음을 한탄하면서 「나는 입과 이 별하네,」라는 아리랑(我離娘)이란 말에서 따왔다는 설이 있다.

이외에도 아리랑은 별 의미가 없는 타령의 후렴에 불과하다는 설과 어느 고개의 지명인 아리령(我離嶺)에서 변화되었다는 설도 있으나 가장 유력한 설은 경복궁 중건 관련설로서 경복궁타령과 아리랑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아리랑을 후렴구로 갖는 노래는 각 지역의 민요들과 결합하여 지금의 아리랑의 모태가 되었다고 한다. 19세기말 이후 팔도 전국에 걸쳐 불리어진 아리랑은 확인된 것만도 50여종으로 2천수가 넘으며 거의 모든 지역마다 독특한 내용으로 그에 얽힌 전설과 일화가 담겨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아리랑은 위에 언급한 경기아리랑(일명 서울아리랑 또는 본조아리랑)과 영화 서편제에서 불리어져 유명해진 진도아리랑, 원형이 가장 잘 담겨진 정선아리랑(무형문화재로 지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날쫓 보소」의 밀양아리랑 등 3대 아리랑이 있고 기타 북쪽 함경도 지방에 근대회의 틈바구니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어랑타령으로 「신고산타령」이 있다.

여 하간 이러한 아리랑을 들으면서 느끼는 강한 민족적인 감정은 국내에 살고있는 동포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와 살고있는 우리들 모두 다들 바가 없다. 구한말 조국이 힘이 없고 위정자들이 못나서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넘겨주고 일제의 식민지로 36년을 사는 동안 우리 민족은 일제에 의해 수많은 고난을 겪었다. 민족의 재산을 빼앗기고 정신을 도둑질당하였다. 그러나 그 일제도 우리 민족의 노래인 이 「아리랑」만은 빼앗아갈 수 없었다.

1919년 이름없는 백성들이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강력히 저항하며 조국의 독립을 울부짖었던 3·1독립운동의 만세속에서 울려나왔던 아리랑의 노래, 일제의 핍박과 가난을 벗어나려고 북간도, 시베리아, 미국, 하와이, 멕시코로 떠났던 이민자들에 묻혀 따라가 불려진 아리랑의 노래, 일제말 강제로 군인, 군속, 징용, 정신대에 끌려가 일본, 만주, 중국, 남양 땅에서 고향을 그리며 그들이 몰래 불렀던 아리랑의 노래, 민족을 격정하며 잃었던 조국을 되찾으려고 만주, 중국, 소련, 미국 등 해외에서 독립군으로, 또는 독립투사로 일제와 싸우

면서 선구자들이 목메어 불렀던 아리랑의 노래, 운동주 시인과 같은 수많은 애국자들이 일제의 감옥에서 옥사하며 불렀던 아리랑의 노래. 그러나 그때 「아리랑」을 부르며 한의 삶을 살았던 그들 -- 격동의 역사에 휩쓸려 빠이픈 상처와 굴욕의 민족적 수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증인들 -- 바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제 거의 세상을 떠났고 다만 우리의 기억에만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다.

일제로부터 광복 55주년을 맞이하는 2천년의 오늘에 있어 그때 그 시절 아리랑을 부르며 한을 달랬던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과연 이루어졌는가를 이번 역사적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시기에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고국을 떠나 미국땅에 살고있는 재외 동포의 한사람으로서 특별히 8·15 남북이산가족상봉의 감격과 흥분속에서 자칫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서 잊혀져 갈 수 있는 초기 이민 1세, 2세, 3세 및 그 후예들의 망향과 이산의 한을 조명하여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쓰는 바이다.

필자와 같이 8·15광복과 6·25전쟁 이후 후기 이민자로서 현재 고국을 떠나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많은 한인 재외동포들은 고향이 그리울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고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면 돌아가고 싶을 때에는 조국을 잃었고, 되찾은 조국은 두 조각이 되어 갈 수 없는 형편이기에 아직도 사할린, 일본, 러시아의 연해주, 중국, 중앙아시아의 카자크스탄, 우즈베크스탄, 멕시코, 큐바, 심지어 미국땅에도 이 아리랑의 노래를 잊지않고 부르며 망향과 이산의 한을 달래며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실향 재외동포들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도리켜 보건대 일제 말기 강제 징용으로 부모형제, 처자식과 생이별하고 짐짝처럼 끌려 현해탄을 건너간 사람들은 일본 본토, 북해도, 사할린 등지의 캄캄한 탄광막장에서 우마처럼 혹사당하며 동물보다 못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고, 또 패전 이후 일제에 의해 소련에 내팽개쳐진 4만여명의 사할린 한인 1세대들은 이념의 벽으로 차단당한 채 소련인, 일본인, 한국인도 아닌 무국적 상태에서 때로는 반소 불순분자라는 딱지가 붙어 정치사상범의 혐의등으로 동토의 땅에서 갖은 수모를 겪었으며, 조국땅과 부모 형제 처자들을 몸부림치게 그리워하며 처절한 서러움과 망향의 한을 안고 십중팔구는 고향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이미 세상

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다. 「사할린의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할린 동포들의 한을 모른다.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핍박의 현장에서 반세기를 살아온 동포들의 귀향을 위해 조국의 국민들이여 도와달라」는 어느 사할린 동포의 피맺힌 절규를 어찌 잊으랴. 이제 늙고 병든 1세대들이 죽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 뼈를 묻을 수 있는 영구 귀국의 길이 열려야 할 것이다.

또 한편 일제에게 나라를 잃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이 시작된 원동연해주 땅에 살던 재소 고려인 18만명은 1937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자신의 세간도 변변히 챙기지 못한채 억제할 수 없는 서러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억누르며 목적지도 모르고 정들었던 연해주를 떠나 물도 없고 변소도 제대로 없는 곡간차에 실려 중앙 아시아의 카자크스탄과 우즈베크스탄의 허허벌판에 내팽개쳐졌으나, 그래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오늘날 카자크스탄 수도의 알마이타에 아리랑극장을 세우고, 비록 조국에 돌아가고 싶은 꿈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어머니가 부르던 아리랑을 부르며 조국을 잊지 않으려는 우리 핏줄의 후예들인 「카레이스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1910년 일본에게 합병된 후 45년 제2차대전 이 끝나기 직전까지 취직이나, 유민, 혹은 징용으로 일본에 건너갔으나 해방된 후 남북의 분단으로 그리운 고향을 지적에 두고도 돌아오지 못한 채 질곡의 지난 역사를 되씹으며 망향의 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재일동포 1, 2세대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승정 푸른 술은 늙어 늙어 갔어도 / 한줄기 해란강은 천년두고 흐른다 / 지난 날 강가에서 말달리던 선구자 /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있었나” 우리가 즐겨부르는 한국 가곡 「선구자」가 유래된 옛 민주땅에 이주하여 독립군등으로 일제에 무력으로 항거했던 선열들이 묻혀있고 그 자손들이 오늘날 재중 조선족으로 남아 아버지의 나라에 돌아가 살고 싶어하는 한을 달래며 소수민족으로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기 위하여 102명의 노동이민단이 미국상선 켈리호를 타고 인천항을 떠나 미국땅 하와이에 도착한 이후 1905년까지 약 7천여명으로 늘어난 한인 이민 1세대들과 그 가족들이 겪었던 피눈물나는 사탕수수밭 농장에서의 고초와 망국의 설움, 그리고 망향의 한을 담은 헌정시가 하와이 Hilo의 공동묘지에 있는 한인 이민 조상 기념

비에 새겨져 있는데 그 제목은 "아리랑 아리랑, 알라이 아리랑"이며 그 시는 다음과 같다.

흰 옷입은 조선사람 래평양 건너와서
낮선 하와이에 푸른 꿈을 심었었네
앞서간 선조들의 뜻 백년두고 새로워
사랑수수 그 농사는 채찍질에 해져물고
사진신부 고운 손엔 마디마디 거친 세월
밭고랑 배어있는 땀 목숨거른 이슬아
잃은 나라 되찾으려 한민족 한이 맺혀
피끓는 가슴으로 끼니걸러 독립자금
어둠던 그 하늘아래 불밝히던 사랑아
바람타고 구름타고 고향산천 다녀오고
눈물로 별 헤던 밤 이젠 잊고 쉬소서
목매어 부르던 아리랑 우리 불러 드리리

현재 그들의 많은 후손들이 갈 곳없어 하와이 양노원에서 쓸쓸히 외롭게 생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음은 참으로 마음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끝으로 미국의 작가 헤밍웨이가 살았고 현재는 카스트로가 통치하는 쿠바땅에 살고

시민협회의 고문인 박경민 박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및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병원 수련을 거쳐, 미국 마취과 전문 의로서 Framingham Union Hospital의 마취과장과 보스톤 의과대학의 임상외래교수를 역임한 후 Columbia Metrowest Medical Center에 근무중 은퇴하였다. 뉴잉글랜드 한인회 이사장, 뉴잉글랜드 한인회관 건립위원장, 뉴잉글랜드 한인 의사회장, 평화통일 자문위원, 뉴잉글랜드 한인회 고문, 뉴잉글랜드 지구 서울대학교 동창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한민국 국무총리 표창장을 받은 바 있고, 현재 보스톤 한미노인대학교의 학장으로 수고하고 있다.

Dr. Kyung Min Park, Advisor, graduated from the Medical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received his Ph.D. degree from the same university. He is currently retired after working several years at the Columbia Metrowest Medical Center. He has served as the chairperson of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New England, chair of the committee for the New England Korean Community Center, president of the New England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a member of the Advisory Council on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advisor of New England Korean-American Society, president of the New England Chapter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He received an award from the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He is currently the Dean of the Korean Senior Citizens College of Boston.

있으며 그간 돌아갈 나라를 잊었고 조국조차 한 때 그들을 잊었던 쿠바 이민 90년사의 한이 맺힌 예능쟁농장의 이민 후예들이 '쿠바노코레아'를 기억하기를 원한다. 하와이에서 멕시코로, 또 멕시코에서 90년전 쿠바로 흘러 들어간 우리의 핏줄이 그들 조상의 조국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우리 한국 역사의 희생자로서 우리의 조국이 이제는 저들의 한을 쓰다듬어 주고 아픔을 보살펴 주어야만 하며 망향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임을 떠난다"는 아리랑의 말뜻대로 아리랑의 임은 그들 재외동포들에게는 조국의 대명사로서 일제시 한번 넘어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 아리랑 고개가 아니라 이제 남북화해가 성숙해짐에 따라 민족이 하나되는 날이 열린 이 때에 다시 고개를 넘어 돌아갈 수 있는 내 조국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사실 조국이란 그 품에 있을 때는 잘 모른다. 조국을 떠나서야 비로서 그 귀한 것을 알고 아쉬워하며 그리워지는 것이다. 조국은 마치 어머니의 젖무덤과 같이 따뜻하고 포근하며 어머니의 젖을 빨며 어머니의 땀새를 맡는 아기가 그리는 엄마처럼 돌아가고 싶을 때 돌아가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만 한다.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 알메니아 백성, 우리 한국 백성, 또한 살 땅을 잃었던 팔레스타인 백성들에게는 조국이란 단어는 그 흡인력이 누구보다 강함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남한이 10만km², 남북 합치면 20만km²의 넓이에 지나지않는 아시아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적은 땅에 불과하지만, 단군이후 5천년동안 한민족의 피란만장한 역사가 담겨져있는 우리의 땅으로, 한때는 빼앗기고 잃어버렸으며 현재는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 땅이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내가 태어났고, 나를 낳은 부모가 태어났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태어났으며, 또 나의 조상들이 태어나서 살았던 땅으로 현재와 미래에 우리 세대들이 가꾸고 그들의 후손들이 살면서 지켜나가야 할 우리 조국한국의 땅인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된다. 따라서 어떤 이유였던 간에 광복되기전 조국을 떠나 민족 이산의 아픔을 제일 먼저 겪었던 세대의 재외동포들이 조국으로 돌아가 살다가 자신의 뼈를 묻고 싶어하는 망향의 한은 오늘날의 남북이산가족의 한과 더불어 반드시 그 매듭을 풀어야 할 것이다.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듯이 자식이 부모를 그리는 심정 또한 천륜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뒤늦게나마 김대중 현 정부가 적극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일환으로 재외동포를 한 핏

줄로 인정하고 내국인에 준하는 법적대우를 보장하는 「재외동포법」을 발효시켜 해외의 동포들이 고국에 돌아와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데 내국인과 대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우리 재외동포들이 조국에 돌아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확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정의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할 동포들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민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로서 정말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 법의 부작용으로 적은 평등어리의 조국에 부담을 줄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없지는 않으나 조국광복운동에 기여한 재외동포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신적 보상으로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민족의 사랑을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비록 남한보다 더 적은 땅이지만 구 소련내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적극 권장하였으며, 심지어 에티오피아의 시바여왕때 그 나라로 이주하여 오지에서 자신들의 신앙인 유대교를 보존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오랜 세월 잊혀져 살아왔던 수만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수하여 나라찾은 조국의 땅으로 데려온 일이 있었고, 또한 독일이 제2차대전 패망이후 소련 영토에서 불이익을 당하며 소련의 해체로 갈 곳이 없었던 독일계 소련인들을 독일로 데려간 일은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격언을 실천한 것으로 우리 한국정부가 재외동포 정책을 펴나기는데 있어 본받아야할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은 분명히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동포들과 러시아를 포함한 구 소련 지역의 고려인 및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을 차별하고 있는데 비록 당사국가와 외교적인 문제가 있음을 감안 하더라도 반드시 시정되어 재외동포들이 우주촌 어느 곳에 살든지 민족은 하나이며 한 핏줄임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40년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던 구약의 역사를 거울삼아 남북이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울타리를 넘어 민족의 염원이며 소망인 통일을 이룩하여 남북 이산가족이 같이 모여살 수 있고, 재외동포 누구나가 조국을 마음대로

(24페이지로 계속)

1 1990년 8월 18일 창립총회의 연사로 오신 진교륜박사의 강연중에 "한 기관을 창립하는 것은 아기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한인회와 교회들이 협조해서 시민협회를 창립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분이 되는 일이지요, -(중략)- 여러분이 창립하는 협회의 결실은 10년이 지나야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나고 그때 발기·창립하신 분들이 대부분 지금도 계속해서 시민협회를 이끌어 나가 이제 20년대를 향하게 뒀은 참으로 축복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초대회장 김영집 장로님의 창간사에서 우리들의 포부를 잠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수가 비록 적지만 모든 한인 누구나 다 투표할 때 정치인들은 우리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우리 2세대들은 정치의 일선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중략)- 10년 혹은 15년후에 한인 주지사, 연방정부 장관, 차관,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인 김창준씨, 워싱턴주 상원의원 신효범박사(Paul H. Shin), 또한 매사추세츠 보건청장 고경주박사(Howard Koh) 등 여러분들이 정계에 진출하여 한인들의 대변인으로 직접, 간접으로 역할을 하도록 시민협회가 지원한 바 있고, 지난 3년간 여름 6주간 정치인턴을 11명 지원하여 정부 각 부처에 보냄으로 이들중 언젠가는 멋진 한인계 정치인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협회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네분의 회장님과 세분의 이사장, 그리고 80여명의 임원, 이사, 고문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봉사가 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초대회장이었던 김영집 장로님(1990-92년)은 처음 3년간 협회의 조직과 위원회의 구성 및 현장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협회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시다가 Indiana대학 및 Indianapolis Purdue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어 섭섭하게 이 지역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이어 제2대 김은한 회장님(1993-95년)은 협회 발기부터 창립의 산파역을 맡아서 유권자 등록 및 투표위원장으로 시민협회의 일차적인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실제로 본을 보인바 김 회장님이 사시는 Lexington지역의 70여 한인들이 9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결과를 가

져오는 열성을 보였습니다. 94년 1월에는 김창준의원 재선 모금파티(후원회 위원장 남궁 연)를 적극 지원하여 성사시켰고, 같은 해 9월에는 매사추세츠 Weld 주지사 후원 모금파티를 김회장 자택에서 성공리에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Single golfer인 김회장님의 투지있는 추진력으로 시민협회가 든든하게 자라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1995년경부터 일기 시작한 미국의 보수화 경향에 따라 웰페어법 개정과 반이민법 때문에 많은 한인 특히 노인들의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 시급하게 되어 이를 도와야 되는 명제가 시민협회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3대 김양길 회장님(1995-97년)은 협회 창립부터 기금모금위원장, 헌장개정위원장, 편집위원 및 부회장으로 협회 각 분야에 크게 활동한 바 있으며, 특히 회장 임기중에는 당면한 과제인 시민권 취득 교육과 시험을 주관하고 워크샵을 개최하여 200여명의 한인들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한 바 있으며, "시민권 취득 종합 안내서"를 97년에 1000부 발간, 배포하는 등 시민권 취득 운동에 적극 활동한 회장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기중 회지 이외에 처음으로 계간 Newsletter를 4000부 발간하여 배포하였으며 전국 한미 지도자대회 참여등 시민협회의 홍보와 전국 조직과의 연계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한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AAUD에서 "2000년도 개인 지역사회 봉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금은 협회의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공동이사장으로 저와 함께 1년간 수고하시고 있습니다.

제4회 회장인 최홍균 박사님(1998-2000년)은 협회 창립 이후 유권자등록위원, 홍보위원장, 총무, 부회장직을 역임하면서 대내적으로 본회 10년간 모든 실질적 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온 실세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AAUD(Asian American Unity Dinner)의 공동의장으로, Paul Cellucci 매사추세츠 주지사에 의해 AAC(Asian American Commission)위원으로, Washington D.C.의 LOKA(League of Korean American) 등 여러 단체와의 연대조성으로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에 크게 공헌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회장 임기중 정치인턴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여 98년에 1명, 99년에 4명, 2000년에는



6명, 총 11명에게 각 \$1000씩 총 \$11,000을 모금, 지원하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매사추세츠 주지사후보인 하시바거(Scott Harshbarger) 지지 및 후원모금파티(후원금 \$14,000 모금)의 성공적인 실시와 시민협회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도 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AAUD에서 \$2,500의 지원을 받아 이익인 홍보/출판위원장의 수고로 "법과 생활 및 민권안내" 책자 3000부를 발간하였고, 2000년도에는 선거안내 자료인 "투표 2000!" 1000부를 발간하여 무료 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민협회가 10년을 한결같이 계속 발전해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이 계속 협회일들을

김문소 공동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뉴잉글랜드 한인회관 회장, 뉴잉글랜드 한인회 이사장, 재미 한인 수의사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보스톤한인교회의 장로이며 Tewksbury Animal Hospital의 원장이다.

Dr. Moon So Kim, co-Chairman of the board, graduated from the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and th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wa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Center, chairman of the Korean American Society of New England and president of the Korean Veterinary Society of America. He is now an elder of the Korean Church of Boston and the Director of Tewksbury Animal Hospital.

시민권자가 알아야 할 중요 법규

이모저모로 맡아서 수고하신 덕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10년을 하루같이 편집, 출판위원장 및 사무총장으로 수고해주신 김명기 사무총장님의 피나는 노력과 그 뒤를 이어 홍보/출판위원장을 맡으신 이의인 장로님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인 시민협회 회보가 매년 3000부씩 발간되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시민협회 회지는 우리의 얼굴이요 역사이며 열매입니다. 협회지의 발간을 위하여 광고로 계속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주시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여러 교회들, 많은 단체 및 업소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1년의 새로운 도전과 시민협회의 확장을 기약하는 제5대 김성군회장에게 우리 모두 배전의 협조와 지원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10년후에는 보다 많은 한인정치인이 미국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도록 우리 모든 한인들이 투표를 비롯한 정치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시행]**



신속한 시민권 취득 행정 및 시민권 선서 면제 변경 조항

2000년도의 이민국 시민권 행정은 아주 신속하여져서 신청 후 약 9개월(과거에는 2년까지도 소요됨)이면 통상적으로 선서가 끝나며, 인터뷰 당일 합격인에게 2주일 내에 시민권 선서일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행정은 계속해서 올해에도 동일함으로 더 많은 한인 시민권 신청을 기대합니다. 또한 2000년 11월 6일부터 시행된 변경된 법안은, 과거에는 선서 즉 "충성맹세" 서약을 반드시 하여야 하기에 시험을 면제받아도 선서의무 조항에 걸려 못받는 경우를 개선하였습니다. 치매증 노인과 정신 박약아등 정신 신체 장애자에 한하여 법무장관 권한으로 시민권 선서 의무조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장애인들이 선서의무 조항에 걸려 시민권을 취득못해 불이익을 당해왔던 폐단이 사라졌습니다.

시민권 취득 후 사회보장국 신고 필수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게되면 연방 사회 복지국(SSA)에 찾아가 신분변경을 신고하고 새로 복지국 카드(Social Security Card)를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한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그동안 쓰던 이름이나 철자를 바꾸어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기존의 복지국 카드에 등록된 이름을

바꾸는 경우에는 신청서류와 신분증의 이름이 달라 복지 혜택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현재 정부 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신분 변경 신고를 하지않으면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연방정부는 미국 시민에게 새로운 법규와 혜택 등에 대한 공문 발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신분변경 신청은 시민권 취득본인이 가까운 사회복지국(SSA) 사무실을 방문하여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영주권 배우자 상속인의 불이익

미국 시민권 배우자가 시민권 배우자에게 상속을 할 경우에 상속세 면제 조항(Marital Deduction)이 있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도 세제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시민권 배우자가 영주권자에게 재산상속을 할 경우, 이러한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개인 상속세 면제 조항(Personal Estate Tax Exemption)으로 사망일에 따라 \$650,000에서 \$1,000,000까지 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650,000이 넘어가는 재산을 가진 영주권 배우자계산 주의해서 상속 계획을 하여야만 합니다. 재산이 많은 영주권 배우자계산 시민권을 받아야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수 있습니다. **[시행]**

이사장 인사 말씀

(15 페이지에서 계속)

심으로 실현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 이후로 1.5세 및 2세들을 이사회에 대거 참여시켰으며(협회 임원, 이사 명단 참조),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재정비하였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재정립하여 보았습니다 (15 페이지 참조).

본인은 김문소 공동 이사장님과 더불어 시민협회가 우리들의 권익과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한 몫을 하는 우리들의 시민협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동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하는 바입니다. **[시행]**

아리랑의 한을 풀어야한다

(22 페이지에서 계속)

드나들며 살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 우리 민족의 한인 「아리랑」의 한도 자연스럽게 풀려질 것으로 믿는다. 그날은 언젠가 반드시 올 것이다. 작가 조정래가 대하소설 「아리랑」에서 "조국은 영원히 민족의 것이지 무슨 주의자들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간파하였듯이 민족이 없으면 이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념이 민족 앞에 무릎을 꿇는 날 우리 민족은 진정한 통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이 끝나기 전에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시행]**



I am very pleased to have this chance to speak with the members of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an important organization for its efforts to encourage our participation in the U.S. political process. When I was a young person growing up in Pittsburgh, PA, organizations like yours were unimaginable; so, your existence and hard work are a clear sign to me of the tremendous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recent years. Your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is especially significant in this election year when the nation will choose a new president whose decisions can affect us on two fronts, as ethnic and racial minorities in the United States and a community whose homeland remains a global hotspot with complex relations to the U.S. So I thank you for your vigilance and commitment.

What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tonight comes from a project that I have been developing for some time. It is an attempt to examine a sensitive but important part of the lives of many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e experience of the Korean War and its legacy for us today. Especially timely today because of the historic summi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this 50th anniversary year of the War, the project began informally several years ago among a small group of Korean Americans. They were 1.5 and second generation members of a group that formed after the Los Angeles riots in 1992. One of the things they discovered they had in common was a curiosity about their family histories in Korea. While they knew some things, what was particularly missing was what happened to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during the Korean War. They also wondered what significance those experiences might have for them today. Life in the United States felt cut off from the past and lacked depth and continuity. As one person said, "everything in my family is focused on the present or the future; it feels like our family's existence began the moment my parents stepped onto

these shores."

And it seemed clear that the loss of the past could be traced to the decade of the Korean War, 1945-55. Although some in this group were familiar with parts of their family histories during this period, more commonly there were big gaps. So, with a vague feeling of urgency and desire to know more, this group set about to fill in the holes. You will here some of their words in a moment.

This curiosity about and conviction that family histories in Korea and during the War matter for our lives in America were the reasons why I decided to continue this effort as a larger oral history project. For the past year I have been interviewing Koreans living in the Greater Boston and San Francisco Bay areas about memories of the War, life in Korea after the War, coming to the United States, and life in America. They are all ages, from college students to parents to grandparents, some in their 70s. As far as I know, nothing of this kind has ever been done. While scholars have written extensively about the politics of the Korean War, the human, personal meaning of that terrible tragedy has been neglected, perhaps because it is so painful. The experiences of survivors of the Holocaust and the WWII internment of Japanese Americans, however, tell us that remembering can be very important - not only for those who lived through the violence, but also for their children and grandchildren. My thought was that the same might be true for Korean Americans.

Telling someone your life story is not easy especially when you have to talk about a still contentious and painful episode like the Korean War. So, when I began interviewing, I was uncertain about how people would respond to this project. It has been gratifying, therefore, to discover how willing people are to participate and I feel privileged to have had the opportunity to listen to very personal, often upsetting, but always remarkable



recollections and insights. Because the Korean War is still a flashpoint for disagreements and conflict in our community and also in the wider American society, it takes courage to be among the first to speak about it. I hope the contribution their memories can make to beginning a discussion of these issues for the benefit of the larger Korean American community will be some reward for their willingness to speak out.

I'd like to share some interview excerpts with you that were used in a public Commemo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in Berkeley, CA, this past June. They are only a partial sample of the detailed memories people describe but they give an idea of some of the ways the War and its aftermath are still with us, even today. I have organized them according to three themes that help me reflect on both the individual and shared experience of war, family, and life in America for Korean Americans. The first is memories of the war, itself.

1. War Memories

"Officially, the Korean War is the Forgotten War. We are told 'Do Not Remember.' Is it because remembering would contradict America's insistence that the War was heroic and just? A victory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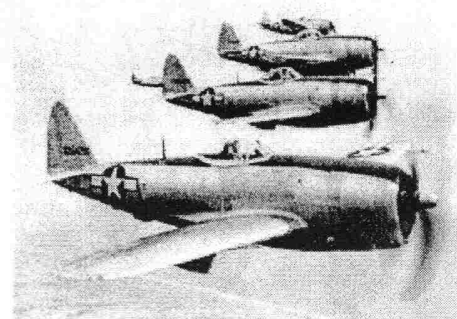
good over evil?"

(My name is Chun Suntae. I was a first year high school student in Kaesung when the War broke out. Within 6 months I was separated from my family and survived on my own until the war ended. I have lived in the Bay area now for almost four decades.)

When the war broke out, I was the youngest member of our school swimming team. On June 24, Saturday, the whole school went for a picnic and our swimming team went to a reservoir right between Kaesung and the Imjin River to practice. We just enjoyed swimming around the lake that evening til dark. The next morning, we heard the sounds of machine guns and things like that, which we didn't care about because we heard them all the time. Then, bullets start hitting the lake. A South Korean army soldier came running down and he said, "hey students, get away, the North Korean army's already occupied the city." We were really scared because we thought everybody would get killed. He said, "I cannot take responsibility for all of you guys. Just go wherever you want." So I returned to Kaesung.

Because the Americans bombed the city everyday, we moved away from Kaesung about 8 or 10 kilometers. One day we remembered chickens we left at our home, so I went to Kaesung to get the chickens. There were many dead bodies on the way and in my backyard. Then, there was an airplane sound, so I ran to the tunnel my father and I had dug. Then airplanes, about 2, 3, or 4 of them, with propellers, came and for the first time I saw, what do they call it, carpet bombing.

I thought what they dropped was pamphlets. We call it "beerah." They say "surrender and we will give you money",



whatever. I thought that was it because white stuff kept falling down everywhere Then I found out it was not pamphlets - it was a parachuted bomb.

Then, all the airplanes left; and a little bit later, there was one of the largest explosions I ever heard, right in the middle of the city, like an atomic bomb you see in the pictures, huge dust and smoke rising up into the sky. I thought, what the hell was that? There's no airplane and there's a big explosion. We didn't think about it as a time bomb because we never saw it before. That's a ghost plane, a ghose bomber or something. Anyway, 5 minutes later, another bomb exploded again; then, every 5 minutes for hours. I mean, it was so scary.

Now, there were people hiding downtown in the rich people's basements, 20, 30, 40 people, young kids and old people, you know, and wives. In many cases time bombs dropped right next to them but they didn't know what it was. So they are all buried alive. Everybody died, buried alive. Those kind of cases happend all over the city.

(My name is Helen Kyungsook Daniels. I was born in Manchuria when Korea was controlled by Japan. I came to the United States nearly forty years ago as the wife of a U. S. serviceman.)

We left North Korea on December 5th, 1950. I was 16 years old. Americans came to our town and three days later, they were pullig back. So my brother-in-law said we gotta move out.

My sister had three children. They put one on my back When we crossed the river, the Taedong River, there was a canoe. But there were too many people. The canoe was so full, water started coming in. They started pushing us, breaking the ice. People were screaming, hollering. We crossed over that way and the whole body got wet. It was freezing. I don't know how far we went So, we were like that for 28 days, walking.

My sister's baby was crying because it was a new born baby. Her mother-in-law keeps saying, we're going to have to throw her away because she's afraid that

communists or someone will hear her.

We all came to the Imjin River; there's American soldiers, Korean soldiers and Korean women police, they're all there. They all point guns at us, saying you can't come. Then everybody says, either we die here or die crossing. It was all ice. When my brother-in-law tried to crawl over, he sank in the water with his son on his back. I wanted to jump over and help them but. Then, one of the GIs came over and helped me pull him and my brother-in-law up, both of them. Then they started searching all over our bodies to see if we had any weapons, you know. This was Christmas Day.

Finally, we got down to Taejun, we stayed there about 5 days and then they said you gotta move again. So we went down to Eelree where we stayed in a refugee camp for three years. My sister had three children when we got to the refugee camp. Then two died. The newborn and the boy I carried on my back.

(My name is Kim Won Yop. I am 73 years old. I was a prisoner of war in North Korea for two years. I am now living in the Boston area.)

It was during the United Nations' offensive acros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n the fall of 1950. We were retreating in the face of huge armies of Chinese volunteers and North Korea soldiers.

On that day, we had to flee without the retreat order. All the weapons we had, the automatics, had some important parts without which they wouldn't work. As we were hiding, we decided to bury those parts under ground because we weren't sure how the situation would turn out. All of a sudden the Chinese were upon us, pointing their guns at us.

Their base was north and as such, we the prisoners were also taken north. As we walked on, I was thinking to myself how on earth did we become their prisoners. Their guns were the kind used it was ridiculous that we were their prisoners. But there we were.

There were plenty of opportunities for us to escape. It was in fact very strange. They didn't march us in lines. They would simply tell us the next destination

and told us to come and meet them there. And it was up to us to be at that destination at the right time. It was like climbing some mountain on a camping trip! some did run away. But most of us, because we knew that our officer standing was to be respected, we decided to wait for and rely on the cease-fire talks. In this way, we got as far as Pyongyang.

(My name is Chang Soam. I was 5 years old when the war started. I lived in Seoul and was evacuated with my family to Pusan and then Cheju-do. My father was a minister. I have lived in the Bay area for the last 30 years.)

After the War, outside of Seoul, like Kimpo, it was horrible. It was the end of the war and every morning I saw new born babies on the street because during the war, especially Korean and American soldiers raped people and made them pregnant. These were babies without fathers. And at hospitals, every morning new born babies were left on the corners still moving. Someone just threw them away. I was 7 or 8 years old. It was very bad.

When I first heard stories like these, I was amazed. How vivid were Helen Daniels and Chun Suntac's memories of childhood. They also put a thoroughly human face on the cliches of war - fleeing lines of anonymous refugees, mushroom clouds from bombs seen only from above. I was also struck by the absence of a harsh ideological tone in these recollections given the general view that the Korean War and its aftermath were saturated with virulent cold war hatreds that ravaged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next 50 years. I am not saying that people I interviewed did not have anti-communist feelings or memories of great fear of the North Koreans and Chinese; but, frankly, these themes were not the dominant ones. Quite to the contrary, memories of benevolent or neutral feelings toward northerners or simply the shared human pain of all Koreans wracked by war, were more common. How remarkable that the wife of a police officer would nurse a wounded female guerilla, or that a captured South Korean officer would be marched to his detention camp as if on a camp outing. Even those who spoke about how harsh

and dangerous the communists were often had no first hand knowledge of atrocities or abuses, but were responding instead to a general climate of fear or rumor.

These memories do not fit neatly into the official U.S. narrative about the Korean War - a heroic struggle in which America "rescued South Korea from Communist aggression enabling it eventually to become a democratic and prosperous country", to quote a Washington Post editorial a year ago. The same point has been made by Northwestern historian Ji-Yeon Yuh who reports the following comment of a Korean Chinese woman she interviewed: "What do you mean? I was busy being a daughter-in-law, busy being cursed at by my mother-in-law, busy working the fields so we wouldn't starve, busy cooking. I didn't know anything about the world. It was of no importance to me. It didn't help me with my work. I just knew there was a war. That's all."

Erasing the Korean War from public memory may be the only way to preserve the simplistic idea that this was a war of good against evil. I believe the Korean experience of that conflict was much more human than ideological; a painful episode of civil as well as international conflict pitting brother against brother, family against family, a people against itself. The interviews make me wonder what other truths about the Korean War have remained hidden in unspoken Korean American memories of that terrible time. How many NoGunRi's have gone unaccounted for?

2. Silence

Silence is my second theme. Paradoxically, it can be 'heard' in the way people tell their life stories. "When memories are painful or dangerous, we conspire to keep them hidden. Silence is an audible legacy of the Korean War."

(My name is Minyong Lee. I am 60 years old and lived in Seoul with my mother and two sisters when the war broke out. My family was originally from the north. My home is now in the Boston area.)

People are afraid to talk about things

like the War. But nowadays, I talk some with other Koreans. I try to talk about everything, but nobody really talks about this kind of thing in the Korean community. Well, maybe I'm getting older. Now I think I have conviction that no matter how my friends or neighbors condemn me or blame me, I know I should still talk. That's why I started to talk now. But still, with some people, I don't say much, just little things. With others, if they are very serious, then I open my mind, open up a little bit. That's how I do it.

(My name is Orson Moon. I was born in Michigan and now live in the Boston area. I am 32 years old. My parents came to the United States in the 1960s.)

When I first learned the stories about my grandfather and father's experiences during the War, a lot of things just fell right into place, and it was though a weight had been lifted from me. My first reaction was not shame or denial; I felt a lot of joy and I felt a real strong sense of purpose at the same time, though. My dad told me to be careful and not to tell anyone else about this. So after all these years, my father was still very afraid.

(This is Helen Kyungsook Daniels, again)

I think a lot of parents would love to talk to their children. But, the children might not be interested or, I was actually, I was too busy raising them. I was too busy. Now I talk a little bit to my daughter. She couldn't believe it. I don't know why I didn't - why I don't tell them. But really, I never speak to them about it.

(My name is Hae-Sung Park. I was born in Korea but raised here in the mid-west. I'm currently finishing graduate school in the Bay area.)

There's a lot of what we don't know which was never passed down to us. Our parents complain that we don't know anything about our history. But they never want to talk about that shameful part of history. How the hell were we supposed to know? If Americans don't think it a big deal, and if our parents don't want to talk about it, where are we going to find this

information?

(My name is Charles Hong. I am a senior in college. My hometown is Los Angeles.)

I feel uncomfortable asking my mother those kind of questions, you know, about her life during the War. And I think a small part of it has to do with finding out, actually getting answers to my questions. You know, sometimes you just don't want to know or hear about sad things.

Silence is a theme present in many people's encounter with periods of intense conflict and trauma. It is a hallmark of survivors' responses to the Holocaust, the Japanese American internment, and the more recent conflicts in Central America, South Africa, and Southeast Asia.

I believe this silence has many sources in the Korean American case. One is the very subtle way that the master narrative, the official state version of the War, as I just mentioned, can exert pressure on us to forget, to get on with our lives, to leave what cannot be changed in the past. As Lisa Lowe, professor of Asian American studies writes in her book, Immigrant Acts, many immigrants from Asia have had to give up their voices in seeking a place and opportunity in this country, especially when their personal experience of major events contradicts the way they are portrayed in the United States. As racial minorities, Korean newcomers have enough obstacles to overcome without facing the added hostilities that would be stirred up by challenging the official line on the Korean War. One price of coming to this country may be the sacrifice of voice and memory.

Silence also has other roots. As Mr. Lee suggests, shadows from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lidified by the War have been cast over Korean American communities in this country. Some things are simply not talked about because they could reignite conflict, real or imagined. As long as Korea remains divided, no one here is completely free to speak his or her mind or to bring up the past without the possibility of offending someone else, or being accused of disloyalty. As another person I interviewed from the San Fran-

cisco area said,

"This is the first time I will talk about the Korean War. I don't like to talk because I don't want to argue. Even when my friends talk about it, they get into arguments. Some say the North attacked first, others say no, it was the South. So every time, arguments. I will talk now, just about my own experience, just in the Seoul area."

Finally, we silence ourselves. War is by definition traumatic and civil war especially so. Why remember let alone talk about things that are only filled with pain? Remaining silent is also reinforced when those closest to us like children who did not experience the conflict, are not able to ask about it. This is what the psychoanalyst Yael Danieli has called the 'double wall'. In her work with survivors of the Holocaust, she found a pattern where those who lived through the genocide could not talk about it because of the pain of remembering, and their children, desperate to know more about their family's past, could not ask for fear of what they might hear. Thus, parents and children collude in maintaining the silence. This is what I hear in Charles' comment that he sometimes thinks he doesn't ask his mother about the War because he is not sure he really wants to know.

Of course forgetting is also psychologically adaptive. When the pain of remembering is too great, the risk of sparking conflict in our communities high, and the nation would prefer to let the Korean War remain forgotten, silence can be a blessing. Of course the difficult questions are what are the costs of this silence and when should we break it. When do we stand to gain something from awakening to the past? Unfortunately, we can never be certain; there is always risk. But judging from the openness of those who have participated in this project so far, I think many Korean Americans are ready to speak and would appreciate the opportunity to do so.

3. Legacies of W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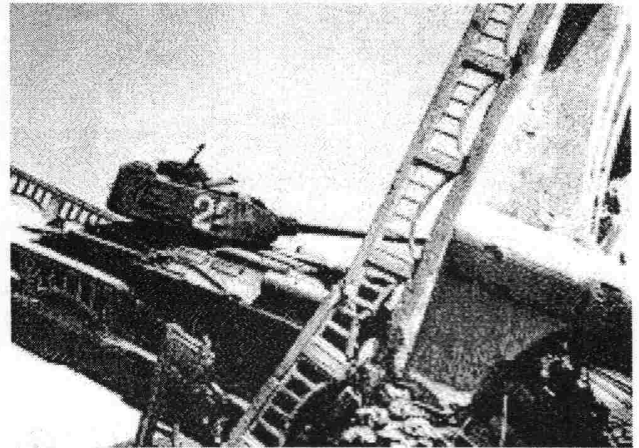
In spite of the many forces at work to silence Korean American remembering and speaking about the past, I believe the past is always with us, in some way. Even the very decision to devote ourselves to the present and future - to forget the past, can be the result of that very history.

"The War is not over - it continues on - in the division of the Nation, in the limbo of the armistice agreement, in how we live our lives as Korean Americans."

(This is Minyong Lee, again)

Before the Korean civil war, some of our family members stayed in the north and eventually became Communists. Some, like us, became established in the south. I have two more brothers and two more sisters and after the war started, they fled to the north. Actually, I don't know if it was "fled" or not; it was not clear. Maybe they affiliated with the north, maybe they liked the ideology or whatever... I never asked those kinds of questions. I just kept quiet. That was simply too much, too painful for me.

Even after the war, I wanted to be alone and just do my own things; hide myself and avoid political things. Questions like, "What is your background?" and "Who are your relatives?" really harassed me. If people thought you had family in the north or even worse, relatives who went to the north, it was really hard for you. And I had a hard time. Even after college, I could not escape it. I had no chance in Korea. I didn't want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but there was no choice for me. I just fled. There was only one escape



for me. I didn't have any hope or anything at all in Korea. In a way, I felt I died in Korea. I was reborn here, in the United States.

(This is Helen Kyungsook Daniels, again.)

The War influenced me for a long time. When my children were growing up, they brought their friends, you know, neighbors, over. I was always hungry during the War, so when they played, I was always trying to give them cookies. I was trying to feed them. I was always trying to give my children everything they needed because I never had anything. When it comes time for their friends to go, I say, "go, have some more, ok?"... But, looking back at history, I think the reason is because we never had enough food, too many years without. I'm like Americans now. I throw away food even though I should not. Every time I happen to have leftover rice, I throw it away, if it's stale, two or three days. But, then, sometimes even now, I try putting it in the refrigerator to freeze it.

(This is Orson Moon, again.)

Why hold onto the past? For me, it is not the past. The fear and terror of this time period have carried forward into my dad's life. It is visible; if you ever met him, you'd understand what it meant. It's carried forward to my sisters' lives, my life, as a hole, a silence, and in order to move forward into my own life and everything that it means in the present and everything that it can mean in the future, I really feel that I have to release the past from this prison of silence.

(My name is Nichole Yim. I'm 34 years old and I was raised in Los Angeles although I was born in Korea. I am now living in the Boston area.)

I think there is one lesson that my mother learned about herself during the war - that she is dispensable because of her gender and her age. She was in seventh grade when the war broke out. They had to evacuate the town. My mother was the fourth of seven children. The two oldest were girls. The two sons. the last had to go because she was a baby. My mother had to stay and help my

grandmother while she decided if she was too old to evacuate. The decision wasn't up to my mother which at the time only meant, you know, death. I still remember the expression on her face when she said "it is okay that I die." It was shame and resentment.

I think of that occasion as a mother betraying her daughter. Typically we say that men oppress women. This may be a part of it, but I think in a very traditional, sexist, patriarchal society like Korea, torn by war and situations that make you just the barest person, my grandmother betrayed my mother.

And I think to this day it is easier for my mother to betray me than my brother or anybody else. She kept telling me "be a normal person." I don't know what normal is but it's something she certainly felt that she could or should have had, but didn't. So now I must achieve it in my life; but then what happens to my desires, my dreams. How do I understand this so it doesn't disempower me?

These comments touch on many different kinds of war legacies for Korean Americans. For some, the decision to immigrate to the United States has its roots in the War and its aftermath. For others, themes linking food to years of deprivation are evident. In fact, one might even say that taste buds and stomachs are places where the Korean War has lodged itself most firmly in the Korean America of today. Others I interviewed said things like:

"Yeah, we had watermelons, the small one, Korean canteloupe, yellow. God, I hate those things! And occasionally we had chicken; you buy the chicken and twist the neck and cook it. I can't eat chicken anymore. I hated chicken after that!"

"OK, this guy during the war was very hungry; he was about 15 years old. Today, he has a lot of money; he does not worry about food. But at a buffet, he gets only one item on his dish, piled up like a mountain. But, then he cannot try other foods, he's already full. That is a good example. During the Korean war, there wasn't enough food. A family could have enough for 2 people but there were

9 people. So brother and sister had to hurry, they had to be fast, you know, to get something. So we can see that still today. Even now this guy cannot slow down when he eats."

But two other themes made a strong impression on me as I heard them over and over again in the interviews. The first is how qualities of personal character and style that were shaped at least in part by experiences during the Korean War are often viewed today as simply the "way Koreans are". Thus, Helen Daniels imagines her daughter thinking that her mother always wants to feed her friends because "all Korean mothers are like that"; that's just the way Korean mothers are. In another part of his interview, Minyong Lee says maybe there was a time when he pushed his children to succeed in the way he was unable to in South Korea because of his family ties to the North. Like Helen Daniels, he imagines his children using the yardstick of the 'typical Korean father' to explain his demandingness:

"Maybe they went to other Korean families and saw their fathers and then decided that my father is standard or a little bit worse or better than the standard (Korean father). They couldn't know all the reasons unless I explained it to them."

On the other side,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 Charles, who was fearful of asking his mother questions about the war, said:

"I think one of the reasons Korean fathers seem so emotionally distant is because their own fathers had to keep emotional distance from them during the war. I'm thinking maybe the reason they didn't open up to their children was because, they didn't want to get too emotionally attached, because there was this high risk of losing them. That's what happened to my grandfather: he lost a daughter. Besides, there was enough to do just to provide the necessities like food and clothing. So, I think my father learned to be distant from his own father."

In this case Charles displays unusual insight into what might explain some of the features of the stereotypic Korean American father other than culture and tradition, alone. But how many children

have the knowledge of family history that would enable them to achieve this level of understanding?

In this age of multiculturalism, it is not surprising that we might rely too heavily on cultural explanations of our behavior. But this project has caused me to wonder how much of the cultural stereotype of Korean Americans is actually the product of what it took to survive the Korean War and later years of hardship and recovery. And in our families, how much of the communication, generation gap is the result of the partial knowledge children have of the influence of this past on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The drive for education, keeping the stomach full, austere but concerned parenting, an emphasis on economic success and the avoidance of politics, cannot be entirely the work of Confucius.

A second kind of legacy can be detected in the words of Orson, Nichole, and Helen Kim, deeply reflective 1.5 and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While they speak of very different ways they sense the Korean War has influenced their own lives' unexplained ominous moods in the home, a legacy of political struggle, an unbroken cycle of mother/daughter betrayal - they affirm the desire to know this past and the belief that doing so would make a real difference in their own lives. Those in the parent generation with whom I spoke generally felt their children were uninterested in their lives in Korea before coming to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their experiences of war. And, as I commented earlier, children are often hesitant to ask about the past or believe the older generation is unwilling to speak about it. In my view this is a legacy of the Korean War where the very silence about it is itself a present-day, Korean American family issue. Parents do not believe children are interested and children do not think parents want to talk. Yet, the thing that cannot be talked about, life during the Korean War, is privately felt by both generations to be a powerful force in our lives today. As Orson said, "...in order to move forward into my own life and everything that it means in the present and can mean in the future, I really feel I have to release the past from

this prison of silence and let it come to whatever it may."

Perhaps in a small way, the voices in this project will help both generations recognize the common desire to know the past and foster a wider, expanding dialogue about the legacy of the Korean War for our communities today.

Finally, as we are reminded in this 50th anniversary year of the Korean War, marked forever by the remarkable north/south summit in June, the Korean War is alive today not only indirectly through its lasting human impacts, but also directly in the unresolved armistice agreement, division of the nation, and strained relationship between the homeland and the very country where most of us have chosen to live. My hope is that at this moment of extraordinary opportunity to finally end these vestiges of the Korean War, opening up discussion of the past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will also inspire us to offer visible support for reconciliation on the national level. If the Korean War is not just a matter of history and if its legacies are evident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en a just and final resolution to that conflict a legitimate Korean American issue. It must be on our agenda. Thank you. KACI

미국의 정치활동에 우리 한인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한인 미국시민협회의 회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의 피츠버그에서 어린 시절을 지날 때는 이러한 단체들의 존재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곳에서 사는 우리 한인들과 또한 한국의 앞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새 대통령을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때로서 여러분의 공헌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미국에서는 소수민족이고 또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는 꽤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한인사회를 위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과 같이 나눌 내용은 제가 오랫동안 일해온 프로젝트로서 미국내 한인 사회의 많은 한인들의 생활에 아주 민감하면서도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전쟁의

경험과 오늘의 우리에게 남겨진 그 유산이 과연 무엇인가를 조사하려는 시도입니다. 올해로 벌써 한국전쟁도 50주년이 되었고 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 때에 아주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몇 년전에 소수의 한인미국인들이 비공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을 겨냥한 폭동이 일어난 후 1.5세 및 2세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그들 가족의 역사(뿌리)에 대한 호기심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끈 것은 한국전쟁 당시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그 경험들이 현재의 그들에게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였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이 과거와는 동떨어진 것이었고 삶의 깊이나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은 현재와 미래에만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가족의 존재 자체가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미국에 첫발을 디딘 후에야 시작된 것같은 인상이었습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 과거의 일은 한국전쟁을 전후로 1945년부터 1955년 사이라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의 가족역사를 부분적이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한국전쟁동안의 가족역사에 대한 호기심과 또 이것이 미국에서의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확신이 제가 이 노력을 보다 큰 규모의 역사증언 프로젝트로 계속하기로 결정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일년동안 보스톤지역과 샌프란시스코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여 한국전쟁과 전후의 한국에서의 생활 및 미국에 오게된 경위, 또 이 미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회고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대학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장년 또는 노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의 한인 미국인들을 면담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시도된 적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많은 학자들이 한국전쟁의 상황이나 경과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기록하였지만, 그 참담한 비극의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개개인의 삶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에 대하여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대학살이나 2차대전 시 일본미국인의 수용소생활의 경험으로 볼 때 그 당시 일을 기억해낸다는 것은 그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에게는 물론 1.5세나 2세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전쟁이 우리 한인 미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3자에게 자기의 일생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기억하기 힘들고 또 아픈 이었던 한국전쟁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특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제가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였을 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몰랐지만, 기꺼이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며 또 인간적인, 때로는 감동적인 회고와 식견을 듣게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한국전쟁은 우리 한인사회내에서나 널리 이 미국사회에서도 의견의 불일치와 불협화음의 쟁점이 되고 있는 까닭에 처음으로 이 일에 대하여 말을 꺼낸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저는 이들의 회고들을 통하여 전 한미사회가 덕을 보게될 이런 문제의 토론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용감히 나와 말한 것에 대한 보답이 되었다고 기대합니다.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의 베레클리에서 개최된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식에서 사용되었던 인터뷰 발췌록을 함께 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회고록의 한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오늘날 아직도 우리속에 남아있는 전쟁과 그 후유증에 대한 감을 잡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서 전쟁과 가족 및 한인 미국인들의 미국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또는 공통적인 경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쟁 기억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억하지 말라'며 강요되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기억한다는 것만으로도 전쟁의 영웅적인 결과와 타당성, 즉 선이 악을 물리쳤다는 미국의 태도를 부정하게 될 가능성 때문입니까?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개성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며, 발발 6개월 만에 가족과 헤어져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혼자 힘으로 살았고, 베이징에서 40여년을 살고 있는 전순태씨의 회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저는 학교 수영부에서 가장 나이 어린 부원이었습니다. 6월 24일에 전 학교생들이 소풍을 갔었고 수영부원들은 개성에서 인민강 사이에 있던 저수지에서 수영연습을 했습니다. 그날 우리들은 저수지에서 뱃놀 때까지 수영을 하며 놀게 되었죠. 다음날 새벽, 때늦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상 들어오던 것이어서 그리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중략)... 그때 총알들이 호수면을 본격적으로 때려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날한군인이 뛰어와서 말하길 '학생들 빨리 도망쳐라. 북한군이 도시를 점령했다.' 모두가 죽으리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몹시 겁을 먹었습니다. 그는 '너희 모두를 책임질 수



없으니 너희들은 어디로든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수 없이 개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군이 도시전체에 폭격을 해대었기 때문에 우리는 개성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두고온 닭생각이 나서 개성집으로 닭을 가지러 갔습니다. 뒷뜰에 죽은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었습니다. 그때 비행기 소리가 들렸고 프로펠러를 단 비행기 서너대가 생전 처음 보는 웅덩이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중략)...

그들이 전당을 살포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전당들을 우리는 "빠라"라고 불렀는데, 보통 '투항하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는 식의 내용들이 적혀있었습니다. 전 그것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얀 무엇인가가 온통 떨어지고 있었으니깐... (중략)...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 그것들은 전당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낙하산 폭탄들이었습니다... (중략)... 잠시후, 세상에서 들어보았던 소리 중에서 가장 큰 폭음이 들려왔습니다... (중략)... '대체 이게 뭐야? 비행기도 없는데 폭탄소리가 들리다니.' 한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한폭탄일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5분 쯤 후에 다른 폭탄이 또 하나 폭발했습니다. 그 후 5분마다 계속해서 한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때 어떤 부자집 지하실에서 사람들이 숨어있었습니다. 한 3, 40명쯤, 남녀노소 다들 모여서 많이죠. 그들은 시한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무엇인지... (중략)... 그런식으로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몽땅 다 죽었습니다. 산채로 묻혀서. 그런 일들이 전 도시에 걸쳐서 일어났었습니다.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있을 때 만주에서 태어났고 미군병사의 아내로 40년전에 미국에 온 헬렌 경숙 다니엘즈의 회고)

우리는 북한을 1950년 12월 5일에 떠났습니다. 저는 16살이었습니다. 미군이 우리 동네에 왔지만 삼일 뒤 그들은 다시 퇴각하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 형부께서 우리도 움직여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제 언니에게는 3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제가 업었죠. ... (중략)... 우리가 대동강을 건넜을 때 쪽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배는 락 찢고 목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밀쳐내고 얼음을 깎습니다. 그들이 소년 집려대고 고참치고. 우리가 그렇게 강을 건너던 중에 온 몸이 다 적었습니다. 정말 추웠습니다. 얼마나 멀리 갔는지 모릅니다... (중략)... 그렇게 28일 동안 걸기만 했습니다.

저의 언니의 이야기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계속 묻기만 했습니다. 언니의 시어머니께서 공산주의자들이 들음지도 모르니 아기를 갖다 버려야 한다고 자꾸만 말하셨습니다... (중략)... 우리는 인진강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미군, 한국군, 그리고 한국 여경등 모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총구를 우리에게 들이대며 더 이상 오지 못한다고 말씀 했습니다... (중략)... 모두들 이렇게 죽으니 건너다 죽는게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얼음이었죠. 제 형부가 그 원로 기어가려하자 아들을 등뒤에 업은채 물결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뛰어가서 그들을 도우려고 했지만... (중략)... 그 때 한 미군이 와서 저와 형부 몇 조각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흑시나 무기를 소유했는지 보려고 우리 몸을 수색했습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겨우 대전에 도착했지만 한 5일 머문 후 다시 남하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리가지 가서 남만수용소에 3년간 머무게 되었습니다. 남만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언니는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둘이 죽었죠. 남자에 하나랑 제가 등에 업었던 갓난 아기가 딸입니다.

(북한에서 2년간 전쟁포로로 잡혀있었고 지금은 보스턴에 살고 있는 73살의 김원섭씨의 회고)

1950년 가을 무장항쟁을 지나 공격하기로 결정할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중국 의용군 병력과 북한군의 기세에 밀려 후퇴 중에 있었습니다... (중략)... 그날 우리는 퇴각명령이 떨어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들, 그 자동소총은 중무장 하나만 빼면 쓸모없이 되어버리는 조립형이었습니다. 숨어있는 동안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는 판단하에 그 부품을 모두 땅에 묻어버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중국군인들이 몰려와서 우리에게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그들의 기지가 북쪽에 있었으므로 우리 전쟁포로들도 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격어가면서 생각해보니 어쩌다가 포로가 되었는지 기가 딱히터 군요... (중략)... 우리가 탈출할 만한 기회는 역마든지 있었습니다. 거의 이상할 정도였죠. 중국 군들은 우리를 쫓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목적지를 말하고는 거기서 만나자 하고 자유롭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시건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중략)... 식재료 어떤이들은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상부 지휘에 충실하기위해 기다리며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참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략)... 이렇게해서 우리는 평양에 다다랐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5살이었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가서 머물다가 제주도까지 이르렀고 베이징지역에서 지난 30년을 살아오고 있는 장소암씨의 회고)

전쟁이후, 서울 번두리, 김포같은 지역은 정말이지 악몽이었습니다. 전쟁 말기였습니다. 아침마다 길거리에는 갓 낳은 아기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동안 특히 한국과 미국병사들이 강간을 하여 인신을 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기들은 아비없이 버려진 흔적아들... (중략)... 병원 근처에서는 아침마다 모퉁이에 버려진 아기들의 울지않음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냥 갖다 버린 것이었죠. 그때 저는 7살이나 8살 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사건들을 이토록 상세히 기억할 수 있는가하는 것과 전후 50년동안 냉전의 혐오가 한반도에서 팽배하였다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다르게 사상적인 대립감정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인터뷰한 사람들이 북한이나 중국사람에 대한 두려운 기억이나 반공 정신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주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며 이와는 정반대로 북한사람들에 대한 중립적인 회상 또는 전쟁으로 인한 공통적인 인간의 아픔이 더 많았다는 말입니다. 부상당한 여자계필라를 간호하였다는 경찰부인의 이야기나 포로로 잡혀 수용소로 가면서 어디 캠핑이나 온 것 같았다는 이야기도 그렇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독하며 위험하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도 증오심이나 확대받은 실례보다는 일반적인 공포나 소문으로 들은 것을 회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고들은 한국전에 대한 미국의 공식담화 - 공산주의자의 입장에서 남한을 구하여 민주국가로 변형하게 한 미국의 영웅적인 노력 (일년전 워싱턴 포스트 사설) - 외는 거

리가 먼 것입니다. 한 한국중국여인의 말을 인용한 노스웨스턴의 역사학자인 여지연씨도 같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십니까? 저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꾸지람듣고, 굶지 않으려고 밭에서 일하고 음식만드느라 바빠서 세상돌아가는 일은 알지도 못하고 또 내게 중요하지도 않으며 내 일이 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전쟁이 있었구나 그 정도예요."

일반 대중들의 기억에서 한국전쟁을 잊게하는 것만이 선과 악이 싸웠다는 단순한 사상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이 한국전의 경험은 사상적이라기 보다는 인간적이며, 국제적인 분쟁은 물론 내국적으로 동족상잔의 뼈아픈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저는 말하지 못한 많은 한인 미국인들의 그 참담한 시대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한국전쟁에 대한 또 다른 숨겨진 사실들은 얼마나 될지 생각하였습니다. 또 다른 '노근리사건'은 없는지.....

2. 침묵

두 번째 주제는 침묵입니다. 역설적으로 침묵의 '소리'는 이들 생애의 이야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상처나 위협을 줄 때면 우리는 합작하여 숨기려고만 합니다. 침묵은 한국전쟁의 메아리치는 유산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머니와 두 언니와 함께 서울에 있었고, 가족은 북한에서 살고 있었으며 지금은 보스톤에 살고 있는 이민용씨의 회고)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 이야기 하기를 꺼려합니다. 요즘에 저는 다른 한인들과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는 모든 방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한인사회에서는 전쟁에 대해 누구도 언급하기를 피합니다. 이제 저는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이웃이 직책하거나 비난할 지라도 이것에 대해 꼭 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가 저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사냥들라는 아주 하찮은 것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진지할 때에만 저는 제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60년대에 도미하셨고, 미시간에서 태어났으며 지금은 보스톤 근교에서 살고 있는 32세의 율슨 문씨의 회고)

제 할아버지인 아버지의 전쟁경험담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 마치 무거운 어떤 것이 마음에서 떨어져나간 것 같이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의 처음 반응은 부끄러움이나 부정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기쁨과 목적의식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아버지께서는 이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저의 아버지께서는 전쟁에 대한 언급을 두려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헬렌 경숙 다니엘즈씨)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대화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이 수도 있겠고, 사실 생각해 보면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바빴죠. 이제 저는 제 딸에게 조금씩 말하려고 하지만 그애는 제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제가 얘기를 안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맨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중부에서 자랐으며 현재 베이징지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박해성씨의 회고)

저희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저희에게 왜 우리 역사에 대해 알지 못하느냐고 불평을 하시지만 그 분들은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으시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 미국인들이 중요한지 않다고 여기고 부모님들께서 이에 대해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어디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침묵은 강한 분쟁이나 외상을 당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학살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그랬고 일본미국인들의 수용소가 그랬고 또 근래에 중미나 남아프리카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그랬습니다. 한인 미국인들의 경우에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위에 인용한 공식담화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일어났던 바가지 못할 것들은 그냥 버려두고 앞으로 우리들의 생활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 잊으라고 우리에게 압력을 줍니다. 「이민법」의 저자인 아시안 아메리칸 연구학 교수인 리사 모우는 많은 아시아 이민자들이 이 미국사회에서 일할 장소나 기회를 얻고자 할 때, 그들이 직접 경험한 중요 사건들이 미국의 역사속에 잘못 반영되었을 때는 그들의 경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소수민족인 한국인 새이민자들은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에 도전할 때 당하게 될 적대감정은 고사하고 그 이전에 넘어야 할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온 대가로 우리는 소리와 기억을 희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른 침묵도 있습니다. 이민용씨의 경우처럼 한국전쟁으로 양분된 한반도의 그늘이 한인미국사회를 덮고 있습니다. 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나 가상적으로 분쟁을 다시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들은 아예 말하지 않게 됩니다. 한국이 분단된 채로 있는 한 아무 누구도 자유스럽게 자기의 주장을 말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거나 불충성을 감수하지 않고는 과거를 들춰낼 수 없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한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사람은 “한국전쟁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싸우기 싫기 때문에 말하기가 싫습니다. 제 친구들도 이 이야기를 할 때면 서로 논쟁을 합니다. 어떤이는 북한이 먼저 침략하였다고 하고 또 어떤이는 남한이 먼저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는 제가 서울에서 겪은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 침묵합니다. 전쟁이란 원래 상처를 남기는 것이지만 특히 국내전일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아픔밖에 없는 것을 말하기도 싫는데 기억은 왜 합니까? 이 분쟁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자식들과 같이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더 침묵하게 됩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아델 다니엘리는 이것을 「이중벽(double wall)」이라고 하였습니다. 대학살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연구하는 중에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기억하는 아픔 때문에 말하지 않게 되고, 그들의 자녀들은 가족의 과거를 알려고 하는 하나 그들이 들게될 내용을 두려워한 나머지 물어보지 못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침묵을 지키게 됩니다. 찰스 흥군의 말에 따르면 진정으로 알고 싶든지 확실하지 않아서 그 결과 전쟁에 대하여 어머니에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잊어버리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기억의 아픔이 너무나 크고, 사회내에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고, 미국이 한국전쟁을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침묵의 대가가 무엇이며 언제 우리가 이 침묵을 깨뜨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거를 들춰냄으로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 지금까지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 것을 미루어보아 많은 한인 미국인들이 말할 준비가 되어있고 또 그 기회가 온 것을 좋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3. 전쟁의 유산

한인 미국인들이 과거를 기억하고 말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으로는 과거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고 현재와 미래에만 우리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그 결정조차도 바로 그 과거 역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분단과 휴전협정의 혼돈속에서 그리고 우리 한 국가 미국인들의 삶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용씨)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 제 가족중 몇몇은 북에 남았고 결과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은 남으로 내려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 두 형들과 두 누이들은 전쟁이 시작되자 월북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월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북과 연계성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그 사실에 공감하였던 것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직문을 꺼내 적이 없습니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이죠.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전쟁 후에도 저는 홀로 있고 싶었고 제 자신을 숨기고 정치적인 것은 피하면서 그냥 제 자신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또는 “당신의 친척들은 누구입니까?”하는 직문들은 정말 저를 괴롭혔습니다. 북에 친척들이 있거나 특히 월북한 친척들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저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미국에 오고싶지 않았지만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희망도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한국에서 죽고 미국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헬렌 경숙 다니엘즈씨)

전쟁은 오랫동안 제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저는 전쟁중에 항상 배가 고팠기 때문에 놓고 있는 아이들에게 자주 라자를 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 아이들에게는 항상 모든 것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저는 아이들에게 “준 더 먹지 그러니?”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중략)... 하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음식을 충분히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인처럼 되어버려 그러면 안되는 줄 알면서도 음식을 버립니다. 이제 저는 이삼일 지낸 밥은 그냥 버립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은 냉동식에 먹기도 합니다.

(울슨 문씨)

왜 라거에 집착하느냐고요? 왜냐면 제게는 라거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 시기의 공포한 경악은 제 아버지의 삶에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를 만나보면 볼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이해하시 것

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누이와 제 삶에 신력과 침묵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삶을 엮은채 현재의 모든 것과 미래의 의미로 전진하기 위해서라면 이 침묵의 감옥으로부터 라거를 방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랐고, 현재 보스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4세의 니콜 임씨의 회고)

제 어머니께서 전쟁을 통해 알게된 하나의 사실은 - 그녀의 나이와 성별 때문에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그녀는 7살년에 재학중이었습니다. 그들은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일곱명의 자녀중 넷째였습니다. 두명의 언니들은... (중략)... 두 아들들은... (중략)... 막내는... (중략)... 도피를 시켰습니다. 할머니께서 피난을 가느냐 마느냐 결정하시는 동안 어머니는 낚아서 할머니를 도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경정권이 없었고 그 당시에 그것은 죽음을 뜻했습니다... (중략)... “내가 죽는 것은 괜찮았던거야” 하시던 그때의 어머니의 표정을 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증오였습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한 어머니의 땅에 대한 배신입니다. 보통 우리는 낚자가 여자를 억누른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건도 그 땅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같이 관습적이고 성차별적이며 가부장제적인 사회, 특히 인간의 본성을 드러나게 했던 전쟁의 항쟁해진 상황에서 제 할머니는 어머니를 배신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제 어머니가 오빠나 어느 누구보다도 저를 쉽게 버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게 “보통 사람이 되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략)... 보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머니께서 할 수도 있었고 해야 했던, 하지만 하지 못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대신 제가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럭저럭 제 목욕과 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무기력해지지 않으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위에 인용한 회고들은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한인 미국인들의 전쟁유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이들에게는 전쟁과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미국으로의 이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음식과 수년간의 굶주림이 얽혀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한인 미국인들에게 한국전쟁의 유산이 가장 확고하게 남아있는 곳은 바로 음식맛과 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수박도 있고 한국 참외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싫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닭도 먹었는데 시장에서 닭을 사다가 목을 비틀어 죽이고 요리를 했지요. 더 이상 닭은 이제

못먹겠어요!”

“이 친구는 전쟁때 15살이었는데 아주 굶주렸거든요. 지금은 돈도 많고 음식에 대해 걱정하지 않지만, 부패에 가면 말이죠. 한가지 음식만 산같이 쌓아서 먹고는 배가 불러서 다른 음식은 손도 못대요. 좋은 예지요. 전쟁때는 9명 식구에 2명분밖에 식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이 먹기 전에 빨리 먹는 수밖에 없었지요. 따라서 지금도 천천히 먹지를 못해요.”

인터뷰를 계속 하는 동안 두가지의 다른 면도 있었습니다. 그 한가지는 전쟁때 경험으로 적어도 한 두가지 부분적으로 형성되었을만한 개인적인 성격이나 행동들이 오늘날에는 단순히 “한국식”으로 통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헬렌 다니엘즈의 딸은 “모든 한국 엄마들은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먹을 것을 준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민용씨의 인터뷰 중 다른 부분에서는 북한과 연관된 것 때문에 그가 한국에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자식들이 이루어주기를 강요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헬렌 다니엘즈씨처럼 그도 자기 자녀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편적인 한국 아버지’들의 잣대로 해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 판 한국집에 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와 같거나 조금 못하거나 혹은 조금 낫거나 하다고 생각하였겠죠. 내가 설명해주기 전에는 모든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었지요.”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머니에게 전쟁에 대하여 물어보기를 두려워했던 찰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쟁

때 할아버지들이 아버지들로부터 격리된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들도 우리들로부터 감정이 격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에게 마음을 열지않는 이유는 부모가 감정적으로 너무 자식들과 깊어지기를 원치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만약 자식을 잃을 경우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도 그렇게 딸을 잃었거든요. 그것 외에 식량이나 의복 같은 생필품을 구하는 것만으로 힘에 겨웠으니까요. 따라서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와는 거리가 멀었었나봐요.”

이 경우 찰스는 전형적인 한국 부모들이 가진 문화나 전통과는 또 다른 면을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가족의 역사를 잘 알아서 이런 정도까지 부모들을 이해하는 자식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중문화의 시대에 우리들의 행동을 단지 문화의 차이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제가 느낀 것은 전형적인 한인 미국인들의 문화나 전통의식중에 과연 얼마나 실제로 전쟁이나 그후 수년간의 고생과 회복을 견디게 한 전쟁의 유산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가정내에서의 의사전달이나 세대격차 중 얼마만큼이 이 과거가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나 하는데 대하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에서 유래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육열이나 의식주 해결, 엄격한 자녀 양육, 경제적인 성공, 정치적인 회피 등이 전부 다 공자의 유교사상으로부터만 전래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유산의 두 번째 유형은 꽤나 숙고적인 올슨이나, 니콜 그리고 헬렌 김과 같은 1.5세 및 2세 한미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전쟁이 설명할 수 없는 험한 집안 분위기나 정치적인 고통, 또는 계속적인 모녀간의 배신관계 등 그들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것을 얘기하면서도 - 과거를 알려고 하는 욕구와 그렇게 함으로 그들 자신의 삶에 진정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그들이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의 생활, 특히 전쟁의 경험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한다고 느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자녀들은 과거에 대하여 물기를 주저하거나 혹은 구세대가 과거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바로 이것이 한국전쟁의 유산으로서 과거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 그 자체가 오늘날 한미인들의 가정에 존재하는 쟁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 당시의 말할 수 없는 그 삶이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신구세대가 함께 느끼는 강력한 무형의 힘이 되

었습니다. 올슨이 말하였듯이 “제 자신의 삶을 엮은채 현재의 모든 것과 미래의 의미로 전진하기 위해서라면 이 침묵의 감옥으로부터 과거를 방출시켜야 하며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외치는 소리가 신구세대로 하여금 과거를 알고 현재의 한인사회를 위하여 한국전쟁의 유산에 대해 보다 넓은 대화를 촉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헤가 한국전쟁 50주년이고 또한 6월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음을 상기할 때, 한국전쟁은 한국인의 가슴속에 아직도 간접적으로 살아있으며 또한 종결되지 않은 휴전협정과 분단된 우리나라 및 우리가 살기로 작정한 이 미국과 고국간의 어려운 관계에 직접적으로 살아있습니다. 바라기는 한국전쟁의 흔적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 이 때에 미국내 한인사회에서 과거사에 대한 토론을 시작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화해를 위한 눈에 보이는 후원을 할 수 있게 북돋아줄 것입니다. 만약 한국전쟁이 그저 한낱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미국내 한인사회에 유산으로 분명히 남아있다면 그 분쟁을 정당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미국내 한인사회가 당면한 과제라고 믿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원] (한국어 번역: 이의인)

램지 림 교수는 1970년에 로체스터대학에서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Boston College에서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로 문화정신학, 인권과 정신병, 사회역사적 정신증상의 세대간 교류 및 아시아인 아메리칸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다. 여러 아시아인 아메리칸 단체의 발기자이며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의 아시아 부문을 담당하였고,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아시아인 아메리칸들에게 남겨진 한국전쟁의 유산을 조사하는 역사적 증언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다.

Ramsay Liem received his Ph.D. in Clinical Psychology from the University of Rochester in 1970. His current interests include cultural psychology, human rights and mental health,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ociohistorical trauma, and Asian American Studies. He is a founding member of several Asian and Korean American organizations, has served on Asia and Asian Program committees for th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nd has personal interests in the U.S./Korean Relations. He is currently conducting an oral history project examining the legacies of the Korean War for Korean Americans.



뉴 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의 단합과 소수민족 단체의 활동지원을 위해 결성된 Asian American Unity Dinner (AAUD) 행사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동양인의 행사중의 하나이다. 아시아인, 태평양인의 달인 5월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올해로 14번째를 맞으며 지난 5월 5일 (금)에 Boston Park Plaza Hotel에서 저녁 6시부터 개최되었다.

시민협회와 의료봉사협회 회원을 중심으로 30여명의 한인들 포함해 약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의 행사는 Mimi Chiu 공동의장의 개회 인사말에 이어 Channel 5의 Janet Wu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Thomas Menino 보스톤 시장은 인사말에서 아시아인들이 그동안 미국 사회 발전에 많이 기여했음을 치하하였다.

식사시간에는 중국계 학생들의 전통 악기 연주, 일본 탈춤, 또한 최시내양의 부채춤과 설장고춤을 감상하였는데 특히 최양의 춤춤씨에는 많은 관중들이 갈채를 보냈다.

식사후 May Lorenzo 회장은 다섯 지역의 봉사단체들의 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총 \$16,000의 기금을 수여하였는데, 한미 의료봉사협회는 노인 진료사업을 위하여 \$4,000의 기금을 수여받았다. 이어 수상위원장인 최흥균 (전 시민협회 회장) 씨는 Harvard대학 자연과학대학장인 Narayanamurti교수에게 개인성취상을 수여하였으며, 또한 김양길 전 시민협회 회장은 그동안 시민협회와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였음이 인정되어 지역봉사상을 수상하였다.

올해의 기조연사는 중국인 아메리칸 기구 (Organization of Chinese Americans)의 전국 회장인 George Ong씨였는데 San Francisco에서 태어난 Ong씨는 19세기말 동서횡단 철도의 건설에 기여한 중국인 노동자들과, 동양이민을 방제한 미국의 법령, 2차대전 중의 일본인 수용소 수감, 한국전쟁 중 중국의 개입으로 중국인들도 수용소에 보내질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고조되었던 사실등과 또한 50년도에 본인이 당했던 인종차별, 60년대의 민권운동, 이민복원으로 인한 아시아인 이민들의 급증, 80년, 90년대의 경제적 성장등을 포함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열거한 뒤, 21세기에 급격히 늘어날 아시아인들의 힘을 함께 모으기 위하여 모두 협력할 것을 부탁하였다. **진행**

A sian American Unity Dinner (AAUD) is an annual event which takes place in May to bring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together to celebrate Asian Pacific Islander American Heritage Month. Proceeds from this event are returned through grants to organizations and agencies whose services benefit the American community.

This year's event was the 14th annual event and was held at Boston Park Plaza Hotel on 5th of May, about 500 attending. 30 Koreans from KACL and Korean American Medical Services Association attended the event. After the opening address from the co-president Mimi Chiu, the ceremony was led by Janet Wu from Ch. 5. Boston Mayor Thomas Menino addressed to the attendees commending Asians who have contributed themselves to the betterment of American society in general.

During the dinner there were many performances of the traditional dances from China, Japan and Korea. Especially the fan dance and drum dance performed by Choi Sinae were the highlights of the evening's entertainment.

After the dinner, the AAUD fund, totaling \$16,000, were awarded to five organizations around Boston area communities. The Korean American Medical Services Association which received \$4,000 was one of them for their medical services to the Korean elderlys. This year's Achievement Award went to Professor Narayanamurti, dean of the Nature and Science Department of Harvard University. This award was presented by Dr. Hong Kyun Choi, the award committee head, who was the former KACL president.

The Community Service Award went to Mr. Yang Kil Kim (former KACL president) for his outstanding service to KACL and the Korean community in general. The officers and the board members of the KACL are thankful for this

award from AAUD and congratulate Mr. Kim for his services and achievements.

Mr. George Ong, who is the president of the Organization of Chinese Americans, was the keynote speaker. He was born in San Francisco and lived through all those historical events like the transcontinental railroad works where so many Chinese laborers suffered, U.S. Immigration law which prohibit the immigrants from Asian countries, World War II during which many Japanese were sent to the concentration camps, Korean War during which many Chinese were afraid that they might be sent to the camps like Japanese in WWII since Communist China sent their troops to the Korean front.

Also he mentioned about the racism he suffered during 50's, the civil rights movements in 60's, sudden increase of Asian immigrants after the new immigration law, and the fast economic growth in 80 and 90's. Finally he strongly urged that all Asian communities should join hand to hand to raise our unified voices and make them heard in this society in order to live with the equal rights as other nationalities not only in political aspects, but also in economical and cultural aspects as well.

KACL

AAUD
Mission Statement
"To provide leadership in promoting unity and shared heritage among Asian American communities and organizations in Massachusetts in order to enhance their social and economic growth"

아시아인을 위한 반가정폭력 봉사회는 아시아인 사회에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사실인가를 알리며, 가정폭력을 없애고 각 가정에 화목을 도모하며, 나아가서는 아시아인 지역사회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하여 1987년 중국인 쟁임탄(Cheng Im Tan)목사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설립당시에는 완전히 자원봉사자(volunteer)들에 의해서 아시아인 지역사회에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또한 보스턴 주위에서 운영되고 있던 봉사단체(shelter)들이나 병원, 경찰서에 아시아인들의 생활과 문화의 다른 점들을 알려서 그들이 아시아인들의 생활태도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아시아인들에게 알맞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활동을 하였다.

봉사활동이 확장되면서 1992년부터는 기부금과 후원금을 모으기 시작하여 1994년에는 뉴잉글랜드에 유일한 아시아인들만을 위한 보호소(shelter)를 시작하였다. 봉사 초기에는 인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로 베트남인과 캄보디아 및 중국인 사회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였으나, 현재에는 일본, 인도, 남아시아, 그리고 한국등 전 아시아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언어장애를 없애기 위하여 9개국어를 대변할 수 있는 변호인들이 일하고 있다.

Website를 통해서 한국에서까지 문의가 오는가 하면 전 미국에서 문의가 오고 있다. 매년 보호소를 이용하는 가족이 30여 가족에 달하며, 보호소를 이용하지 않고 상담이나 다른 도움을 받는 사람은 거의 천명이나 된다. 1996년에 가정폭력으로 죽은 아시아 여인이 매사추세츠 전체 사건의 10%이었고, 1997년에는 18%로 아시아인이 주 전체 인구의 3%밖에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교육과 봉사사업을 통해서 1998년에는 사건이 6%로 줄었다니 너무나 반가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대신 이 봉사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는 36%로 증가하였다. 많은 아시아인들이 아내를 때리거나 폭력을 가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구타당하는 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착각하거나 또는 언어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쉽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이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학대 또는 경제적인 압박도 포함되며 꼭 아내만이 아니라 부모나 자식의 학대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피해자를 위해서 이 봉사회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의 활동을 하고 있다.

1) 응급 보호소 및 변호사업 (ASAP: Asian Shelter and Advocacy Project)

24시간 한국어로 응급상담(hotline)을 전화로 할 수 있고 심한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는 보호소를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와 어린이들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최고 2개월까지 머물 수 있다. 보호소에 있는 동안 변호인을 통해서 법률이나 의료상담을 할 수 있고, 주거지 마련이나 사회복지혜택도 알선해주며, 정신건강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또 피해자가 독립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이나 직업교육에 대한 소개와 정보 제공, 직장 소개, 육아기술지도, 또는 이민자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등으로 자신을 길러주고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2) 안전보호소(Safe Home)

최근에 참가된 활동으로 단기간(2주)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이다. 아이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3) 안전사업(Project Safe)

주로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아시아인 사회내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묵인과 무관심을 줄이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기 위한 활동이다. 각 종교단체를 통해서 또는 지역사회의 모임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운동을 벌이고 있다.

4) 로웰 아시아인 홍보 및 변호사업(The Lowell Asian Outreach and Advocacy Project)

특히 남동부 아시아인이 많이 거주하는 로웰지역내에 영어 및 모국어로 변호와 응급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과 친구를 떠나 멀리 이국땅에서 외롭게 고생하는 이웃에게 이런 무료봉사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무관심하게 방관하지만 말고 한 이웃 가정만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이웃이나 친지를 도우는 의미에서 이 봉사단체를 위하여 봉사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자원봉사를 하던가 경제적인 지원으로 도울 수 있다. 일년중 가장 큰 모금운동인 Silk Road Gala가 오는 10월 22일에 있으며 작년에는 700여명이 모였고, 보스톤시장인 Menino도 매년 참석하여 적극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정보를 원하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하기를 바라고 있다.

Hotline: 617-338-2355
Information: 617-338-2350
Website: www.atask.org
E-mail: asiandv@atask.org

한국인 변호인
Hyun Jung Lee: 617-338-2352
이사
Dong Hee Ahn: 781-862-7740



This past year our work has focused primarily in two areas. These were the election of Charithy (Rithy) Uong to the Lowell City Council, and preparation for our Agenda conference.

The Asian Pacific American Agenda Conference will be held in October of this year, APAAC will renew its accountability to our constituent communities. We will also develop a political strategy to elevate the Asian American communities to the next lev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Hopefully new community members interested in electoral activities will become active through the conference. We invite all member of KACL to participate and advise APAAC on its course over the next few years.

In the election of Rithy Uong to the Lowell City council, many APAAC members donated to his campaign and volunteered to help with registering new voters in Lowell.

Rithy's election was important in two ways. First, Rithy is a pathbreaker. He is the first Cambodian American to achieve this level of office in the country. He is the first Asian American to be elected and presently the only person of color on the council. With his victory, Rithy assumes the highest position of an Asian American elected official in the state. We hope that Rithy's election, like those of Amy Mah Sangiolo in Newton, Dan Lam in Randolph, will encourage other Asian Americans to seek office.

Second, Rithy's election mobilized his community. Through his campaign's efforts, registration rates among Asian Americans in Lowell leaped from 700 to over a thousand. These registration rates, if maintained, provide the basis for more Asian Americans to run for office in the area.

Other than these two major efforts, we also held the first panel of Asian American elected officials in the state. This event,

held collaboratively with the Institute for Asian American Studies at UMass-Boston, was very well received. Selectman Dan Lam, Alderman Amy Mah Sangiolo, and Rithy Uong engagingly reviewed their experiences and insights. We also continued our annual candidates' report card, focused on Boston's city council race last year.

Finally, we have strengthened organizationally, growing financially and numerically. We have added to our part time staff. We expect to expand our fundraising and to speak out on more issues. **KACL**

아시안 태평양 정책 연맹(APAAC)에서는 전년도에 두가지의 큰 일을 하였다. 그 하나는 로웰시의원에 채리티 (리티) 우옹이 당선된 것이고 또 하나는 정기총회의 준비였다.

APAAC의 올해 정기총회는 10월에 개최되었는데 연맹에 가입된 지역사회들의 인구를 새로 계상할 것이며, 또한 아시아인 사회가 한단계 높은 차원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려고 한다. 새로 가입한 지역사회 회원들이 우리 연맹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시민 협회의 모든 회원들도 초청하오니 참여하여 앞으로 몇 년간 APAAC의 나아갈 길에 좋은 충고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리티 우옹씨의 로웰 시의원 선거에 많은 APAAC 회원들이 선거 운동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로웰시의 신규 선거권자의 등록을 도왔다.

리티의 선거 당선은 두 가지의 중요성이 있다. 첫째로 리티는 지금까지의 기록을 경신하였다. 리티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처럼 높은 공직에 선출된 캄보디아인 아메리칸이 되었다. 시의원으로서 선출된 최초의 아시아인 아메리칸이며 현재 유일한 유색 시의원이다. 매사추세츠주에서 가장 높은 공직의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이다. 뉴턴시의 에이미 마 산지올로 및 랜돌프시의 단 램과 함께 리티의 선거로 인하여 다른 아시아인 아메리칸도 더 많이 공직을 가질려고 노력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둘째로 리티의 선거는 그의 지역사회를 움

직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을 통하여 로웰시의 캄보디아인들의 등록율은 기타 아시아인 아메리칸에 비하여 700명에서 100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대로 이 선거권자 등록율이 유지된다면 더 많은 아시아인 아메리칸이 이 지역의 공직을 갖게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최초의 이 두가지 중요한 사건 외에도 주내의 아시아인 아메리칸 공무원들의 회의를 처음으로 주관하였던 바 이는 보스톤 UMass 대학의 아시아인 아메리칸 연구소와 협조하여 이루어졌는데 반응이 대단히 좋았다. 단 립, 에이미 마 산지올로와 리티 우옹의 세사람은 그들의 경험과 통찰력을 서로 나누는 귀한 기회가 되었고, 또한 지난 해에 열린 보스톤 시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들의 보고서도 계속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맹은 재정적으로도 자랐고 또 회원의 수도 증가하여 힘있게 발전하고 있다. 파트타임 직원도 고용했고 기금 모금운동도 확대하려고 하며 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의 소리를 들리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형**

(한국어 번역: 이의인)

류씨는 UMass Boston의 아시아인 아메리칸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가상 구조 및 기술회사」의 사장으로 있다. UMass Boston에서 공공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차이나타운 태생으로 보스톤에서 25년의 지역사회 봉사경험이 있다.

Mr. Liu works as a research associate at the Institute for Asian Americ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of Boston and is the President of Virtual Organizing and Technologies, a business and organizational services company. Mr. Liu received his Ph.D. in Public Policy from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of Boston. A native of Boston Chinatown, he has a twenty five year history of community work in Boston. He is the former Executive Director of the Asian American Resource Workshop.

The United State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enforces four federal civil rights laws. Namely,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he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of 1990, the Equal Pay Act of 1963 and the Age Discrimination and Employment Act of 1967. If you believe you have been discriminated against by an employer, labor union, or employment staffing agency when applying for a job or while on the job because of your race, color, sex, religion, national origin, age or disability, you may file a charge of discrimination with EEOC. Charges may be filed in person, by mail or by telephone by contacting EEOC's Boston Area Office which has jurisdiction over employers located in Massachusetts, Connecticut, Rhode Island, New Hampshire and Vermont. EEOC resolves a charge of discrimination through administrative and judicial enforcement of the federal civil rights laws at no cost to the complainant.

EEOC's mission and goal is to eradicate employment discrimination and promote awareness of the equal employment laws. EEOC has helped many people enforce their federal employment rights in court. For example, in Vang Nguyen and EEOC vs. American Seafood Company, "The suit alleged that the defendant, an operator of fish processing in the Bering Sea, subjected its Vietnamese American at-sea workers to an ethnically hostile work environment, discriminated against them 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ir employment and in wages, training and promotional opportunities, and terminated them because of their national origin. The case was resolved through a consent decree providing \$1.25 million to 18 individuals." In EEOC vs. Dental Network of American, Inc., "The suit claimed that the defendant denied one of its programmers a promotion to a system coordinator position because of her sex and because of her national origin (Asian Indian). The case was resolved through a consent decree which provided the individual with \$40,000.00 in compen-

satory damages." Source: White House Initiative on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s: Requirement to Prepare an Agency Strategic Plan for FY 2001-2003, August 22, 2000.

You can get more information about EEOC by logging onto the internet at www.eeoc.gov or by contacting Feng An (Kenneth), Asian Liaison Coordinator for the Boston Area Office EEOC, at 1-800-669-4000 or 1-617-565-3200/3216, between 8:00 a.m. and 4:30 p.m., Monday to Friday. You can also visit Kenneth at his office conveniently located at the John F. Kennedy Federal building, room 475, in Boston, Massachusetts. Remember, you have a right to work in an environment free from employment discrimination. **KAC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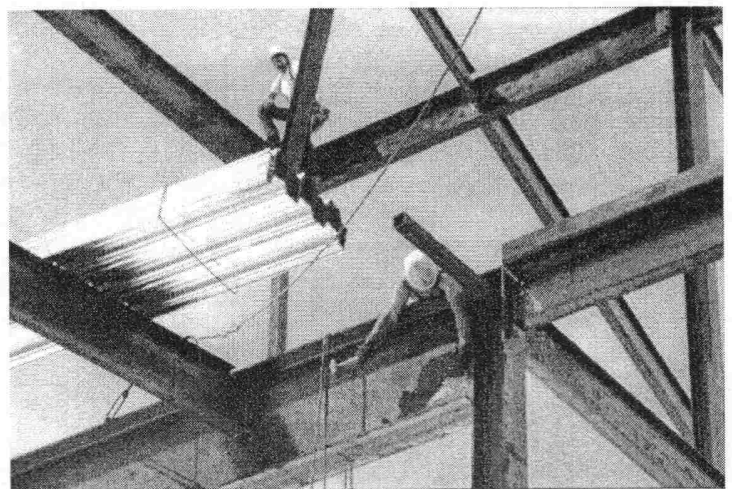
미연방 평등취업기회 위원회(EEOC)에서는 다음 4개의 연방 민권법을 준수하고 있다. 1964년의 민권법 제7조, 1990년의 장애인 보호법, 1963년의 평등 봉급제, 그리고 1967년에 제정된 연령차별방지법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직업을 구하거나 직장에서 인종이나 피부색, 성별, 종교, 국적 연령 또는 장애등을 이유로 고용주나, 노조 또는 고용대리업체로부터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EEOC에 제소를 할 수 있다. 직접 찾아오거나 편지 또는 전화로 보스턴지역 사무실에 연락을 하면 되는데 이 사무실은 매사추세츠, 코네티카트, 로드아일랜드, 뉴햄프셔 및 버몬트주에 있는 모든 고용주들을 관할하고 있다. EEOC는 차별에 관한 제소에 대하여 제소자들에게는 무료로 연방 민권법의 행정적 또는 입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EEOC의 설립 목적은 고용차별을 없애고 평등 고용법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EEOC에서

는 법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연방고용권을 찾도록 하여주었다. 예를 들어 베링해협에서 어류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American Seafood Company와 Vang Nguyen 및 EEOC 사이의 제소건에 대해서는 "피고는 해상에서 일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인종적으로 적대적인 노동조건을 만들어서 고용이나 임금계약, 교육 또는 진급기회에 불리하도록 차별하였으며 국적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시켰다"고 판결하였으며 합의하에 이에 관련된 18명의 원고에게 \$125만불의 보상을 하게 하도록 하였다. 또한 EEOC와 Dental Network of American, Inc와 의 제소건에 대하여 "피고는 한 프로그래머가 여자이며 국적이 인디언이라고 하여 시스템 코오디네이터로 승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판결하였으며 합의하에 원고에게 4만불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자료: 아시아인 아메리칸과 태평양 군도인들을 위한 백악관 시행령: 2000년 8월 22일에 제정된 2001-2003년 회계연도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전략적 계획안)

EEOC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 주소 www.eeoc.gov에 들어가거나 EEOC 보스턴 지역 사무소 아시아 연락 담당자인 펑(케네스)안씨에게 아래 전화번호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800-669-4000 혹은 617-565-3200/3216으로 연락하면 된다. 또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JFK연방청사 475호실로 직접 안씨를 찾아가도 된다. 고용차별이 없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시행**

(한국어 번역: 이의인)



This past summer, I had the wonderful opportunity to work as an intern at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in Boston, Massachusetts. As a college student interested in attending law school upon graduation, I found the 10 week summer internship experience most rewarding because I got to view and experience firsthand what it is that public interest lawyers do. Although they may not be as rich as their corporate law counterparts, it seems to me that public interest lawyers working for the government possess a genuine satisfaction with the knowledge that they are helping in the betterment of society.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had an extensive summer internship program where I became acquainted with some college students and even a high school student, but the majority of interns were first-year law school students eager to offer advice to a humble undergraduate like myself. I took part in various information sessions that were part of the program and learned about all the different divisions of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and their functions, some issues faced by the Attorney General, and even how to research legal material through computer programs.

My primary source of guidance, however, came through Assistant Attorney General Chi Chi Wu of the Consumer Protection and Antitrust Division (CPAD) who I worked closely with. The CPAD, a division of the Public Protection Bureau, focuses on defending the rights of consumers that have been victimized by deceitful business practices. Cooperating with Local Consumer Programs (LCP), the CPAD also provides services, from information packets to litigation in court, for citizens of the Commonwealth. In addition, I observed that the CPAD works hard in ensuring that future laws and court decisions do not have a detrimental effect to denizens of Massachusetts.

My mentor, Chi Chi Wu, provided me with a glimpse of what goes on in the

CPAD by providing me with myriad pertinent tasks. I spent a lot of time researching on the Internet and investigating questionable sites. I took part in a national sweep day for companies involved in credit repair scams. I was placed in charge of preparing the distribution of foreign language consumer protection packets to numerous Massachusetts programs, including the LCPs. I assisted with the setup of these packets into the Massachusetts Attorney General's Office homepage. Along with these activities and others, I was also fortunate enough to witness actual court cases dealing with significant issues of the day.

Perhaps the most encouraging moments of my internship came when I got a chance to meet with many Asian American lawyers through the Asian American Lawyers Association of Massachusetts (AALAM), of which I was introduced by Chi Chi Wu. It was good to see that there is an increased interest among Asians to pursue law in this country. In that light, I applaud the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in their initiative to bestow political internships to students and to promote public interest positions by providing Korean-Americans with an avenue in which to gain access. I would like to thank the KACL, from the bottom of my heart, for granting me this edifying experience and for giving me the gentle nudge I needed to pursue public interest law as a career. KACL

지난 여름동안 나는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있는 검찰총장의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졸업후 법률학교에 다니기를 희망하는 대학생인 나로서 내가 지난 여름 10주 동안 인턴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대민관계 변호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보며 또 경험할 수 있었던 아주 보람있는 일이었다. 기업관계 변호사들만큼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정부기관을 위하여 대민관계를 다루는 변호사들은 사회의 개선과 복지를 위하여 일한다

는 만족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검찰총장 사무실에서는 여름 방학동안 다양한 인턴과정이 있었고 나는 많은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고등학교 학생들과도 친분을 나누게 되었다. 그러나 인턴의 대부분은 나와 같은 대학생들에게 조언을 하기를 원하는 5년제 법률 대학의 학생들이었다. 나는 인턴과정의 한 부분으로 여러 정보 교환강좌에 참석하였고, 검찰총장 사무실의 여러 다른 부서와 그 기능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으며, 검찰총장이 당면한 문제들이 무엇이며 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문서들을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었다.

나를 전적으로 돌보아준 사람은 검찰총장보 Chi Chi Wu였는데 이분은 소비자 보호 및 복점방지구 (Consumer Protection and Antitrust Division: CPAD) 담당이었다. 소비자보호국의 한 분과인 이 부는 불법적인 상행위의 희생이 된 소비자들의 권리를 변호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각 지역 소비자보호 프로그램과도 연함으로 주민들을 위하여 정보제공과 법원에서의 대변도 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제정될 법이나 법원에서의 판결이 매사추세츠주 소비자들의 권익을 해치지 않도록 힘을 쓰고 있었다.

Wu씨는 이 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임무들을 나에게 제공하여 줌으로서 이 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인터넷에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이트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였으며 나쁜 신용을 좋게 해준다는 속임수를 쓰고 있는 회사들을 제거하는 일도 하였다. 각 지역 소비자 보호단체를 포함한 주내의 여러 단체들에게 외국어로 번역된 소비자 보호 정보들을 보내는 일을 담당하였고 이 정보들이 검찰총장 사무실의 homepage에 뜰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실제로 법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Wu씨가 소개하여서 AALAM(매사추세츠 아시아인 아메리칸 변호사협회)에 속한 여러 아시아인 아메리칸 변호사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아마 가장 인상깊었던 일 이었던 것 같다. 미국 내에서 이 방면에 아시

(41 페이지로 계속)

During a time when most Americans view Washington as in a state of gridlock, where slim Republican majorities in Congress, a Democratic White House, and an election year atmosphere halted substantive legislative action, I was more than surprised by what I found in the Senate offices on Capitol Hill. This past summer, I was fortunate to work with and learn from the enthusiastic and devoted staff of US Senator John Kerry, Democrat from Massachusetts. In a Senate office, work does not slow down because bills are stalled in various committees: the demands of your constituents constantly keep you busy in search of better serving their needs and concerns. Legislative assistants feverishly researched policy solutions to common problems of Bay States, working with the Senator at crafting pieces of legislation on a diverse range of issues: taxes, education, AIDS in Africa.

I was placed to work in policy areas that most interested me: foreign policy, environment and health care. I had gained exposure to these areas from my research as a member of the Harvard Debate Council. Since my tenure as a legislative intern I witnessed the first summit meeting between Kim Jong Il and Kim Dae Jung, and I had an extensive background on security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I was assigned to write a memo for the Senator detailing the implications of the meeting upon the geostrategic balance between the Koreas, on the "rogue" threat of North Korea, and its effects on plans for a National Missile Defense system. Such experiences gave me a chance to work with legislative assistants to see what they do for the Senator on a daily basis.

Washington during the summer is filled with eager college students, looking to get their first taste of civil service. One thing I did notice was the disparagingly small numbers of minority students, especially those of Asian American background. I

am not quite sure why this is the case: as our numbers grow within the patchwork of American society, we should seek to ensure that our voices are heard, and that those individuals holding our nation's highest offices truly reflect our nation as a whole.

Meeting the nine women Senators, as well as Attorney General Janet Reno inspired me to pursue a career as a civil servant. Surely, given that women are half of our country's population, there should be at least fifty women Senators. These were ten women who beat the odds of a glass ceiling, rose above the challenges that society had imposed upon their abilities, and had established themselves as influential individuals on the forefront of national policy. However, nine out of one hundred is unacceptable: there is still much work to be done. The challenge exists as well for Asian Americans in politics. Dedicating one's life to public policy is among the noblest professions: the job is designed solely to secure the welfare of one's fellow citizens, and improve society as a whole. Young Americans, like myself, should eagerly pursue such ends. **KACI**

대개의 미국인들이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약간의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고, 또 선거가 있는 해이므로 입법사무가 거의 정지된 위상론을 서로 짝 얽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이 때에, 나는 국회의사당이 있는 상원의원 사무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 지난 여름에 나는 매사추세츠 주의 민주당 출신 존 캐리 미연방 상원의원의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참모진과 함께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다. 상원의원의 사무소에서는 법안들이 여러 위원회에서 계류중에 있다고 하여 사무 자체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민들의 요구와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모든 일들이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입법참모들은 세금이나 교육, 또는 아프리카의 AIDS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입법을 상원의원과 함께 준비하며, 또한 주민들의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대외정책 및 환경문제와 건강복지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는 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내가 Harvard 토론자문 위원회(Debate Council)의 일원으로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을 대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인턴으로 일하면서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주석의 일차 정상회담을 목격하였으며 한반도의 안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논제들을 많이 알고 있

최은영양은 하버드대학 3학년생으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의 렉싱턴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하버드 대학에서는 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즐기며 또한 다른 학생들을 돕고 있다. 국내토론회에 하버드를 대표하여 두 번 참석하였다. 현재 캠퍼스 내에서 가장 오래된 과외활동기구인 하버드 토론위원회의 주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여가로 렉싱턴 고등학교 토론팀의 코치로도 일하고 있다. 대외정책 및 사회정책에 대한 미소경제학의 응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Eun Young Choi is a junior concentrating in Economics at Harvard University. She graduated from Lexington High School in Lexington, Massachusetts. At Harvard, she enjoys attending events at the Institute of Politics and tutoring other Harvard students. She has represented Harvard twice at the National Debate Tournament, and currently serves as the captain of the Harvard Debate Council, one of the oldest extracurricular organizations on campus. In her spare time, she coaches the Lexington High School Debate Team. Her interests include foreign policy and microeconomics applications on social policy.

었기 때문에 캐리 상원의원을 위하여 이 회담이 한반도에서의 전략적인 균형이나 북한의 도발적인 위협, 또는 이 북한의 위협이 미국내 미사일방위체계의 계획에 끼칠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메모를 쓰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입법참모들이 상원의원을 위하여 어떻게 하루 일과를 보내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다.

여름동안 워싱턴은 자원봉사를 하기위한 열성적인 대학생들로 붐비는데, 한가지 발견한 것은 아시안 아메리칸 배경을 가진 소수민족 대학생들이 아주 적었다는 것이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미국사회에서 우리 민족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들의 소리도 들릴 수 있도록 하여 나라의 최고 직책을 가진 자들이 문자 그대로 모든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홉명의 여자 상원의원과 연방 검찰총장인 재닛 리노와 만난 후에 나는 나도 이런 공무원

이 되기를 원하게 되었다. 이 나라 인구의 반이 여자일진대 상원의원의 반도 여자여야 될 것이다. 이 10명의 여자야 말로 "유리천장(glass ceiling)"의 확율을 깨고 이 사회가 여자들에게 부여한 능력의 한계를 넘어 국가정책의 최선에서 영향을 끼치는 개인들로 세계된 여자들이다. 그러나 100명중 9명의 여자 상원의원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데도 많은 장벽이 있긴 하지만, 타 시민들의 복지를 확고히 하며 사회를 하나로 개선해 나가는 이러한 공적인 정치적인 업무에 한 사람의 일생을 바친다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직업일 것이다. 나 자신과 같은 젊은 미국시민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시현] (한국어 번역: 이의인)

정치 인턴 보고

엄성훈

(35페이지에서 계속)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인 듯 싶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인턴들을 파견하고 또한 한인 미국인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여 주고 있는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시민협회에게 박수를 보낸다. 대민관계 변호사로 일하기를 마음먹기로 한 나에게 꼭 필요한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준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시민협회에게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 [시현] (한국어 번역: 이의인)



편집 후기

무슨 일이든지 대개 처음하게 되면 힘들고, 또 이제까지 한번도 해보지 않던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게되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해야한다. 따라서 두번째는 첫 번째보다 조금 쉽고 또 세 번째는 더 쉬워지는 것이 보통인데 올해의 협회지는 왜 그런지 지난 번보다 잘 안되는 것 같다. 원고를 쓰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광고를 내달라는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마감시간 전에 원고나 광고 문안을 보내주어야 할 터인데 몇번씩이나 독촉을 하고 연락을 하는 데도 좀처럼 협조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협회나 이가 벌써 10년인데 그동안 강산이 너무 변하여 일하던 사람들이 지쳤든지, 아니면 그만큼 관심이 없어졌든지, 혹은 신경이 무디어졌든지, 그것도 아니면 이 한 세상 살기가 너무나 바빠졌든지 이 중에 하나임이 분명하다.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며 준비해야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협회에 대한 태도나 협회의 설립목적에 대한 인식도를 새롭게 하여야 하겠다.

요즘 인터넷으로 한국 사이트와 미국 사이트를 번갈아 왔다갔다 하며 비교해 볼 때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다. 미국사이트에 가면 공간이 많고 simple하면서도 있을 것은 있을 곳에 다 있는데, 한국 사이트들은 뭔가 모르지만 좁은 공간에 꼭 찬 기분을 주는 곳이 흔히 보이고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또 정작 뭘 하나 찾으려면 여기 저기 뒤져보아야하지만 찾게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 역시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차이점이 아닐까 한다. 물자가 풍부한 미국에서는 몇 페이지를 더 만들더라도 보기 쉽게, 찾기 쉽게 만들려고 하는데 반해, 우리 한국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집어넣어 한 페이지라도 절약하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은 빠뜨리는 그런 경우인 것 같다. 부족하고 없던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들이기 때문일까. 램지 림교수의 6.25전쟁의 유산에 관한 여러 한국인들의 증언이 뼈아프게 느껴진다. 이제는 미국이라는 넓고 큰 바다에서 큰 물고기들과 놀면서 크게, 대범하게 사는 법을 배울 때도 된 것 같다. 그렇다고 물론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미국사람이 되자는 것은 더욱 아니다. (이의인)

2000년도 회비 납부자 (99년 10월 이후) (\$2,390)

윤종열, 김정자, 주지숙, 우시창, 이영옥, 유영철, 윤봉서, 강유진, 박미자, 윤정우, 박정윤, 이경해, 이덕성, 밍 동, 김양길, 김진희, 김명기, 김선미, 권정자, 김병도, 김인성, 장세중, 장혜담, 강경신, 류필모, 신좌경, 최도철, 최향숙, 윤상래, 노명호, 이윤희, 박정수, 김진동, 김영기, 박준재, 이영숙, 주봉갑, 한운영, 김갑동, 한권리, 한순영, 정상무, 임나경, 박녹자, 박기춘, 이윤주, 김연숙, 김경희, 도운희, 이 Sam, 김원옥, 이유자, 이병현, 이정자, 이슬기, 김수임, 최영옥, 강태요, 강희숙, 전정순, 이운철, 곽홍배, Theresa Dolan, 임선희, 이인숙, 진봉순, 김봉천, 황동진, 김필연, 김준연, 최유정, 박병윤, 박효정, 고광숙, 윤명호, 오경실, 한상만, 김순애, 장정우, 장정운, 홍경엽, 문석남

박필수 부부, 이경철 부부, 김영기 부부, 최원길 부부, 서해수 부부, 이요셉 부부, 윤상래 부부, 최홍균 부부, 김인수 부부, 김은기 부부, 김기석 부부, 강세현 부부, 김양길 부부, 김유상 부부, 김정선 부부, 박석만 부부, 오수택 부부, 신정수 부부, 윤익중 부부, 이훈재 부부, 이춘화 부부, 조봉준 부부, 한선우 부부, 이의인 부부, 김은한 부부, 이동익 부부, 임영호 부부, 정명철 부부, 이경해 부부, 윤영훈 부부, 남 일 부부, 김명기 부부, 박경민 부부, 안병화 부부, 박정수 부부, 이상우 부부, 백흥기 부부, 방선욱 부부, 최영훈 부부, 오순신 부부, 정정옥 부부, 정태진 부부, 강경식 부부, 장창섭 부부, 심재철 부부, 박영철 부부, 임현수 부부, 강경희 부부, 윤은상 부부, 임인화 부부, 박대위 부부, 김기자 부부, 김성군 부부, 남궁정자 부부, 최낙철 부부, 김성빈 부부, 김선혁 부부, 김문소 부부, 정인석 부부, 이배훈 부부, Stephen Bacher부부, David Perley 부부, Robert 신 부부, 김 Chong 부부

AAUD 참석자 (\$900)

정치 인턴 모금 파티 기부금 (\$9,090)

이사회비 납부자 (\$8,350)

이경해, 김양길, 김문소, 이상우, 김금련, 김진동, 김은한, 최영훈, 송기백, 김명기, 김관수, 이의인, 신상철, 최낙철, 박경민, 최원길, 오수택, 최홍균, 박대위, 정인석, 김성군, 김연숙, Benjamin Kim

찬조비 납부자 (\$7,020)

강희숙, 곽홍배, 김병국, 김수임, 김연숙, 김은기, 김춘순, 김현수, 남궁정자, 노영석, 다 빈, 박대위, 박정수, 박필수, 서상우, 신상철, Robert 신, 안남열, 안병화, 오상철, 유니버시아여행사, 유영철, 윤영훈, 윤종열, 윤창선, 이영숙, 이윤희, 임나경, 이상우, 이재신, 전정순, 주지숙, 보스턴 총영사관, Sang H. Choe, 한석훈, 한승희, 홍성도, Beanie Baby Sale, Boston Realty Trust, LOKA, Pro-Tech, 김봉천, 황동진, 김필연, 김준연, 최유정, 고광숙, 윤명호, 오경실, 한상만, 김순애, 홍경엽

Grant (\$1,350)

MAAFUD, KEAS

회지 광고 찬조 (\$9,925)

이경해 부동산, Captain Boston Fish, 민주평통 자문회의 보스톤지역 협의회, 뉴잉글랜드 의사협회, 임나경 심리상담소, 김문소 수의과, 모나미 회원, 청계 식품, 뉴잉글랜드 경제인 협회, 큰나무 인쇄소, 김성군 변호사, 광개토 한의원, 방선욱, 코리아 여행사, 한은애 교정치과, 우촌, Asian American Bank, 유니버시아 여행사, 보스턴 한인 천주교회, 북부 보스톤 교회, 퀸시 영생 장로교회, 보스턴 장로교회, 보스턴 한인교회, 로드아일랜드 중앙한인교회, 영광 순복음교회, 보스턴 성결교회, 문수사, 보스턴 소망교회,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조종운 종합보험, 뉴잉글랜드 세탁인협회, 김연숙 재정계획, Bank Boston, 김세경 보험, 도레미 Music Studio,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동일 한의원, Asiana Grille, 이현주 회계사, 리틀 부산, Park Autobody, 태양자동차, 신영목 치과, 뉴장수갈비, Daniel Brinsky, Anderson Florist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이하 본회)라고 부른다.

제2조: 위치

본회의 관할 지역은 뉴잉글랜드로 하며, 본회의 사무소는 대 보스톤 지역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한인 미국 시민의 미국 정치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2. 한인 미국 시민의 법적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적극 추진하며, 시민권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주권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한다.
3. 한인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을 확대하며, 사회 부조리 개선에 적극 참여한다.
4. 한민족의 역사적 전통을 유지, 보존하여 후손에 계승, 개발케 함으로써 민족적 긍지를 잃지 않게 하고,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5. 한미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다.

제4조: 사업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를 권장한다.
2. 한민족과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원한다.
3. 한민족의 권익에 관련된 법률의 의회 통과 및 통과 반대를 위한 합법적인 로비 활동을 한다.
4. 한민족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인사에 대한 청원서, 서신 등을 송부한다.
5. 한민족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한 합법적 행사를 한다.
6. 한민족의 가정 보호, 청소년 선도 및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제5조: 뉴잉글랜드 한인회와의 관계

본회는 뉴잉글랜드 한인회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분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미국 시민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

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사람.

2. 준회원: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미국 영주권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사람.
3. 특별회원: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사람으로써 회장단 또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 받은 사람.

제8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고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결의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제9조: 정권 및 제명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사회에서 자격 정지 또는 제명을 결의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칙 및 세칙을 위반한 사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3.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10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임원회로 나눈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 회원 1/3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2. 임시 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4주 이내에 소집하며, 재적 회원 1/3 이상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임시 총회가 불가능할 때는 우편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또는 재직 이사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의 재직 이사 출석으로 성회된다. 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회의 2주 전까지 심의 안건을 기재한 통지서를 이사회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우편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4.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당연직 이사, 분과 위원장, 지역 간사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5.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의 기능

1. 정기 총회는 이사회에서 결의 혹은 승인

한 사항 외에 다음의 회무를 처리한다.

- 가. 전년도 결산 및 사업 보고
- 나. 신년도 예산 및 사업 계획
- 다. 회장, 부회장 및 이사 선출
- 라. 헌장 개정
- 마.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안건
2. 이사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을 연구, 계획하여 총회에 건의하며, 총회 결의 사항의 집행을 협조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가.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추천
 - 나. 사업별 분과 위원회의 조직
 - 다. 분과 위원회의 운영 세칙 인준
 - 라. 헌장 개정 추천
 - 마. 세칙의 제정 및 변경
 - 바. 회원의 가입 (특별 회원 포함), 자격 정지 및 제명
 - 사. 회비 책정
 - 아. 예산 및 결산안 인준
 - 자. 사업 계획 추천
 - 차. 고문의 추대
 - 카. 기타 총회의 인준을 요하는 사항
3. 상임이사회는 이사회 분과 위원장, 지역 간사 및 당연직 이사들로 구성되며, 이사회를 보다 활성화하고 능률화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준비하며, 긴급 사업 계획 및 안건을 심의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4. 임원회는 회장단, 이사회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들로 구성되며, 이사회나 상임이사회에서 결의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방법을 구상하고 집행하며,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보고할 제반 사업 보고 및 처리 보고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심의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5.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상임이사회와 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제12조: 회장단의 구성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사무총장 1명
4. 재무 1명
5. 대변인 1명
6. 섭외 약간명

제13조: 회장단의 선출

1. 회장 및 부회장은 다음 후보중 정기 총회

에서 다수결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총회 30일 전까지 회원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에게 제출한 사람

- 사무총장, 재무, 대변인 및 섭외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4조: 회장단의 임기

-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회장단 중 결원이 생길 때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이다.

제15조: 회장단의 임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정책 결정에 따라 본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임원회를 주관한다.
-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연령 서열에 따라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 기간만 재임한다.
- 사무총장은 본회의 모든 회의록 및 업무 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운영을 위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하며, 총회에 사업 보고를 한다. 사무총장은 유급으로 한다.
- 재무는 회비를 징수하고 본회의 재무를 담당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재정, 결산, 예산 보고를 한다.
- 섭외는 회장 및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를 위한 섭외 활동을 한다.
- 대변인은 회장 및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발표한다.
- 회장단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회장단은 특별 회원을 추천한다.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50명 이내의 선출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감사 2명, 각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를 둔다.

제17조: 이사의 선출 및 임기

- 선출 이사는 다음 후보 중 정기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새로 선출할 이사의 수는 총회 전 이사회에서 정한다.
 가.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총회 30일전까지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에게 제출한 사람
-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선출 이사 중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 이사 임기와 관계없이 2년으로 한다.
- 감사,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는 선출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이사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4년으로 한다.

제18조: 이사의 임무

- 이사장은 이사회와 상임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하고 잔여 기간만 재임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11조 2항의 회무를 의결하며, 분과 위원회에 소속되어 기능을 발휘한다.
-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들은 제4조 사업에 따른 사업들을 각 분과 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여 사업 계획서를 이사회나 상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서기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며 사무총장이 겸임한다.
-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제19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이사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본회의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 지출

본회의 모든 지출은 회장의 결재를 얻어 행하며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장 헌장 개정

제21조

본 헌장은 이사회 또는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 제안으로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칙

- 이 헌장은 총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1996년 현재의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잔여 임기를 재임한다.

개정

- 제정: 1990년 8월 18일 창립 총회
- 제1차 개정: 1994년 10월 1일
- 제2차 개정: 1996년 10월 19일



**Article I
General**

Section 1: Name

The organization shall be known as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referred to as the League hereafter).

Section 2: Location

The League shall perform its activities in the New England area and shall have its main headquarters in the greater Boston area.

Section 3: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e League shall be:

- (1) to encourage Korean-American citize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American politics;
- (2) to enhance the legal status and benefits of Korean-Americans and to firmly establish Korean-Americans as being among the owner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y educating them about their rights and duties as American citizens;
- (3) to strengthen relations among Korean-Americans; to improve thei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tatuses; and to actively work to rectify social injustices;
- (4) to help future generations keep their Korean pride and to contribute a uniquely Korean element to American society by preserving Korean traditions and transferring them to future generations;
- (5) to enhanc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ction 4: Activities

The activities of the League shall be:

- (1) to encourage Korean-Americans to vote and to run for elected positions;
- (2) to support politicians who stand for Korean-Americans and Korea;
- (3) to lobby for and against passage of laws affecting rights of Korean-Americans;
- (4) to submit petitions and letters to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o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s of Korean-Americans
- (5) to engage in legal activities to protect and to promote the rights of Korean-Americans;
- (6) to undertake projects to protect Korean-American homes, guide Korean-

American adolescents, and promote benefits for elderly Korean-Americans.

Section 5: Relationship with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New England

The League shall maintain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New England to promote collaboration.

Article II Membership

Section 6: Membership Classes

The League shall be composed of Regular, Associate, and Special members.

Section 7: Membership Eligibility

Any Korean-American U. S. citizen residing in the New England area who supports the objectives of the League and who has applied for membership may become a Regular member. Any Korean-American permanent resident in the New England area who supports the objectives of the League and who has applied for membership may become an Associate member. Any person supporting the activities of the League who has been recommended by the Executive Body or the Board of Directors and approved at the General Meeting may become a Special member.

Section 8: Obligations and Rights of Members

Members shall observe the Constitution and Bylaws of the League and pay membership dues. All members may vote, but only Regular members may run for elected positions.

Section 9: Suspension and Expulsion

The Board of Directors may suspend or expel from the League any members who have:

- (1) violated the Constitution or Bylaws of the League;
- (2) damaged the reputation of the League;
- (3) have not fulfilled their obligations as members of the League.

Article III Organization

Section 10: Meetings

The League shall hold the following meetings:

- (1) The annual General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President in the October of each year. The General meeting shall require the attendance of one-third of all members or at least one hundred members, whichever is fewer.
- (2) A Special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President within four weeks of when the Board of Directors has deemed it necessary. It shall require the attendance of one-third of all members or at least one hundred members, whichever is fewer. However, if it is not possible to hold such a meeting, a mail-in ballot may be substituted.
- (3)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when the Chairperson, President, or more than one-third of the Directors deem it necessary. It shall be held at least twice a year, and shall require the attendance of more than one-half of the Board. The Chairperson shall send out a notice of the meeting and its agenda at least two weeks before the meeting date. If it not possible to hold the meeting, a mail-in ballot may be substituted.
- (4) The Standing Committee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Chairperson when the Chairperson or one-third of the Committee chairs and local representatives request it. It shall be held at least twice a year,
- (5) The Executive Committee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President at least twice a year.

Section 11: Meeting Functions

- (1) The agenda of the General Meeting shall consist of the following:
 - a. report of the statement of the previous year's accounts and activities;
 - b. report of the following year's budget and plans;
 - c. election of the President, Vice Presidents, and Directors, if necessary;
 - d. any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 e. any other items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 (2)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study and plan all projects necessary for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e League and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General

meeting. The Board shall support the President in executing the decisions made at the General meeting. In addition, the Board shall take charge of the following:

- a.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for the offices of the President, Vice Presidents, and Directors;
 - b. organization of committees;
 - c. approval of Bylaws for committees;
 - d. recommendations for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 e. enactment and amendments to the Bylaws;
 - e. admission of new members, including special members, and suspension and expulsion of members;
 - f. determination of membership dues;
 - g. approval of drafts for the budget and account statements;
 - h. recommendation of plans for the coming year;
 - i. recommendation of advisors;
 - j. introduction of any other items to the General Meeting that the Board deems necessary.
- (3) The Standing Committee shall consist of Committee chairs, local representatives, and members of the Executive Body. It shall prepare for the Board Meeting and make plans for urgent projects, which shall subsequently be ratified by the Board.
 - (4) The Executive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Executive Body, Committee chairs, and local representatives. It shall study effective methods of executing the items decided upon at the Board meetings, and then it shall be in charge of their execution. It shall also discuss the projects, budget, and account statements to be reported to the General, Board, or Standing Committee meetings, and oversee the execution of other necessary items.
 - (5) In an emergency or necessities, the President, after consulting with the Chairperson, may call a joint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and the Executive Committee.

Section 12: Composition of the Executive Body

The Executive body shall consist of one President, two Vice Presidents, one Executive Director, one Treasurer, one Spokesperson, and a few Public Relations

Officers.

Section 13: Selection of the Executive Body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s shall be elected from among the following candidates:

- a. Persons recommended by the Board;
- b. Persons who have submitted to the Chairperson a petition signed by more than fifty members at least thirty days before the annual General meeting.

The Executive Director, Treasurer, Spokesperson, and Public Relations Officers shall be nominated from the Regular members by the President and confirmed by the Board.

Section 14: Terms for the Executive Body

The Executive Body shall serve for two years. If one of the members resigns before the term expires, a replacement shall be nominated by the President and confirmed by the Board. The term for such members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Section 15: Duties of the Executive Body

- (1) The President shall represent the League, execute the decisions of the Board, and be in charge of the operation of the League.
- (2) The President shall be the Chairperson of the General meeting and preside over the Executive Meeting.
- (3) The Vice Presidents shall assist the President. In case the President resigns before his or her term expires, the more senior aged Vice President shall become President. His or her term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former President's.
- (4) The Executive Director shall keep all records of meetings and operations, assist the President and the Vice Presidents in carrying out the activities of the League, and report those activities at the General meeting. The Executive Director shall be a paid position.
- (5) The Treasurer shall collect membership dues, be in charge of the League's finances, and report the financial statement of the previous year and the budget for the following year at the General meeting.
- (6) The Public Relations Officers shall perform public relations activities as delegated by the President and the

Board.

- (7) The Spokesperson shall represent and announce the opinions of the League as delegated by the President and the Board.
- (8) Executive Body members shall automatically become members of the Board.
- (9) The Executive Body shall recommend Special Members.

Section 16: Composition of the Board

The Board shall consist of fewer than fifty members. There shall be one Chairperson, one Vice Chairperson, two Auditors, chairpersons for the committees, and local representatives.

Section 17: Selection of the Board Members and Their Terms

- (1) The number of board members to be elected shall be decided at a Board meeting before the annual General meeting. The elected Board members shall serve four year terms and be elected by a majority vote from the following pool of candidates:
 - a. Persons recommended by the Board;
 - b. Persons who have submitted to the Chairperson petitions signed by more than thirty members at least thirty days before the General meeting.
- (2) The Chairperson and the Vic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from among the Board members by majority vote of the Board meeting. Their terms shall be two years, regardless of their remaining terms as Board members.
- (3) Auditors, committee chairpersons, and local representatives shall be elected among elected Board members by majority vote at the Board meeting. Their terms shall be four years, regardless of their remaining terms as a Board members.

Section 18: Duties of the Board Members

- (1) The Chairperson shall call and preside over the Board meetings and the Standing Committee meetings.
- (2) The Vice Chairperson shall assist the Chairperson. If the Chairperson resigns before his or her term expires, the Vice Chairperson shall become the Chairperson.
- (3) Board members shall attend the Board meetings, make decisions on the items listed in Article III, Section 11 (2), and

perform activities for the pertaining committee.

- (4) Board committee chairpersons and local representatives shall study the activities related to the ones listed in Article I, Section 4 and submit plans to the Board or the Standing Committee.
- (5) The Executive Director shall record and keep the minutes of the meetings.
- (6) The Auditors shall audit the accounts of the League and report the results to the General Meeting.

Article IV Finance

Section 19: Income

Income for the League shall come from membership dues, directors dues, and othe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of the League.

Section 20: Expenditures

All expenditures of the League shall require the approval of the President and require receipts.

Article V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Section 21

At the written proposal of the Board or one-fifth of all members, the Constitution may be amended at the annual General meeting and with the vote of two-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at the meeting.

Appendix

1. This constitution shall be effective on the date it is adopted at the annual General meeting.
2. The terms of the present Chairperson and Vice Chairperson as of 1996 shall serve their remaining terms.



				Fax
회장	김성군	President Kim, Song-Kun (Esq.)	294 Washington St., Suite 752, Boston, MA 02108 H: (978) 664-4554 O: (617) 799-7033	H: (978) 371-1217 O: (617) 482-3344
부회장	이경해	Vice President Dong, Kay	239 Fremont St., Taunton, MA 02780 H: (508) 824-4080 O: (800) 867-9000	H: (508) 828-1585 O: (508) 828-1585
부회장	신상철	Vice President Shin, Sang Chul	5 Dewey Rd., Lexington, MA 02420 H: (781) 862-0512 O: (978) 442-0531	O: (978) 547-2077
사무총장	김명기	Executive Director Kim, Michael Myungki	2 Lamprey Lane, Lee, NH 03824 H: (603) 659-6129 O: (603) 659-4845	H: (603) 659-5488 O: (603) 659-5488
재무	김광민	Treasurer Kim, Kwang Min	311 Dedham St., Dover, MA 02030 H: (508) 785-8031 O: (781) 320-1969	
대변인	김연숙	Spokesperson Corkum, Yon (CFP)	25 Braintree Hill Office, Suite 301, Braintree, MA 02184 H: (781) 821-5825 O: (781) 562-2020	O: (781) 562-1010

이사장	김양길	co-Chairperson Kim, Yangkil	182 Olympic Lane, N. Andover, MA 01845 H: (978) 691-5108 O: (978) 247-2103	H: (978) 687-8942 O: (978) 247-2603
이사장	김문소	co-Chairperson Kim, Moon So (DVM)	10 Cardinal Lane, Andover, MA 01810 H: (978) 475-3534 O: (978) 851-3626	H: (978) 470-3232 O: (978) 851-6408
부이사장	송기백	Vice Chairperson Song, Gi Baeck	17 Kenney Circle, S. Easton, MA 02375 H: (508) 238-1112 O: (781) 326-9898	O: (781) 326-9898
감사	임병규	Auditor Lim, Byoung Kyu	24 Thomas Dr., Reading, MA 01867 H: (781) 942-0624 O: (617) 662-1137	
감사	최영훈	Auditor Choi, Yung Hoon	37 Woodpark Circle, Lexington, MA 02420 H: (781) 861-6068 O: (603) 579-2512	O: (603) 579-2510
교문	김갑동	Advisor Kim, Kap Dong (Rev.)	526 Commonwealth Ave., Newton, MA 02459 H: (617) 965-2157 O:	
교문	박경민	Advisor Park, Kyung Min (MD, PhD)	41 Laxfield Road, Weston, MA 02493 H: (781) 899-5009 O:	H: (781) 899-4675
교문	이재신	Advisor Lee, Jay	141 Rhode Island Rd., Lakeville, MA 02347 H: (508) 923-0031 O:	

자동 추대교문 뉴잉글랜드 한인회장, 뉴햄프셔 한인회장, 메인 한인회장,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

유권자 등록 추진 및 회원관리 위원회 REGISTRATION, CAMPAIGN & MEMBERSHIP COMMITTEE

위원장	이동익	Chairperson, Committee Lee, Dongik	26 Rockyhill Road, Andover, MA 01810 H: (978) 470-1793 O: (978) 470-4793	O: (978) 470-8232
북부대표	안병학	Rep., Northern Region An, Byung Hak	50 North St., Andover, MA 01810 H: (978) 689-9546 O: (978) 749-9904	O: (978) 749-9904
서부대표	박현준	Rep., Western Region Park, Hune June (DMD)	364 Rindge Ave., #2M, Cambridge, MA 02140 H: (617) 441-8372 O:	
중부대표	정석호	Rep., Central Region Chung, Paul S.	65 Broadway St., Newton, MA 02160 H: (617) 928-1023 O: (800) 473-1922	O: (617) 267-5009
남부대표	강세현	Rep., Southern Region Kang, Sae Hyun	166 Alfred Rd., Milton, MA 02186 H: (617) 361-0373 O: (617) 561-3111	
Ayer대표	박순연	Rep., Ayer Area Park, Sun Yon	461 Litch Field St., Leominster, MA 01453 H: (978) 537-8922 O:	
위원	조정자	Member, Committee Cho, Jung Ja	101 Lovejoy Road, Andover, MA 01810 H: (978) 474-4780 O:	
위원	성진수	Member, Committee Sung, Christopher	294 Washington St., Suite 752, Boston, MA 02108 H: O: (617) 482-1300	

기금 모금 위원회 FUND RAISING COMMITTEE

위원장	김벤자민	Chairperson, Committee Kim, Benjamin, W.	231 Harvard Ave. (Metro Boston), Boston, MA 02134 H: (617) 277-1128 O: (617) 513-8223	
위원	김진동	Member, Committee Kim, Jin Dong	39 Pleasant St. #B-18, Northborough, MA 01532 H: (508) 393-3677 O:	

위원	김기석	Member, Committee Kim, Kisuk	1 Terrace Rd. , Weston, MA 02493 H: (781) 899-3453 O: (617) 332-2800	
위원	박필수	Member, Committee Pak, Phil S.	54 Lakeview Ave. , Tyngsboro, MA 01879 H: (978) 649-6595 O: (978) 649-4177	
위원	방선욱	Member, Committee Pang, Gregory	5 Eastwood Lane, N. Easton, MA 02376 H: (508) 230-2757 O: (508) 584-5500	O: (508) 559-2488
위원	최원길	Member, Committee Choi, Won Kil	150 Sawyer Lane, Tewksbury, MA 01876 H: (978) 858-0810 O: (978) 688-5418	

홍보 위원회

COMMUNICATIONS COMMITTEE

위원장	이상우	Chairperson, Committee Lee, Sang Woo	1006 Sterns Hill Road, Waltham, MA 02451 H: (781) 642-7135 O: (617) 964-8044	H: (617) 969-8234
위원	김금련	Member, Committee Kim, Zombek	7 McHugh Farm Lane, Chelmsford, MA 01824 H: (978) 256-5480 O: (508) 423-3124	O: (978) 453-4890
위원	김성빈	Member, Committee Kim, Sung Bin	P. O. Box 205, Dover, MA 02030 H: (508) 785-1752 O:	

출판 위원회

PUBLICATION COMMITTEE

위원장	이의인	Chairperson, Committee Lee, Eui In (PhD)	7 Goffe Rd. , Lexington, MA 02421 H: (781) 862-5270 O: (781) 981-4544	H: (781) 862-2636 O: (781) 981-0783
위원	박경원	Member, Committee Park, Kyung Won (MD)	127 Ridge St. , Winchester, MA 01890 H: (781) 721-1260 O: (617) 667-3112	O: (617) 754-2677

정치 활동 위원회

POLITICAL ACTION COMMITTEE

위원장	김성인	Chairperson, Committee Kim, Sung In	6 Zambom Terrace, Andover, MA 01810 H: (978) 738-0034 O: (617) 737-3243	O: (617) 338-1280
위원	김은한	Member, Committee Kim, Eun Han (MD)	23 Solomon Pierce Rd. , Lexington, MA 02420 H: (781) 861-0437 O: (781) 665-8912	H: (781) 861-0437
위원	김대권	Member, Committee Kim, Dae Kwon	2 Dimitrios Circle, Peabody, MA 01960 H: (978) 531-8861 O:	

대외 협력 위원회

COMMUNITY LIAISON COMMITTEE

위원장	노명호	Chairperson, Committee Lowe, Myeong Ho	1370 Mass Ave. , Arlington, MA 02476 H: (781) 595-4065 O: (781) 648-4783	
APAC	김성군	Member, Committee Kim, Song-Kun (Esq.)	294 Washington St. , Suite 752, Boston, MA 02109 H: (978) 664-4554 O: (617) 482-1300	H: (978) 371-1217 O: (617) 482-3344
AAUD	최흥균	Member, Committee Choi, Hong Kyun (PhD)	228 Depot St. , Easton, MA 02375 H: (508) 230-3770 O: (508) 824-6696 x512	H: (508) 230-3770 O: (508) 822-1381
MIRA	지형민	Member, Committee Jee, Hyung Min	200 Brookside Dr. , Andover, MA 01810 H: (978) 821-7648 O: (603) 749-9904	
기타단체	제시카 리	Member, Committee Lee, Jessica	298 Ocean Ave. , Marblehead, MA 01945 H: (781) 631-4255 O: (781) 639-1847	
기타단체	캠벨	Member, Committee Campbell, Robert H.	100 Littleton Road, Westford, MA 01886 H: O: (978) 692-4711	O: (978) 392-0570

인권 옹호 위원회

CIVIL RIGHTS COMMITTEE

위원장	박대위	Chairperson, Committee Park, David	107 Scotland St. , Hingham, MA 02043 H: (781) 740-1286 O: (508) 879-4285	O: (508) 879-4303
위원	고일석	Member, Committee Koh, David I.	5 Cityview Circle. , N. Providence, RI 02911 H: (401) 353-6180 O: (401) 944-1110	O: (401) 944-1106
위원	김관수	Member, Committee Kim, Joshua	1 South Point Dr. , Apt. #117, Dorchester MA 02125 H: (617) 287-9523 O: (617) 338-4700	

시민권 취득 위원회

CITIZENSHIP COMMITTEE

위원장	박경수	Chairperson, Committee Park, David K. (Esq.)	15 Lyme Road, Newton, MA 02165 H: (617) 964-1140 O: (617) 973-3536	
위원	김한수	Member, Committee Kim, Hansoo	26 Reeves Rd. , Bedford, MA 01730 H: (781) 275-2409 O: (508) 383-7721	

청년 위원회

YOUNG GENERATION COMMITTEE

위원장	김영곤	Chairperson, Committee	27 Tyler St., Salem, NH 03079	
		Kimi, Young Kon	H: (781) 322-6417	O: (781) 324-7765
위원	김원주	Member, Committee	10 Rogers St., Apt. 215, Cambridge, MA 02142	O: (781) 324-7756
		Kim, Won Ju	H: (617) 494-1591	O:
위원	이유탉	Member, Committee	222 Babcock St., Apt. 4D, Brookline MA 02446	
		Lee, Yoo Taek	H: (617) 232-5869	O:
위원	하동원	Member, Committee	45 Skyline Dr., #2, Braintree, MA 02184	
		Ha, DongWon	H: (617) 710-8583	O: (781) 849-0150

지역 간사

REGIONAL REPRESENTATIVES

NH주	한윤영	New Hampshire Rep.	353 Maple St., Manchester, NH 03103	
		Han, Yun Young	H: (603) 893-6373	O: (603) 622-8883
NH주	오수택	New Hampshire Rep.	3 Stone Post Rd., Salem, NH 03079	
		Oh, Steve	H: (603) 898-6576	O: (603) 434-8399
RI주	정정욱	Rhode Island Rep.	61 Heritage Road, Seekonk, MA 02771	H: (508) 336-0927
		Jhung Wook, Jhung (MD)	H: (508) 336-5580	O: (401) 729-2711
ME주	채도경	Maine Rep.	3 Tallwood Road, Augusta, ME 04330	O: (401) 729-3204
		Chai, Dou Kyung (MD)	H: (207) 622-9757	O: (207) 623-3515
				O: (207) 626-9277

임기 년한별 이사 구분

Terms of Directors

2001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당연직이사(회장단)				
김성균, 이경해 신상철, 김명기 김광민, 김연숙	박필수, 임병규 김기석, 김한수 김문소, 김성인 이재신	최원길, 김양길 김갑동, 김진동 김금련, 이의인 제시카 리	방선욱, 안병화 박대위, 송기백 박경민, 이상우 김은한	고일석, 최영훈, 이동익, 노명호, 박경수, 박경원 정석호, 박현준, 강세현, 박순연, 조정자, 성진수 김관수, 김성빈, 김대권, 김영곤, 김원주, 이유택 하동원, 지형민, 최홍균, 김벤자민, 캄벨

협회 주요 사업 계획

2001년도

Major Activities

FY 2001

1. 회의 : 총회 1회, 이사회 4회, 상임이사회 및 상임임원회 2회, 편집위원회 4회, 특별위원회
2. 출판 및 홍보 : 회지 발간 1회, 뉴스레터 발간 1회, 매체 등 각종 홍보 활동
3. 캠페인 : 각종 캠페인 4회 이상(유권자 등록 및 투표, 회원 확보, 법안 반대 및 추진, 한인 정부직 추천 등)
4. 시민권 취득 워크샵 : 2회 (6월과 10월)
5. 초청 간담회 : 전국 한인 단체 결성 관련 등
6. 기금 모금 : 정치 인턴 후원 모금 파티 (4월)
7. 여타 단체와의 유대 : 전국 한인 단체 대회 참가, 여타 소수민족 회의 참가 등

INFLOWS		OUTFLOWS	
Membership Fee	\$2,390.00	Advertisement	\$1,360.00
Director's Fee	\$8,350.00	Commission	\$4,000.00
Ad. Income	\$9,925.00	Contribution	\$964.64
Donation	\$7,020.00	Printing	\$8,233.85
Grant	\$1,350.00	Meeting	\$1,295.41
Fundraising Income	\$9,090.00	Fundraising	\$6,721.83
AAUD Ticket Sale	\$900.00	Scholarship	\$6,000.00
Interest Income	\$74.52		

TOTAL INFLOWS	\$39,099.52		
		Annual Report Fee	\$15.00
		Mail	\$136.58
		Miscellaneous	\$24.16
		Travels	\$216.50
		Bank Charges	\$153.58
		AAUD Tickets	\$900.00

		TOTAL OUTFLOWS	\$30,021.55

Total Inflows	\$39,099.52	Beginning Cash Balance	\$5,279.10
Total Outflows	<u>\$30,021.55</u>	Net Income	<u>\$9,077.97</u>
Net Income	\$9,077.97	Ending Cash Balance	\$14,357.07



2001년도 예산

수입 예산		지출 예산	
회비 (\$10x300명)	\$3,000	협회지 10호 출판비	\$10,000
이사회비 (50명)	\$10,000	뉴스레터 발간비	\$1,200
협회지 10호 광고	\$13,000	광고, 타 기관 지원비	\$2,000
정치인턴모금파티	\$10,000	이세 활동 지원비	\$1,000
AAUD 티켓	\$900	정치인턴 장학금	\$7,000
기타 찬조비	\$7,000	정치인턴 모금파티 경비	\$7,500
		10회 총회 경비	\$500
		전국대회 참가비	\$1,000
		인건비	\$6,000
		AAUD 티켓	\$900
		우편비	\$1,700
		사무비	\$1,000
		비품비	\$1,500
		전화비	\$900
		은행 경비	\$200
		예비비	\$1,500
총 계	\$43,900	총 계	\$43,900

한인의 힘을 뭉칩시다. 시민협회에 가입해 주십시오.

오른 쪽에 있는 입회원서를 작성하셔서 회비와 함께
김 광민 재무에게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권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 세대인 젊은 2세 지도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핫라인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회장 김 성 군 (617)799-7033
294 Washington St., Suite 752, Boston, MA 02108

사무총장 김 명 기 (603)659-6732(핫라인)

<http://www.KACL.org>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입회 원서 (Membership Application)

Renewal (갱신 또는 년회비 납부) () New(신규) ()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시민권자 ()

직장전화: () _____ - _____ 정당: Independent () Republican () Democratic ()

영주권자 ()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시민권자 ()

직장전화: () _____ - _____ 정당: Independent () Republican () Democratic ()

영주권자 ()

주소: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County) _____ 집전화: () _____ - _____

소속교회 혹은 기관: _____

위 본인은 협회 헌장에 명시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서명 _____ 서명 _____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회장 귀하

년회비 (Membership Yearly Dues) : 1인당 \$10 \$ _____

이사회비 (Officers Yearly Dues) : 1인당 \$100 이상 \$ _____

찬조비 (Other Contributions) : \$ _____ 총계 (Total) \$ _____ (수표동봉)

수표작성 (Make checks payable to) : KACL

Mail to :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c/o Kwang Min Kim (재무 김광민, 781-320-1969)
311 Dedham St., Dover, MA 02030

알리는 말씀

시민협회는 정부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나 위원회의 자리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인들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자격이 있는 분들의 명단을 미리 확보하려고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주소로 영문 이력서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Mailing Address: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c/o Song-Kun Kim
294 Washington St., Suite 752, Boston, MA 02108
(회장 김성균, 617-799-7033)

시민협회 핫라인: (603) 659-6732 Michael M. Kim(사무총장 김명기)
24시간 문의 및 연락 가능

스시킵	(617)978-8580	이경해 금융	(508)880-3535	Choi TKD Academy	(413)736-1008
신라식당	(617)547-7971	이종수 파인앤스	(617)799-6158	Jae Jo TKD	(508)820-1618
쌍둥이 레스토랑	(508)797-4009	이발관		Jae Kim TKD	(617)266-5050
수라 레스토랑	(401)277-9088	한국이발관	(617)278-0275	Kwon TKD Academy	(978)858-3699
아시아나 그릴	(781)646-2766	한인이발관	(617)783-3213	Lee TKD College	(781)575-1777
아시아 레스토랑	(617)489-6333	인쇄소		Park's TKD Academy	(978)345-3007
아시아안 바베큐	(617)354-9255	큰나무 인쇄소	(508)879-4285	World TKD Academy	(781)942-2299
요코하마	(508)689-4047	자동차 정비·바디		택시	
우정식당	(978)772-5742	박석만 Auto Body	(978)686-9546	보스톤 콜택시	(617)783-1234
우촌집	(617)623-3313	태양자동차 정비	(781)391-7700	한글학교	
장음식주문	(617)623-7537	Complete Car Care	(978)858-0074	뉴잉글랜드 학교협의회	(617)232-1708
칼라분식	(617)787-5656	Foreign Motor West	(508)237-1212	남서부 한국학교	(781)575-1777
코리아나	(617)576-8661	Sooner Lube	(978)858-0070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508)798-2677
코리아 하우스	(617)338-8585	전자제품		뉴햄프셔 한인학교	(603)437-5134
하나스시	(617)868-2121	한국위성 수신안테나	(508)540-0886	로드아일랜드 한국학교	(401)274-2044
한강	(617)739-6221	Allston TV	(617)787-1667	메인 한글학교	(207)725-1309
J.P. Seafood Cafe	(617)983-5177	전화·무선전화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	(617)366-2743
JTK 그릴	(781)894-2120	보스톤 폰카드 홀세일	(617)357-8021	보스톤 한국학교	(617)739-2663
식품점		우리 셀룰라	(617)524-8282	보스톤 성경교회 학교	(781)275-8233
고향식품	(413)586-2682	Allston TV(AT&T)	(617)787-1667	보스톤 시온성 한국학교	(978)256-5655
농장식품	(617)232-0800	AT&T(노진희)	(617)450-4823	보스톤 사랑의 한국학교	(617)661-7532
뉴욕식품	(617)868-9850	Call Space	(508)754-2020	보스톤장로교회 한국학교	(508)435-4579
NH 서울식품	(603)626-1334	C.J. Page One	(617)427-3600	보스톤중앙교회 한국학교	(781)682-9890
롯데식품	(617)661-1194	Crystal	(978)687-2118	북부보스톤 한국학교	(978)468-1625
미림식품	(617)783-2626	Exit	(978)689-8080	새싹 한국학교	(603)926-3411
번영식품	(978)537-8180	MCI(Kelly Kim)	(617)284-7017	성요한 한국학교	(781)275-2524
서울식품	(603)626-1334	YDIS(문성욱)	(800)238-8231	우스터트윈시티 한국학교	(508)799-4488
신신식품	(978)686-0813	정신과		캠브리지 한국학교	(617)491-1474
쌍둥이네식품	(508)798-2547	송남수 정신과	(781)762-6592	퀸지영생 한국학교	(781)356-8586
아시아나식품	(401)438-9992	제과		한복점	
오미식품	(413)736-7878	서울제과점	(617)787-6500	은혜 한복 양품	(978)772-3799
우리식품점	(978)772-1772	형제떡집	(978)975-3303	장미 수예 한복	(718)359-0430
은혜식품	(603)893-8511	주류		한의원	
전동양마켓	(603)226-4546	그린소주, OB	(617)445-9304	광개토 한의원	(781)643-3679
정인식품	(401)943-8904	진로소주	(508)651-8186	동일 한의원	(617)770-1256
제일식품	(413)592-5452	카스맥주	(781)758-7501	일선당 한약방(Allston)	(617)787-4503
진미식품	(617)964-2668	지압·단전		일선당 한약방(Natick)	(508)651-8973
청계종합식품	(978)772-5213	단센터 (단전호흡)	(781)647-7733	화원	
한국종합식품	(617)623-9620	신나다수기경락원	(781)435-1309	모나미화원	(617)325-5802
한아름식품	(617)547-8723	한국지압원	(617)278-0275	와일드플라워 꽃집	(508)668-6263
심리상담		천주교		Anderson Florist	(781)894-1843
임나경 심리상담소	(617)738-9622	뉴햄프셔 한인 천주교회	(603)552-8212	Mystic Florist	(617)666-3116
최구미	(617)277-4560	보스톤 한인 천주교회	(617)244-9685	회계사	
안과		커네티컷 한인천주교회	(203)937-6371	김양일	(617)491-4959
글로리아 우 안과	(617)734-0605	치과		김창근	(781)935-4620
김철 안과	(617)322-1725	김영호 치과	(617)894-1127	이현주	(781)944-2442
언론기관		송백종 치과	(617)264-9966	기타	
보스톤 투데이	(617)254-1504	신영목 치과	(617)265-5606	모닝 글로리	(617)628-0226
조선일보(뉴욕)	(718)463-4443	안태준 치과	(781)647-8000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오 치과	(617)924-6452		
한국일보 보스톤지국	(617)713-0010	찰스 허 치과	(781)861-8978		
여행사		한애에 교정치과	(781)862-0930		
대한항공	(617)261-3883	홍종희 치과	(781)321-5656		
범아여행사	(617)482-6237	Cambridge Dental	(617)492-8210		
오리엔트여행사	(800)446-4345	Dental Associates	(617)776-5900		
유니버시티여행사	(888)666-1708	컴퓨터			
코리아여행사	(617)267-7777	J&S Company Ltd.	(617)479-1283		
하나여행사	(800)368-6977	Micro Dimensions	(617)320-1969		
외과		Notebook Plus	(617)267-8439		
박종건 성형외과	(978)879-7575	SMY Solutions, Inc.	(603)870-9108		
운송·이사		태권도			
국제해운	(781)935-5903	김영곤	(978)688-1037		
범양해운	(978)470-8272	박선우 태권도장	(603)433-2099		
보고운송	(888)303-8822	Alpha TKD Academy	(978)256-4904		
보스톤운송	(617)984-2624	Ans TKD	(978)453-5387		
보스톤 한국이사집	(617)560-5851	Central Institute of TKD	(617)776-6161		
Ace 이사집	(617)306-1868	Cho Olympic TKD	(617)630-5137		
E-Z Moving	(617)560-5851	Cho TKD Academy	(781)235-3037		
용자		Choe TKD Academy	(508)852-0009		

혹시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이 된 경우, 또는 전화번호를 바꾸시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다음 호에 바로 게재될 수 있도록 아래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집위원장 이의인 (781)862-5270

뉴잉글랜드 의사 협회

The New England Korean Medical Association

시민협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임원 및 회원 일동

61 Heritage Rd., Seekonk, MA 02771 (508)336-5580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보스톤 지역 협의회

The Advisory Council on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Boston Area Council (9th Term)

4 Concetta Circle, Acton, MA 01720

Day: (617) 542-5511, 482-6237 Fax: (617) 542-0447

Night: (978) 897-4845

보스톤 지역 협의회 회장: 김 창 덕

위원: 김 섭, 권진태, 오상철, 최수길, 장승훈
안남열, 서 일, 최상화, 노명호, 윤광현
최한길, 김승규, 강경희, 이경해, 최동인
강한일, 오수택, 강경식, 김정완, 고일석
김양길, 조봉준, 이문봉, 신고희, 남궁연

시민협회의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뉴잉글랜드 한인회

Korean Society of New England, Inc.

1613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TEL : (617)264-7326, FAX : 264-9632

한인회 임원 및 이사일동

www.KoreanSociety-NE.org

축 시민협회 창립 10주년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회장: 이길자

서기: 이민영

총무: 서진옥

재무: 박승희

섭외: 조옥진

학생: 최승진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RI

P.O. Box 40505, Providence, RI 02904-0605

Tel: (508) 336-5580

Fax: (508) 336-0297

뉴햄프셔 한인회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New Hampshire
290 South River Rd., Bedford, NH 01011
Tel: (603) 537-1507

시민협회의 제10회 정기 총회의 개최와
회지 10호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회장 안 남 열

이사 서 일 김 섭 오수택 박춘근
박선우 한윤영 곽상기

임원 및 회원 일동

메인 한미우정회

The Korean-American Friends Association
626 Congress St., Portland, ME 04101
Tel: (207) 772-6622

이 사

회 장 박 원 배
여성회장 조 영 자
부회장 김 재 현
(Brunswick지역)
총 무 모 재 현

정세련 (Cumberland지역)
정지화 (Portland지역)
윤용부 (S. Portland지역)
김혜자 (Augusta지역)
김점순 (Biddeford지역)
최만수 (Topsham지역)
정해성 (Bangor지역)
김 한 (Sanford지역)

보스톤 한미 노인회

Korean Elderly Association of Boston

43 Chilton St., Belmont, MA 02178

Tel: (617) 484-2831 Fax: (617) 484-2831

시민협회의 제10회 정기 총회와 회지 10호의
발간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장 백 린
임원 및 회원 일동

보스톤 한미 노인대학

41 Laxfield Rd., Weston, MA 02493

Tel: (781) 899-5009 Fax: (781) 899-4675

시민협회의 제10회 정기 총회와 회지 10호의
발간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학장 박 경 민

부 학 장: 강길원 기획: 권이덕

섭외홍보: 김성인 출판: 이의인

뉴잉글랜드 경제인 협회

시민협회의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회 장: 박수균
부회장: 김성균

이 사 장: 서해수
부이사장: 김광웅

사무총장: 이용남 업무부장: 정연무
기획실장: 김광민 재무부장: 강세현
사무차장: 성진수

이사: 김영기, 김창연, 이경해, 최원길
김성환, 김광웅, 김옥식, 김유상
손석구, 김세경, 정양화, 노만영
이영기, 최영민

고 문: 인준식, 김 섭, 김수환, 김병규, 오수택, 정수일, 한윤영, 안병학

1990 - 2000 창립 10주년

뉴잉글랜드 한인 세탁인 협회

New England Korean Dry Cleaners Association

733 Turnpike St., North Andover, MA 01845 Tel: (978) 683-9335

회 장: 윤익중 (978) 683-9335
부 회 장: 이태경 (978) 562-5912
 최동인 (617) 944-7432
이 사 장: 장병준 (978) 977-9766
총 무: 정명철 (978) 470-3138
재 무: 손정봉 (978) 988-3688
서 기: 김동기 (603) 890-1039
자문위원: 정수일, 김기석
 조봉준, 노명호



시민협회의 제10호 회지 발간과
정기총회를 축하합니다.

임원 및 회원 일동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The New England Chapter (KSEA-NE)

(29th Term: 7/1/2000 - 6/30/2001)
60 Garden Street, MS 6, Cambridge, MA 02138
(617) 496-7852

<http://www.kseane.org>

Executive Officers

President

Dong-Woo Kim, PhD

Vice President

Dong Whoan Kim, PhD

General Secretary

Oh Suk Kwon, PhD

Treasurer

Sungeun Kim, PhD

Membership

Yonglak Joo, PhD

Public Relations

Hunhee Lee, PhD

Industry Liaison

Kyung-ho Loken-Kim, PhD

Special Events

Hak Jong Chang

Harvard Postdoc Affairs

Hyunkyung Chung, PhD

MIT Postdoc Affairs

Gyoo Yul Jung, PhD

Young Generation Affairs

Saujin Yi

Graduate Student Affairs

Dongwon Choi

Undergraduate Student Affairs

Brian Um

Webmaster/Editor

Julie Yoo

Professional Groups

Bioscience (NEBS)

Sang Seok Koh, PhD

Chemistry

Insung Choi

Civil

Dong Ho Choi, PhD

EE/CS

Sang Chul Shin, PhD

NE Venture Forum

David Eonjip Choi

Textile

Chung See Lee, PhD

Councilors

Choong See Lee, PhD

Jungsun Jason Kim, PhD

Jae Hong Eu, PhD

Eui In Lee, PhD

Hong Ki Paik, PhD

Kyungsik Kang, PhD

Sang Chul Shin, PhD

Auditors

Chang Yon Byon, PhD

Se-Kyong Oh, PhD

Join KSEA, New England Chapter
Visit www.kseane.org



뉴잉글랜드 지구 서울대학교 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New England
c/o Kyungsik Kang, 1 Memorial Rd., Providence, RI 02906
Tel: (Home) 401-274-2044 (Office) 401-863-1468

회장/이사장: 강경식

부 회 장: 이재신

명 예 회 장: 박경민

총무간사: 윤상래

재무간사: 최향숙

섭외간사: 도운희

회원간사: 김경석

체육간사: 온기철

기획간사: 윤선홍

학생간사: 이기준

음악간사: 황대진 주희성

교문: 김영호 박병덕

감사: 김재호 김호영

이사: 강길원 고일석 김동희 김문소 김선혁 김성빈 김은한 김정선

김종성 김준목 김청하 박영철 박현자 성낙호 윤광현 윤은상

이민용 이희규 장세중 정정욱 최찬혁 최홍균 한서동 홍지복

시민협회의 제10회 정기 총회를 축하합니다.

보스톤한인감리교회

TH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BOSTON

100 Winthrop St., Medford, MA 02155
교회 (781) 863-8463, 목사관 (978) 557-9969

담임목사: 김정수 (Jung Soo Kim)

시무장로: 이인호 정석호
지휘: 이근직 반주: 이나라

집회안내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2:30
아동주일학교: 주일 오후 12:00
중고등부: 주일 오후 12:00
새벽기도회: 토요일 새벽 7:00
장년성경공부: 수요일 저녁 8:00
한국학교: 주일 낮 12:00

로드아일랜드 중앙 한인교회

Rhode Island Central Korean Church
111 Greenwich Ave., Warwick, RI 02886
Jungann@aol.com, http://www.rickc.org

교회: (401) 739-7168 팩스: (401) 738-4215 목사관: (401) 885-9418

담임목사: 서영주

교육전도사:

엄희숙 (행정 및 주일학교)

김줄리어스 (중고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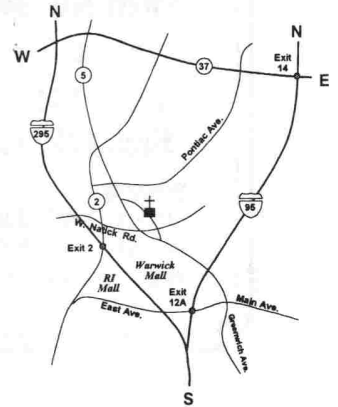
박기호 (협동)

말씀으로 배우고 가르치며
2세 교육에 전념하는 교회
사람으로 하나되어 서로 섬기며
배가로 성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 교회 모임 안내 **

예배 모임	시간
1부 영어예배	
주일 대 예배	12:30 pm
중고등부예배	12:20 pm
주일학교예배	12:20 pm
수요찬양예배	7:30 pm
새벽기도회(월-토)	6:00 am
성경 공부	시간
화요일 성경공부	11:00am, 7:00pm (장소: 교회)
목요일 성경공부	7:00 pm
토요일 Youth모임	7:00 pm
금요청년회모임	7:00 pm
구역예배	매월 마지막 주

** 교회 약도 **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Greenland United Methodist Church

87 Great Bay Road, Greenland, NH 03840

(603) 430-2929, 430-1115(교회) 430-0040(Fax) 433-7475(목사관)



영 어 예 배 9:30 AM
한국어 예배 10:45 AM
주 일 학 교 10:45 AM
수 요 기 도 회 6:00 PM
새벽 기도회 6:00 AM

웹페이지 Web page:
www.greenumc.org

이메일 E-mail:
info@greenumc.org



목 사: 한상신 Everett C. Kuder

전도사: 김유경 조상열 임미순

* 495 North나 95 North로 올라 오셔서 95 North의 Toll Gate를 지나 (약 6 마일쯤) Exit 3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면 신호등을 만납니다. 신호 등에서 왼쪽으로 Turn하셔서 Rte.33 West로 약 4.5마일 가시면 오른쪽에 Great Bay Road를 만나십니다. Great Bay Road에서 오른쪽으로 Turn하여 들어오시면 왼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보스톤 문수사

Mun Su Sa Buddhist Temple

231 Salem Street, Wakefield, MA 01880

Tel. (781) 224-0670, 224-2536

Fax. (781) 224-1087

법회안내

정기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참선법회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어린이 한글학교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보스톤 한인 천주 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Boston

주임신부 : 박영일(바오로)

주일미사: 주일 오후 4:00

유아세례: 첫주일 미사후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목요 미사: 목요일 오후 7:30

예비자교리: 주일 오후 2:30

주일 학교: 주일 오후 2:30

St. Philip NERI Church
1518 Beacon St., Waban, MA 02168
Tel.: (617) 244-9685

〈성당 찾아오시는 방법〉

Mass Pike (West) 에서 Exit 16 (West Newton) 으로 나와 Toll Gate 를 지나 신호등에서 우회전.
10분 정도 계속 직진하다가 Beacon St. 에서 좌회전 한 후,
5분 정도 더 가면 왼쪽으로 성당이 보임 (Church St. 바로 전)
전철 이용시 녹색 D 라인을 타고 Waban에서 내려 큰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다보면 왼쪽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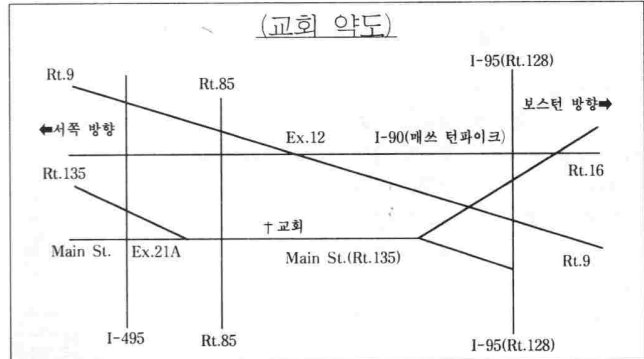
보스톤 장로교회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Greater Boston

보스톤 장로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지 25년째,
 역사깊은 보스톤 세계 마라톤의 출발 지점인 합킨톤 센터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현금으로 구입한 후,
 97년 9월 5일 하나님께 예배당을 봉헌하고 보스톤과 뉴잉글랜드를 향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20개 이상의 교실과 체육관을 가지고 있으며, 2세대의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하며 특히 영생의 문제로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본 교회 집회 안내

- ◆ 매일 새벽 기도회 (오전 5시부터 자유로)
- ◆ 주일 낮 예배 (주일 오전 11시)
- ◆ 주일 새벽 기도회 (주일 오전 6시)
- ◆ 수요일 기도회 (수요일 오후 8시)
- ◆ 유년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시)
- ◆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토요일 오후 6시)
- ◆ 대학, 청년부 (주일 오후 1시, 금요일 오후 7시)
- ◆ 영어성경반 (주일 오전 9시)
- ◆ 청장년부 (금요일 오후 7시)
- ◆ 구역 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보스톤 장로 교회

2 Main Street, Hopkinton, MA 01748
 교회 (508)435-4579, 팩스 (508)435-5467, 목사관 (508)478-9705
 담임목사: 전덕영 전도목사: 김자진 협동목사: 전광식
 전도사: 승선배(유년부) 옥승웅(대학청년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새 천년을 소망의 주님과 함께 출발하시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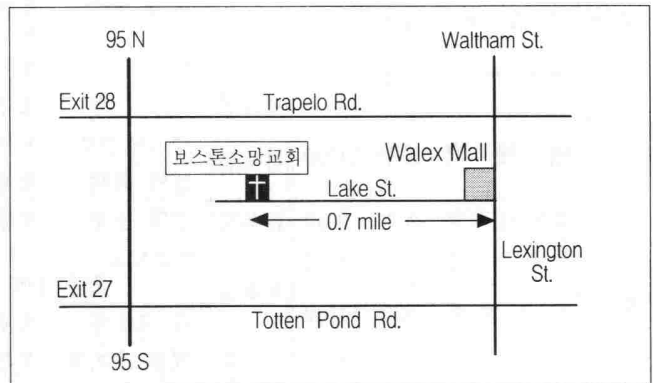
보스톤 소망교회

THE KOREAN HOPE CHURCH OF BOSTON
 285 Lake St., Waltham, MA 02454 (교회 ☎781-647-0190)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을 향하신 주님의 소망이 크고 놀랍습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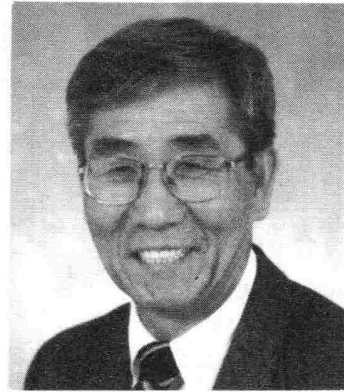
- ◆ 주일 예배 오전 11시30분 (주일)
- ◆ 주일학교 오전 11시30분 (주일)
- ◆ 중, 고등부 오전 11시30분 (주일, 영어예배)
- ◆ 구역리더 성경공부 오후 1시30분 (주일)
- ◆ 장년 성경공부 주중 구역별
- ◆ 청년부 성경공부 오후 1시30분 (주일)
- ◆ 여성 JOY BIBLE 오전 10시30분 (수요일)
- ◆ 찬양과 기도의 밤 오후 8시 (금요일)
- ◆ 새벽 기도회 오전 6시 (월-토)



담임목사 박찬수 목사 (617-484-4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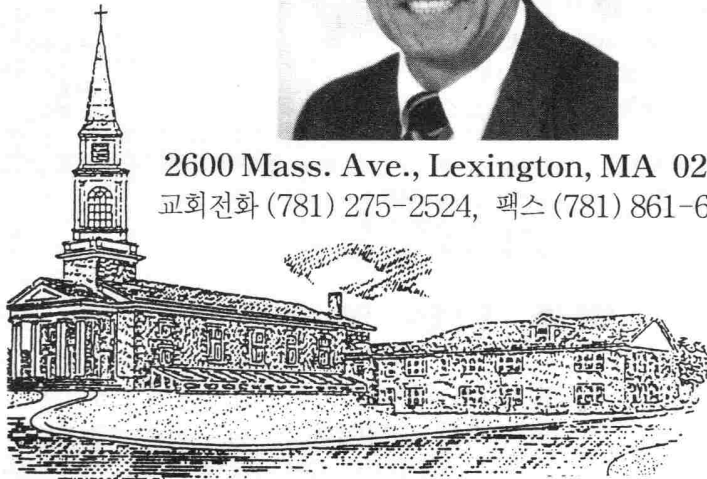
성요한 감리교회



담임목사: 권진태 (781)275-7880
 영어예배: Dr. Duane Garrett (781)862-9492

교회 모임 안내

주일 1부 예배 (한국어)	일요일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영어)	일요일 오후 1:45 (Lexington)
Harvard Square-	일요일 오전 9:30 (Grapevine)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철야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새벽 기도회	일요일 새벽 6:00
주일 학교	일요일 오전 11:30
성경공부장년부 (한국어)	일요일 오전 10:00
금요일 한국어 성경공부	금요일 오후 7:30
대학생부 (영어)	금요일 오후 7:30
청년부 (영어)	금요일 오후 7:30
중고등부 (영어)	토요일 오후 7:00
	일요일 오전 9:00



2600 Mass. Ave., Lexington, MA 02421
 교회전화 (781) 275-2524, 팩스 (781) 861-6931

북부보스톤교회

North Bosto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244 Lowell St., Andover, MA 01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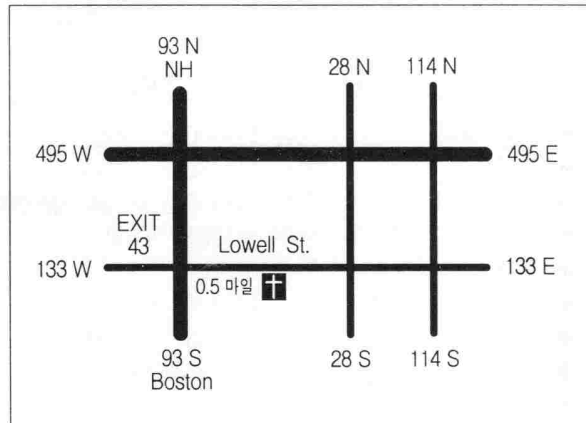
☎ (978) 470-0621, 470-1998 (Fax) 목사관 (978) 689-3990

전심으로 배우고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교회

집회 안내

주 일		주 간	
새벽	기도회 오전 6:00	화요일	성경 공부 오전 9:30 오후 7:30
예배	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일	영어 회화 오후 8:00
	대예배 오전 11:00	목요일	예배 오후 8:00
성경공부	성인 성경반 오전 9:30	금요일	성경 공부 오후 8:00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	한국학교 오전 9:00-12:00
	중고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후 6:00
	청년부 1,3주 오후 12:30	속회	매월 속회별 오후 7:00

약도



담임목사: 전중현 교육목사: 주학선
 전도사: 가한나, 유원재, 오세명, 최줄리

보스톤한인교회

(미국장로교)

The Korean Church of Boston

The Presbyterian Church(U.S.A.)

Founded in 1953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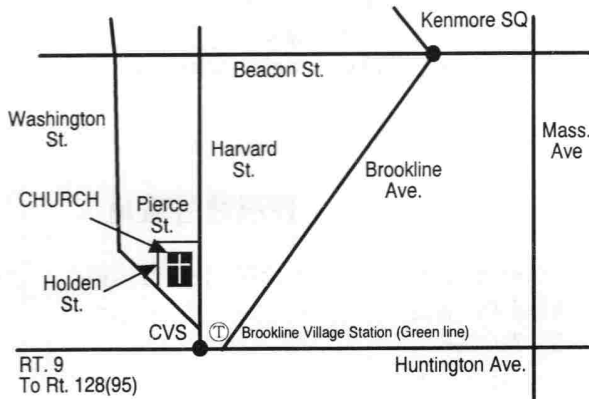
Tel: (617)739-2663 Fax: (617)739-1366

Internet: <http://www.kcboston.org>



담임목사: 이 영 길
(Pastor: Rev. Young Ghil Lee)

목사관: (617) 469-4289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후 12:00
유년부 예배	오후 12: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12:00
영어 예배	오후 2:00

교회학교 성경 공부

새신자반 (초급반)	오전 10:30 (주일)
제자훈련반 (중급반)	오전 10:20 (주일)
주일 성경 공부	오전 10:30 (주일)
수요 여성 성경 공부	오전 10:30 (수요일)
영어 예배부	오후 7:30 (금요일)
청년부	오후 7:30 (금요일)
대학부	오후 7:30 (금요일)
보스톤 한국학교	오전 9:30 - 오후 12:30 (토)
문의전화: (508) 431 1351	

보스톤성결교회

BOSTON EVANGELICAL CHURCH

24시간 기도하는 장소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각 부서마다 전담교역자를 모시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합한국학교에서는 부모의 심정으로 7개 교실에서 일곱 반으로 나누어 3시간동안 한국어 교육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보스톤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 하려고 합니다.

담임목사 김세진



BOSTON EVANGELICAL CHURCH

집 회	시 간
주일 대 예배	1부 오전 9시 30분 2부 오전 11시
주일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30분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6시
수 요 예 배	수요 저녁 8시
각부교회학교	주일 오전 11시
백합한국학교	토 오전 9:30-12:30
새 가 족 반	주일 오후 1시30분

교회로 오시는 길

I-95 & 128 을 이용하여 오시면 Exit 32A에서 Rt.3 North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약 2마일 오시면 Exit 26번에서 Rt.62를 만나게 되는데 신호를 받으신 후 Rt.62 West, Bedford 방향으로 좌회전 하셔서 0.8마일을 오시면 Stop Sign이 앞에 보이는 삼거리가 나옵니다. 우회전하시면 Old Billerica Road이며 0.8마일 오시면 왼편에 교회가 있습니다.

(I-495에서 Rt.3 South 방향으로 오시는 분은 Exit 26에서 나오셔서 우회전하시면 Rt.62W이며 위와 같이 오시면 됩니다.)

276 Old Billerica Rd. Bedford, MA 01730
교회 (781)275-8233, 8533(Fax) www.bostonchurch.com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주일 설교 방송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퀸지영생장로교회

Quincy Youngsang Presbyterian Church (PCUSA)

270 Franklin Street, Quincy, MA 02169 • (617) 770-2755

담임: 강준모 목사 (617) 471-0233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엡2:22)

Direction: Take I-93S from Boston or I-93N from South to Rt. 3S to Cape Cod. Take Exit 18 on Rt. 3 to Washington St (this exit is immediately after splitting from I-93). Take left at Washington St. After crossing the overpass, take right to 1 o'clock direction at the traffic light (there is no sign, but this is the Washington St.) Come to the end of this street. Take a right turn, and the church is on your left.

예배시간

주일예배: 주 일 1:30 pm
 주일학교(영어): 주 일 1:30 pm
 아침 기도회: 월-토 6:00 am

교회학교

수요일예배: 수 8:00 pm
 목요일성경공부: 목 8:00 pm
 청년선교회: 금 7:00 pm
 영어회화반: 수 7:00 pm

퀸지한국학교

토요일 10:30 am
 주 일 12:30 pm

내슈아 한마음 장로교회 Nashua HanMaUm Korean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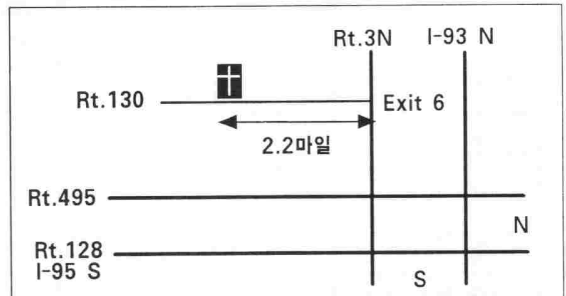
목 표(행2:42) 1.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2.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3. 기도예 힘쓰는 교회

본교회 집회 안내

주일 대예배	주일 오후 1시 30분
금요일 성경공부, 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8시
한마음 한글 학교	주일 오후 12시 30분
유년/중,고등부	주일 오후 1시 30분

한마음교회 성구

“마음을 같이 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향하여 한마음을 품어 (빌2:2)”



▶ Rt.3 North로 나오시다가 Exit 6로 나오신 후, Rt.130 West로 약 2.2마일 오시면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담임목사: 박계철 (Rev. Gye Chil Park, Pastor)

교회주소: 555 Broad St., Nashua, NH 03063 (603)889-4020

목사관: 44 Cadogan Way, Nashua, NH 03063 (603)888-8040

성령이 증명한 교회! 지혜가 증명한 교회! 정잔이 증명한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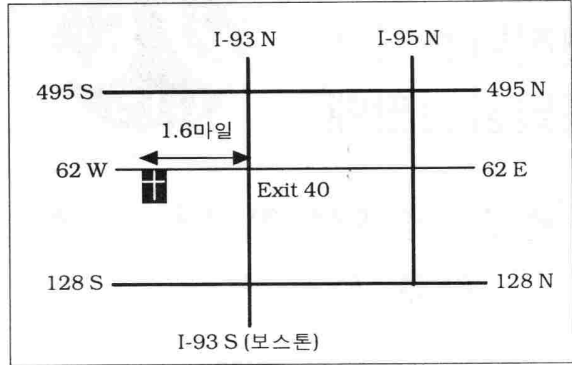


보스톤 영광 교회

이곳에 귀하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주님의 제단이 있습니다. 은혜스런 예배와 깊은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으로 황무한 이 땅은 물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진 교회! 귀하를 초청합니다.

담임목사 : 김 정 대

요일	모임	장소	시간
주일	주일대예배	예배실	오후 1시30분
	유년주일학교	교육관	오후 1시30분
	장년성경공부	예배실	오후 12시45분
	한글학교	교육관	오후 12시45분
수요일	여성성경공부	교육관	오후 8시(격주)
금요일	성령대망회	예배실	오후 8시
	중고등부집회	예배실	오후 7시
토요일	남성성경공부	교육관	오후 8시(격주)
	토요새벽기도	예배실	오후 6시(매주)



【교회로 오시는 길】

남쪽에서(보스톤방향): I-93 N (Exit 40) ← Rt. 62 W ← 정확히 1.6마일 지점 왼쪽에 있는 교회임.
 북쪽에서(뉴햄프셔방향): I-93 S (Exit 40) ← Rt. 62 W ← 정확히 1.6마일 지점 왼쪽에 있는 교회임.
 173 Church Street, Wilmington, MA 01887 ☎:(978)681-8436(목사관,팩스), (978)658-0150(교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톤산성(山城)장로교회

Greater Boston Fortress Korean Presbyterian Church

111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617) 926-2195 (교회, Fax) (617) 923-9581 (사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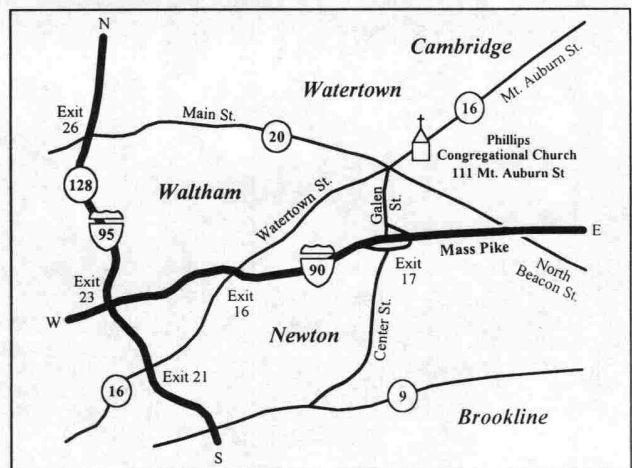
담임목사: 신 언 동

협동목사: 박 수 호
 (청년대학부)

집 회 안 내

주일대예배: 주일 오후 2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6시
 (월, 토요일 제외)
 청년대학부성경공부: 주일 오후 4시

교 회 약 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지정대리점

유니버스 여행사

Universe Travel Services

모국방문,
비즈니스여행
특별할인판매



국제선, 국내선 항공권 판매
관광 상품 판매

(888) 666-1708

171 Amory St., Brookline, MA 02446
Web page: www.utsboston.com

「玉皇토 찜질팩」

효능효과

팔, 다리, 허리, 등 쭉시고 결릴 때
관절통, 신경통, 근육통, 타박상
배가 냉할 때, 생리통
디스크환자 물리치료
미용 마사지 산후조리
소화가 잘 안될 때

각종 동양식품 일체
(친절, 봉사, 특별서비스)

농장식품

(617) 232-0800

1617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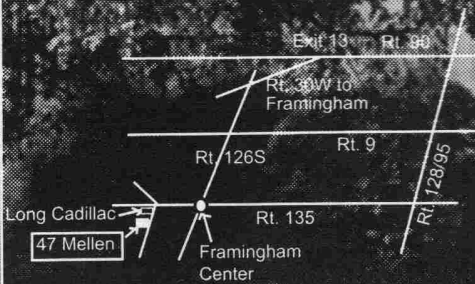
BIGWOOD PRESS

(큰나무 인쇄소)

47
WELLEN

47 Mellen Street
Framingham, MA 01702
Tel: 508-879-4285
Fax: 508-879-4303

- Quality Printing
- Short-run On-Demand Digital Color Printing by INDIGO Digital Press
- Sameday Color Printing Possible



신신식품점

SHIN SHIN ORIENTAL MARKET

저렴한 가격/다양한 품목을 자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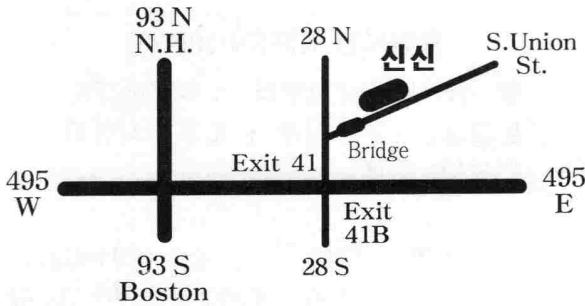
978-686-0813

615 South Union St., Lawrence, MA 01843

영업시간

화-목: 오전 10시-오후 7시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금-토: 오전 10시-오후 8시 월요일: 휴무



떡 전문점

형제떡집

뉴잉글랜드의 유일한 떡집

백일, 돛 잔치 주문 환영
각종 떡 종류 일체

687 Lowell St., #3-B
(Armory Sq.)
Mathuen, MA 01844

27 Shandel Drive
Tewksbury, MA 01976

(978) 975-3303

(978) 851-4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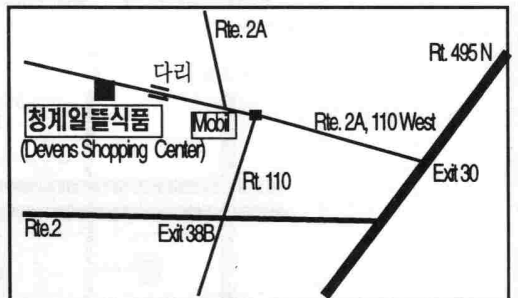
뉴잉글랜드 최고의 동양식품점 청계알뜰식품

Chung Ge Market, 210-D West Main St.
Ayer, MA 01432 (Devens Shopping Center 내)

연중무휴, 주 7일 영업 - 10시부터 9시 !!

☎(978)772-5213

- ☞ 다양한 동양식품류
- ☞ 최신 시설의 생선부
- ☞ 신선한 야채류
- ☞ 한국 비디오 테이프
- ☞ 아모레 화장품 취급
- ☞ 조리된 밑반찬류
- ☞ 싱싱한 생선회 전문
- ☞ 최고급 비육류
- ☞ 특별 선물용품 코너
- ☞ 넓은 주차장 완비



Rt. 495의 Exit 30에서 Ayer 다운타운으로 들어와 Rt.2A가 갈라지는 Mobil 주유소까지는 총 5.5마일, 거기서 청계식품까지는 0.9마일

Allston TV

Allston TV를 아세요?

여기 항상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봉사로 교포 여러분의 전자제품 구입에 손과 발이 되어 드립니다. 대부분의 상품이 Lechmere나 Circuit City보다 저렴하며, Free Delivery와 setup도 해 드립니다. <Ask for Detail>

취급 품목 안내

- ▶ Audio & Video
- ▶ Cameras
- ▶ Telecomm.
- ▶ Small Home Appliances
- ▶ Watches, Ray-ban Sunglasses
- ▶ Electronics, Accessories
- ▶ KODAK Film Processing

OPEN HOURS

월-토: 9:30am-7:30pm

일: 휴무



AT&T Wireless Services

190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el.:(617)787-1667 Fax.:(617)782-7723

보스톤 한인 최대의 자동차 종합 서비스

태양자동차

170 Mystic Ave., Medford, MA

- 엔진수리
- 트랜스미션
- 브레이크
- 자동차전기
- 오일교환
- 컴퓨터 테스트
- 튜닝
- 에어컨
- 페인트
- 타이어
- 머플러
- 중고차 판매
- 렌트 카
- 토잉 서비스
- 바디 & 리페어
- Mass Inspection

영업시간 (OPEN HOUR)

월-금: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요일: 휴무

Tel. (781) 391-7700

(781) 391-6200

(781) 391-3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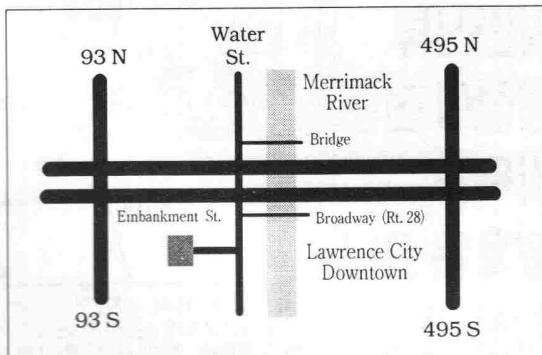
Fax:(781) 391-3400

박 자동차 바디

Park Auto Body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되었습니까?
오토바디 예술사 - 박 오토바디를 찾아 주십시오.

자동차 보험 청구를 위한 견적서 작성



Park Auto Body

11 Embankment St.
Lawrence, MA 01842

Tel.: (978)686-9546

Fax: (978)687-6255

자동차 바디

FOREIGN MOTORS WEST

당신께서는 어떤 차를 타고 계십니까? 당신께서는 어떤 차를 타고 싶으십니까?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떤 곳에 차를 맡겨야 될까요? 요즘의 차는 점점 고급화, computer화되며
 다양한 테크닉과 다양한 도색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르면 못고치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차주인도 모르는 순간 mechanic의 실수로 전기와 computer에 이상이 생겨
 정말 위험한 순간에 air bag이 터져주지 않는다면.....

FOREIGN MOTORS WEST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장비, 많은 Information을 가진,
 매사추세츠에서 가장 큰 시설과 장비, 기술의 Full Service딜러입니다. 안심하고 차를 맡겨주십시오.
 교민들을 위하여 성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차종이든지 전화 주십시오.

Full Service Dealer Bodyshop



롤스로이스, 벤츠
 레인지 로버, BMW, 쉐보레
 최신, 최고의 장비, 완벽한 수리
 Professional Body Technician

240 Eliot St., Ashland, MA 01721
 Tel.: (617) 237-1212
 (508) 881-8080
 Fax.: (508) 881-3723

Chong Kyo Yi
 이정규

General Repairs

Mass. 99 Inspection #4878



- Brakes
- Tune-up
- Mufflers
- CV Axles
- A/C
- Alignment

David Kim

Bob Sanzo

818 Main Street
 Tewksbury, MA 01876

(978)858-0074
 Fax:(978)640-9908

Best Oil Change in the U.S.A.



David Kim - Owner

734 main Street
 Tewksbury, MA 01876

(978) 858-0070
 Fax: (978)640-9908

이현주 공인회계사

C. P. A.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사업체, 법인설립과 해체
회계 처리 및 감사
경영진단 및 절세상담
각종 License 신청업무

용자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150 Main St.

Reading, MA 01867

Tel.: (781) 944-2442

Fax: (781) 944-2772

MON AMI GARDENS

모나미 화원

111 Woodcliff Rd., Brookline, MA 02467

주야주문: (617)325-5802

생화, 동양난, 서양난, 관엽식물, 선물용전문

근조 - 근조, 부의, 추모, 추도, 영안실 제단, 영정,
관 꽃장식

축하 - 승진, 취임, 영전, 생신, 전시, 연주, 입학, 졸업,
출생, 이전, 결혼, 회갑, 개업, 준공, 각종행사,
약혼, 기념, 돌, 백일, 세례, 이사

예식 - 결혼예식장, 연회장 꽃, 식물장식

기타 - 병문안, 화해, 감사

스타일: 꽃바구니, 꽃다발, 꽃상자, 출생용품과 어린이용
수반(인형포함) 화병, 주인공꽃다발(신부부케이),
콜사지(남여 예식용, 일반용)

“보내는 정성, 받는 기쁨은 모나미에서
함께 전해드립니다.”

Best of the Best 99, 2000

Anderson Florist

Weddings • Functions • Funerals
Balloons • All Occasions • Plants
Fruits / Gourmet Baskets

한국말을 하는 리-즈를 찾아주세요
항상 Fresh한 꽃이 가득한 꽃가게

226 Moody St. • Waltham, MA 02453
(781) 894-1843 • Fax: (781) 894-5161

**Quality. Trust.
Integrity.
Professionalism.**

These principles distinguish us as a
leading financial services firm.
They are the hallmarks of
Salomon Smith Barney.

방 선 욱

Gregory S. Pang

Second Vice President - Investments

Stocks, Bonds, Mutual Funds, IRAs, Retirement Plans,
Tax-Favored Investments, Education Funding and
Financial Planning Services.

111 Torrey Street
Brockton, MA 02301
(800) 372-5632

SALOMONSMITHBARNEY

A Member of **citigroup**

Salomon Smith Barney is a service mark of Salomon Smith Barney Inc.
© 1999 Salomon Smith Barney Inc., Member SIPC

임나경 심리 상담소

Nakyung Im

LICSW, ACSW, BCD
Licensed Psychotheapist

308A Harvard St.
Brookline, MA 02146
Phone: (617)738-9622
Fax: (617)738-9622

22 Spear St.
N. Quincy, MA 02169
Phone: (617)472-5428
Fax: (617)847-4450



TEWKSBURY ANIMAL HOSPITAL

1098 MAIN ST. TEWKSBURY, MA 01876
(978) 851-3626
FAX (978) 851-6408

김문소

HOURS: MON. TUES. THURS.
9-12 NOON 4-7 P.M.
FRI. 9-12 NOON 4-6 P.M.
WED. & SAT. 9-12 NOON ONLY

DR. MOON S. KIM
DR. ELIZABETH A. NOWAK

WE ♥ REFERRALS

이운로 산부인과

Uhun R. Lee, M.D.

Practice in Obstetrics & Gynecology

Telephone
(508)580-0044

45 Pearl Street
Brockton, MA 0240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신영목 치과



FRANK Y. SHIN, D.M.D.

1428 Dorchester Avenue
Boston, Massachusetts 02122

Telephone: (617) 265-5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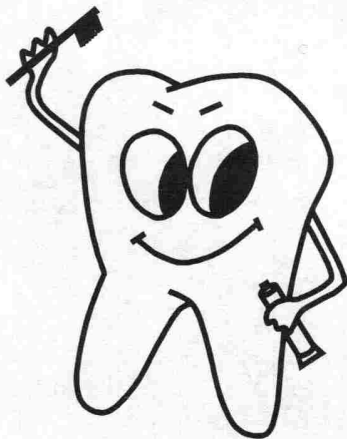
안태준, D.M.D.

Tufts 치과대학
Clinical Instructor

문유경, D.M.D.

Harvard 치과대학
Clinical Instructor

홍기천, D.M.D.



- Preventive: X-rays, 치석제거, 치료상담, 충치예방, Fluoride Treatment(불소)
- Cosmetic: 미용 치과, Bleaching, Bonding, Veneers
- Pedodontic: 소아치과, 어린이 충치예방(Sealants)
- Orthodontic: 교정치과
- Restorative: 아말감, 보철(Crowns & Bridges), 틀니, 부분틀니, 치아이식(Implants)
- Periodontic: 치주질환치료
- Endodontic: 신경치료
- Oral Surgery: 구강외과, 발치, 사랑니제거
- Oral Pathology: 병리치과, 구강암진단

안 치 과

Cronin's Dental

225 Moody Street, Waltham, MA 02453

(781) 647-8000

한방은 한의사에게

一善堂 漢藥房

일선당 한약방

E. SHAN TANG

OPEN HOURS

화-일(Tue-Sun): 10:00am-5:30pm

월(Mon): 휴무(Closed)

B.J. WANG



Comm. Ave.

Brighton. Ave.

157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el:(617)787-4503 Fax:(617)787-4519

E. SHAN TANG NATICK

一善堂 漢藥房

DAN DAN WANG

BRUCE EMERMAN

단단 왕은 BJ 왕의 누나이며
Natick에 새로 개업하였습니다.

Tel. (508) 651-8973 251 West Central St. (Rt.135)
Fax (508) 651-8976 Natick, MA 01760

광개토 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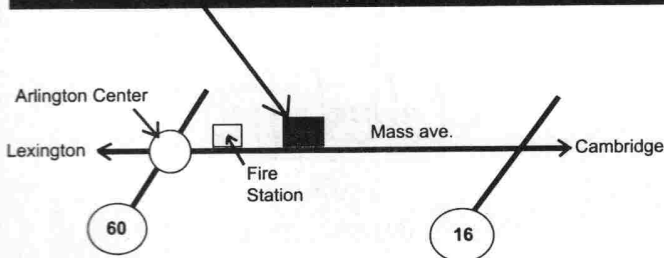
원장 김명철

주정부 침구면허 ● 주정부 한약사면허

MYUNG KIM'S ACUPUNCTURE AND HERB CLINIC

347 Mass. Ave., Arlington, MA 02474

Tel: 781-643-3679 Fax: 781-643-3681



Bus Line: #77 Harvard Stn. - Arlington Height
#79 Alewife Stn. - Arlington Height
#67, #80, #87 and # 350

동일 한의원
DONG IL HAN YI WON

뉴잉글랜드 유일의 여자 한의사 이금재

CA · MA · NCCA 자격증 보유

- 한방부인과 · 지매예방약
- 부작용없는 확실한 다이어트
- 중국비방의 아이들 보약 및 어른보약
- 공부잘하고 체력증진 강화 및 기억력증강

사전 예약 바람

침, 부황 치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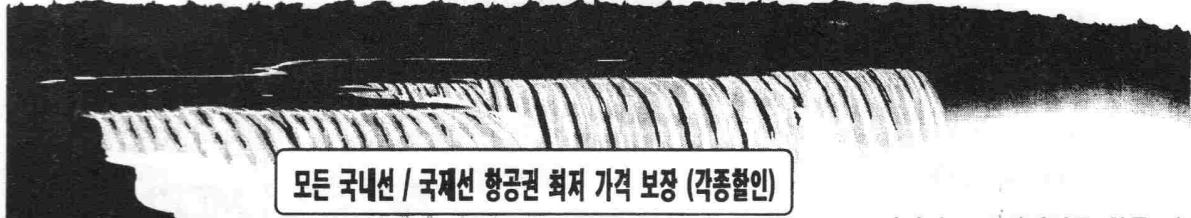
148 Quincyshore Dr. #42
N.Quincy, MA 02171
Tel:(781) 289-3694 or (617) 770-1256



보스톤 코리아 여행사

Korean Travel & Tours in Boston

보스톤 교통의 중심지 Kenmore Sq. (B.U Book Store 옆)에 위치하여 최고의 서비스최저가격으로 항상 봉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내선 / 국제선 항공권 최저 가격 보장 (각종할인)

보스톤 유일의 관광가이드

- 일일관광- 시내 & 프리머스
- 뉴잉글랜드, 캐나다지역
- VISA, 통역/번역 기타

무료전화

1-800-473-1922

- ▶ 시민권 · 운전면허증 취득 안내
- ▶ 통역 · 번역
- ▶ 각종 Tour

Tel.: (617)267-7777(Esther Chung, Paul Chung, Ameuda Kim) Fax: (617)267-5009

650 Beacon St. Suite #205, Boston, MA 02215

J.S.C. Construction
&
Remodeling

Kwang H. Cha
Tel: 781-453-2933
Cell: 781-389-1264

40 Pleasant St., Needham, MA 02492

한국빵과 케익의 명문

서울제과

영업시간 (7 Days Open)
월-일 오전 7:30-오후 10:30

Tel.: (617)787-6500
56-8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메트 라이프 파이낸셜 서비스

조종운 종합보험

(781)255-1134 ext. 6116 (Office)
(617) 901-8822 (Cell)

takeshima
JAPANESE CUISINE

308 HARVARD STREET BROOKLINE, MA 02146 TEL. (617) 566-0200

신라

Korean & Japanese Restaurant

Harvard Square의 명소
보스톤 최고의 음식과 서비스

- 신선도 제일의 스시바
- Sake, 맥주, 각종 와인
- 각종 모임을 위한 완벽한 설비

영업 시간
11:30 AM - 10:30 PM
(목,금,토 새벽 1시까지)



57 JFK Street
Cambridge, MA 02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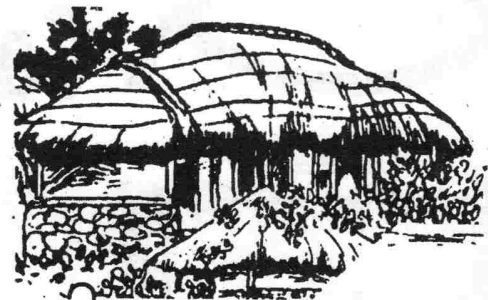
Tel.:617-547-7971 Fax:617-354-8022

한식 부산집 일식

구 리틀부산

- 미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주인이 직접 요리합니다.
- 자연원료로 정성 들여 만든 독특한 맛의 소스를 사용합니다.

Beer
&
W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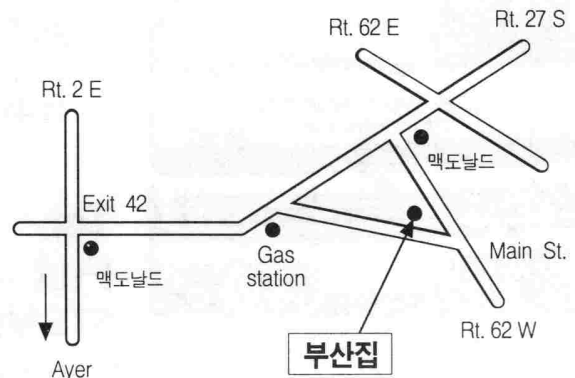


(영업시간: 주 7일 오픈) - 런치 스페셜 -

월-토: 11:00am - 10:00pm
일요일: 1:00pm - 10:00pm

전화: (978) 897-5107
83 Main St., Maynard, MA

- 주방헬퍼 및 주방 경험 있으신 분 구함



아시아나 그릴

ASIANA GRILLE

한식일절

바베큐 그릴

스시바

중화요리(짜장, 짬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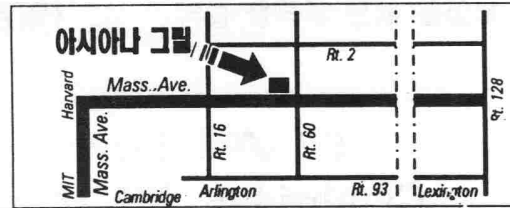
정통 일식(스시, 사시미)

타이음식

FREE PAR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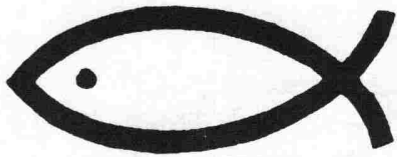
Open Hour : 7 days open

Mon~Thur : 11:30am~10:00pm / Fri~Sat : 11:30am~11:00pm / Sunday : 2:30pm~10:00pm



Tel. (781) 646-2766 / 5686

Arlington, MA 02174 (아시아나 그릴은 알링턴 센터에 있습니다)



싱싱한 생선

Captain Boston Fish



싱싱함 그 자체의 신선한 생선과
 핏감은 언제든지 쿨링(생선전용보관)차로
 원하시는 그 때에 바로 도착합니다.

식당전용배달

영업시간 : 월-토 8am-7:30pm

Tel. (781) 395-8138

Fax (781) 391-5782

375 Main St., Medford, MA 02155



93번 북쪽에서 오실 때: Exit 31번, Rt. 38 도로 패스, 직진, 두번째 신호등 코너
 93번 남쪽에서 오실 때: Exit 29번, Rt. 38 North, 왼쪽 Harvard St., 두번째 신호등 코너

Q-vin King of Sus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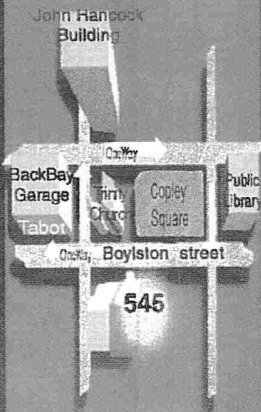
보스톤 최초의
숯불 갈비
숯불 B.B.Q.
복 매운탕
복 지리
전문점

Luncheon
Buffet 12:00~3:00

Dinner
Cuisine 5:00~12:00

- SHUMAI
- OYSTER PONZU
- SOFT SHELL CRAB
- SHRIMP TEMPURA
- BULGOGI
- KALBI

- SUSHI PAD-THAI
- SASHIMI BIBIMBAP
- STON-POT BIBIMBAP
- BANGKOK WINGS
- CHICKEN CASHEW NUT



Q-vin
Japanese Korean Thai

545 Boylston St. Boston, MA 02116 617-375-0545,6



H&E Korea

2 Lamprey Lane
Lee, NH 03824-6552 U.S.A.

무역 서비스

무역 전시회 및 세미나 참가, 세일즈 대행, 안내 및 통역
각종 수출 및 수입 대행
무역 관련 각종 정보 리서치

디렉 메일 광고 서비스

뉴잉글랜드 전역 3,000여 한인 가정 주소록 보유
플라이어, 쿠폰 등 광고 디자인 및 우편 발송
저렴한 가격, 확실한 광고 효과

선불 전화카드

한국 통화에 가장 저렴한 가격, 광섬유의 깨끗한 음질
팬아시아카드 및 UNI 플래티넘 카드
뉴잉글랜드 전역 독점 딜러
소매 판매 문의 환영
교회 및 각종 단체의 기금 조성에 최적, 문의 환영

Tel (603)659-4845, 6129
PCS Phone (603)682-1021
Fax (603)659-5488



Lee Antiques

동양, 유럽 및 미국 골동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고유 한국 예술품과 가구는 물론
현대 한국 예술품도 판매 및 구입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를 환영하며,
구경삼아 부담없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BUYING & SELLING

- ❀ Chinese Export Porcelain ❀
- ❀ Imari, Satsuma, Netsuke ❀
- ❀ Sterling Silver ❀
- ❀ Estate Jewelry ❀
- ❀ European & Continental
Decorative Art & Antiques ❀

235 Washington Street, Marblehead, MA 01945
Tel.: (781) 639-1847 (제시카 리)

동강회관 B.K. GR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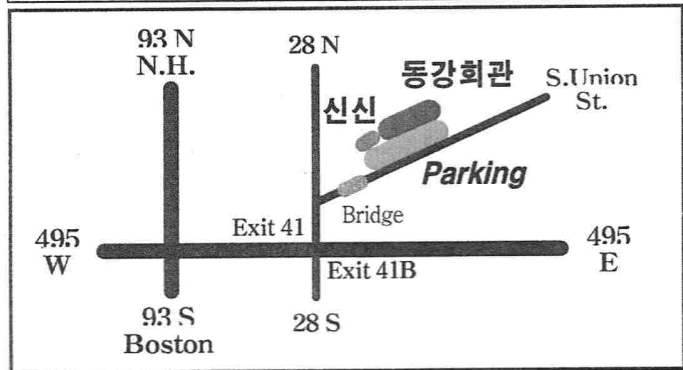
- ◆ 대형 주차장 시설
- ◆ 스시바/All Liquor Bar
- ◆ 가라오케 시설
- ◆ 단체 손님 예약
- ◆ 단체 음식 주문



- 한/일식 전문 -
 즉석 왕갈비 / 냉면
 동강정식 백반, 전골류
 스시 / 사시미



동강회관 B.K.GRILL
 611 South Union Street
 Lawrence, MA 01843
 (978)686-0389



한식 · 일식 전문점

마사 MASA

Japanese Korean Cuisine

양재동 해물탕!
그 깊은 맛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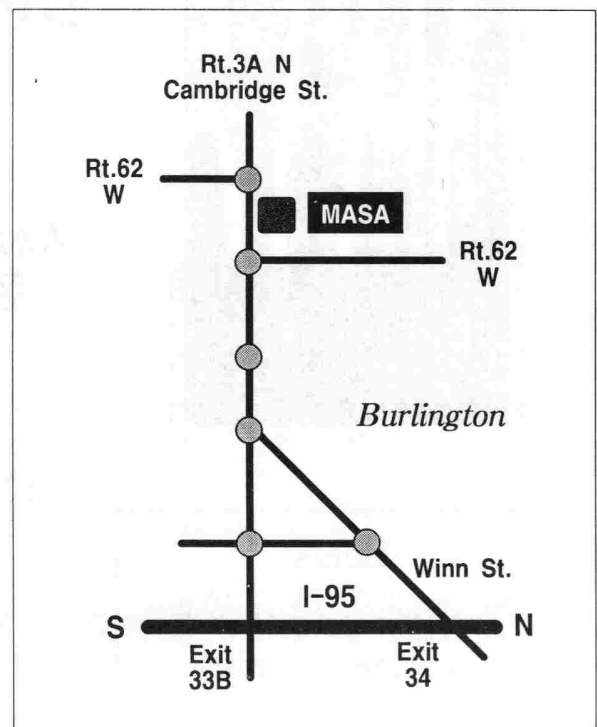
영업시간

- 월-목: 11:30am - 10:00pm
- 금, 토: 11:30am - 10:30pm
- 일요일: 휴업

전화: 781-272-1290

FAX: 781-272-1267

376A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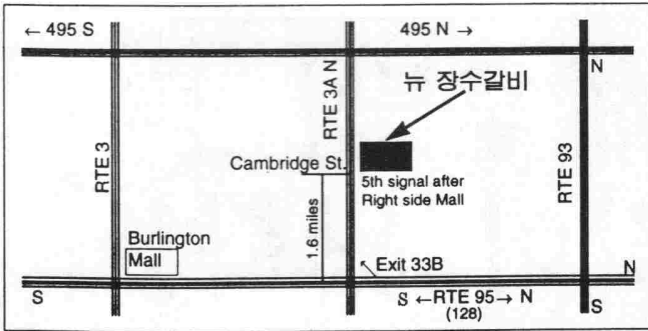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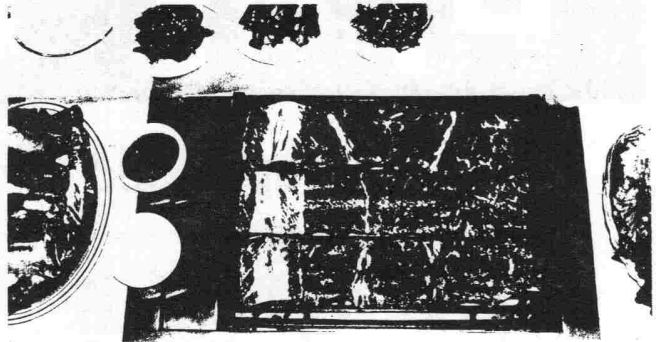
New JangSoo Korean B.B.Q. Restaurant

뉴장수갈비

즉석 왕갈비 • 냉면 전문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갈비 경력 18년의 주인이 직접 요리합니다.
음식은 정성입니다. 정성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 617-272-3787
260 Cambridge Street
Burlington, MA 01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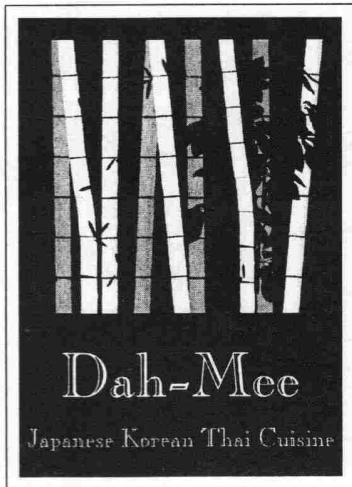
* 대형 무료 주차장

OPEN HOURS

화-금: 11am - 10pm

토-일: 12pm - 10pm

* 매주 월요일 휴업



다미 (Dah~Mee)

일식, 한식, 타이식 식당

Natick Center에 새로 오픈하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큰맛(다미:多味)이 나는
일식과 한식, 그리고 타이식의
여러 음식으로 정성껏 모십니다.

Hours

Mon-Thu: 11:30 a.m.-10:00 p.m.

Fri-Sat: 11:30 a.m.-10:00 p.m.

Sun: 5:00 p.m.-10:00 p.m.

25 Washington Street
Natick, MA 01760
508-655-3951/655-3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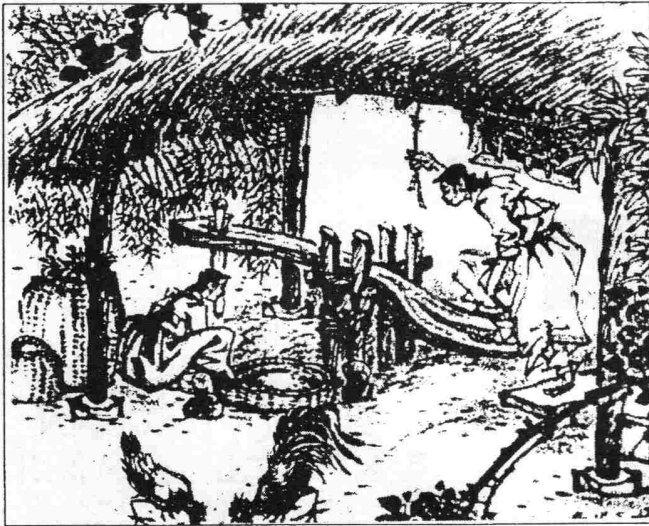
Korean & Japanese Restaurant



우촌집

Wuchon House

“오늘 우촌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일품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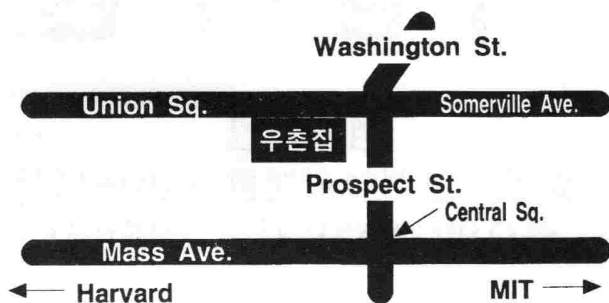
특미 냉면·즉석곱창·낙지전골
왕갈비·해물전골

【 영업시간 】 7일 영업

(월 - 토) 11:30am - 11:00pm

(일요일) 12:00pm - 10:00pm

- 각종 대소연회
- 4-12명까지의 아담한 연회실
- 뚝·회갑·생일·잔치음식 주문 받습니다.
- Harvard & MIT에서 약 1마일 반
- 무료주차장 오후 5시 이후(일요일은 무료주차)



Tel.: (617)623-3313 · Fax: (617)623-3439

Union Square. 290 Somerville Ave., Somerville, MA

"다모아로 다 모여라!"

Grand Opening

- Beer & Wine License
- 단체손님예약 환영(120석 규모)
- 단체음식 주문환영
- 주차해 드립니다 (Valet Parking)
- Takeout & Delivery (\$20 Minimum)
(Allston, Brighton, Brookline, Newton Area)

구 용정옥 자리에 한국, 일본, 타이식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다모아 그릴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음식 하나 하나에 신선함과 정성을 담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부디 오셔서 맛을 보시고 평가해 주십시오.

주요 메뉴

한 식	일 식	타이식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곱창전골, 해물전골	일본인 주방장이 만드는- 스시 스페셜	파 타이 (Pad Thai)
여름의 별미- 물냉면, 비빔냉면	신선한 생선으로 만드는- 사시미 스페셜	세슈안 (Szechuan)

다모아 그릴

117 Chiswick Road, Brighton, MA 02135

맛의 문화를 활짝 열겠습니다

한식 · 일식 전문점

서울회관

영업시간

월-토: 오전11시30분 - 저녁11시

일요일: 정오12시 - 저녁10시

(781) 391-5606

29 Riverside Ave., Medford, MA 02155

한 식

각종 전골 굴보쌈
오족탕 냉면
회냉면 아구찜
해물 모듬찜 숯불갈비

일 식

사시미 스시
샤부샤부

- 각종 파티 환영, 단체예약
- 돌상, 환갑상 차림 완비
- 단체음식, 풀서비스
- 한정식, 스시 케이터링
- 각종 주류 완비
- 250석의 연회석
- 150여대의 넓은 주차장

Now OPEN!

사뽀로

뉴턴센터에 오픈하였습니다.
 신선한 사시미와 수시를
 마음껏 드실 수 있으며
 한식도 준비되어 있고,
 전철역에서 바로
 걸어오실 수 있습니다.



Edible Art

Open 7 days

LUNCH HOURS

Mon-Fri 11:45 am-3:00 pm
 Sat-Sun 12:00 pm-3:00 pm

DINNER HOURS

Mon-Thu 5:00 pm-10:00 pm
 Friday 5:00 pm-11:00 pm
 Saturday 3:00 pm-11:00 pm
 Sunday 3:00 pm-10:00 pm

81R Union Street
 Newton Center
 (617) 964-8044

SAPPORO

JAPANESE KOREAN RESTAURANT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항공 보스톤 대리점

최근 아시아나를 타보셨습니까? 정해진 요일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많은 동남아 중국 및 일본 노선 언제나 재비행기로 모시겠습니다. 타 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1. 아메리칸 에어라인과의 Code-Share를 체결하여 편리한 스케줄로 NYC, LAX를 연결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뉴욕-서울-LA-보스톤)
2. 아시아나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공동 마일리지 제휴로 마일리지 혜택이 전세계로 넓어져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미국 국내선, 캐나다, 중남미, 유럽 등 전세계 274여개 도시로 가는 무료항공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보스톤 시내관광 (Plymouth포함)
- ◆ 올렌도 (3박 4일)
- ◆ 서부지역 (5박 6일)
- ◆ 브라질 (이과수 폭포등) (7박 8일)
- ◆ 유럽 여행
- ◆ 고국방문 (제주도, 전국 수학여행)
- ◆ Golf Tour Package 전문

Toll Free 1-877-734-8801

- ◎ 학생 · 단체 · 경로 특별대우
- ◎ 공항 픽업 서비스
- ◎ 고국 방문
- ◎ 신혼 여행
- ◎ Vacation
- ◎ 골프 투어
- ◎ 성지 순례
- ◎ 고객 가족 마일리지 관리

편안한 여행의 동반자



Best Fly to Asia with Asiana Airlines!

285 Belmont St., Suite A, Belmont, MA 02478
 617-489-2227, Cell 617-293-1608 (Chris Kim)

LEE ASSOCIATES

사업과 부동산 서비스

- ◆ 부동산 (주택, 상업용)
- ◆ 융자 (노인컴 베리피케이션 프로그램)
- ◆ 비즈니스 부로커 (다양한 리스팅이 많음)

보스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부동산 거래의 모든 것을 확실히 책임지고 결실을 드립니다.



사업, 부동산
무료 상담

무료 상담 전화 (800)867-9000

자세한 리스팅 information은 아래의 인터넷 주소로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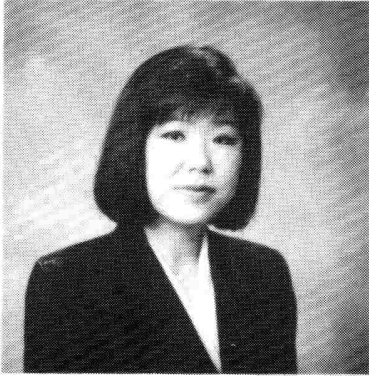
www.leebrokers.com

이 경 해 (Kay Dong)

239 Fremont St., Taunton, MA 02780

Tel: (508) 880-3535 Fax: (508) 828-1585

김연숙 재정 계획 전문인 (Certified Financial Planner)



Yon Kim Corkum, CFP, CMFC
Advanced Advisor Group
Senior Financial Advisor
(781) 562-2020

자격증

- * 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
- * Chartered Mutual Fund Counselor (CMFC)
- * Series 7 증권 브로커 자격증
- * Series 63 매사추세츠주 증권 법률 자격증
- * Series 65 연방정부 단일 투자 상담가 자격증

등록증

- *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Financial Planning

각종 투자와 보험 · 스탁 · 본드 · 뮤추얼 펀드 생명보험 · 사립양로원보험 · 불능보험

여러분이 힘들게 모으신 귀중한 재산입니다.
투자는 반드시 투자 전문인과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2백만명으로 미국 재정 기획회사 중 선두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회사에서 최상급인
Senior Financial Advisor 지위를 획득하고 해박한 투자 지식과
철저한 고객 서비스로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American Express Financial Advisors Inc.

25 Braintree Hill Office Park, Suite 301
Braintree, MA 02184

Phone: (781) 562-2020 Fax: (781) 562-1010

E-Mail: Yon.K.Corkum@AEXP.com

WOW!

It's a whole new world.



Find out more @

koreanair.com



Log on to www.koreanair.com
for special Internet fares, ticket reservation, schedules,
SKYPASS, various informations you need to know
before booking your next flight.

Visit www.koreanair.com & embrace the future.

KOREAN AIR